최종보고서

지방소멸 대응재원의 농업·농촌 활용방안 연구

2023. 4

전라북도의회

제 출 문

전라북도 의회 의장 귀하

이 보고서를 **「'지방소멸 대응재원'의 농업·농촌 활용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4월

[연구기관] 재단법인 **전북연구원**

연 구 진

연구책임 **황 영 모**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김 동 영**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조 원 지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정 호 중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권 오 현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요 약

□ 연구목적

○ 지방소멸 위기 배경은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농업을 매개'로 하는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원의 활용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 연구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소멸 대응재원'으로 하여 농업·농촌에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는데 목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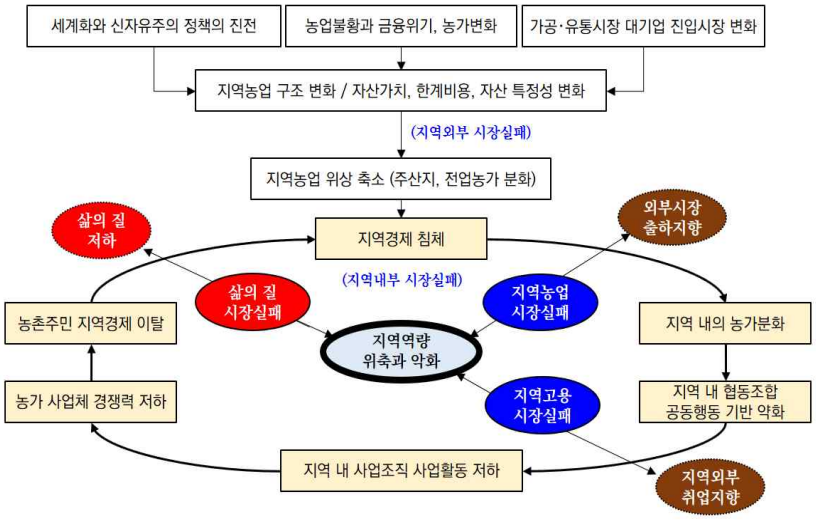
□ 농촌문제 진단

○ 농촌의 인구구조와 삶의 질 수준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적 위기로 현실화, 문제의 '현실'은 구조적 ' 문제'로 빈곤의 악순환 고리에 머물고 있음

○ 수도권 중심으로 외부시장 출하지향은 '지역농업 시장실패'와 농업매개의 '지역고용 시장실패'로 이어져 외부의존 구조로 바뀜

○ 농촌지역에서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서비스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삶의 질 시장'이 실패하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 놓이게 된 것임

〈농촌지역 사회위기 문제와 악순환의 구조〉



□ **지방소멸 대응재원 정책현황과 개선과제**

① 지방소멸대응기금

○ (개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지역에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정부 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 광역과 기초 계정으로 광역자치단체에는 25%, 기초자치단체에는 75% 재원을 배분하는 구조임 ('22년 7,500억원)

○ (현황)지자체 제출 기금 활용 투자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등 3개 분야가 사업건수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진단) 실행계획 평가 등 행정주도의 단기적 성과에 지나친 비중을 두는 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치중하는 경향이 문제로 지적됨

○ (과제) 사용처에 대해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실행계획 수립 등 기금 지원 계획 프로세스 상의 한계로 지적됨

② 고향사랑기부금

○ (개요) '고향사랑기부금'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외부인으로부터 지역발전 재원을 모금하고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정책

○ (사용) 모금된 재원은 ①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②청소년 육성·보호, ③문화·예술·관광 진흥, ④보건·의료 증진, ⑤시민참여·자원봉사 지원, ⑥공동체 활성화, ⑦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

○ (진단) 행정 중심 획일화된 기부금 접수·홍보, 답례품 중심으로 모금된 재원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활용방안 부재 등의 문제가 지적

○ (과제) 조성한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사용하여 정책도입의 배경이 되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실행계획의 준비가 시급

□ **지방소멸 대응 활성화 정책사례와 시사점**

○ 지역사회 후퇴에 문제의 정의, 대응방향의 구상, 실행주체의 설정, 프로젝트의 실행 등 일정한 변화 성과를 창출한 스토리 방식으로 국외 사례를 검토함

○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는지, 활성화 사례를 검토·소개함(일본 고향납세 활성화 60개 사례 등)

① ‘지역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산업,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영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과제를 찾아내고 있음 → 특정 영역에 특화하더라도 전체화하는 종합적인 시각의 입장 견지가 중요

② 지방소멸 배경인 ‘농업·농촌’ 문제에 주목하여 대응전략과 활성화 매개를 ‘농업적 이용’과 ‘농촌적 활용’에서 찾음 → 문제의 원인이 농업의 쇠퇴와 농촌의 침체라는 점을 전제로 대응전략 구상

③ 빛바랜 ‘영광’인 미이용·미활용 유휴건물을 매개로 혁신 아이디어와 활동과 사업이 일어나는 거점화를 하고 있음 → 방치된 기존 시설을 살펴 혁신활동이 일어나는 거점화 전략은 매우 유효

④ 문제 대응 변화·혁신을 아이디어로 구체화하고 사업·활동으로 전환하는 창조계층을 유치하여 주민과 상승작용 → 사람 유치에 직접 매달리지 않고, 사람이 들어와 살고 활동할 여건을 마련

⑤ 행정 주도성·책임성 바탕으로 민간의 혁신성·창의성을 결합한 추진체계 갖춰, 다양한 실행주체 지원체계를 갖춤 → 행정은 기준을 잡고 정책을 지원하면서 민간주체의 창의적 활동 적극 지원

□ 지방소멸 대응재원의 농업·농촌 활용해야 하는 이유

○ 우리 사회가 직면한 4대 위기(기후위기·식량위기·사회위기·지역위기)를 극복하는 대처와 역량은 ‘회복력’으로 ‘농업·농촌’이 회복력의 원천임에 주목

① 기후위기 상황에서 농업·농촌은 환경과 생태를 지키는 ‘생태적 회복력의 원천’임

② 식량위기 상황에서 농업·농촌은 먹거리 안보를 지키는 ‘경제적 회복력의 기반’임

③ 사회적 위기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농업·농촌은 ‘사회적 회복력의 토대’임

④ 소멸 등 지역의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농업·농촌은 ‘조직적 회복력’의 근간임

□ 지방소멸 대응재원의 농업·농촌 대응전제 검토

○ (단계) 참여형·단계별 과정 중요 ○ (대상) 농업·농촌자원의 적극 활용

○ (주체) 지역사회 주체 육성 전제 ○ (방식) 사회혁신 체계 현실적 적용

○ (공간) 생활권 중심 적정한 범위 ○ (활용) 정책자원의 실효적인 활용

○ (목적)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지방소멸 대응재원의 농업·농촌 활용전략 구상**

① 지방소멸대응기금

○ (활용방향) 지역사회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농촌재생, 농촌혁신, 농촌개발'의 영역에서 재원을 활용·투자하는 계획의 준비 기획과 실행이 필요

○ (발굴분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농촌'이라는 지역사회가 대상이므로 농촌을 '장(공간)'으로 하는 실행방안을 '재생, 혁신, 개발'로 구체화 검토 마련

○ (추진목표) 도시-농촌 간의 격차를 줄여 과소화·고령화된 지역사회에 지역주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준의 생활기반·삶의 질 여건을 만드는데 있음

○ (실행주체) 하향식(top-down) 방식의 정책개발과 계획수립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답습할 우려가 크므로, 상향식(bottom-up) 방식의 계획마련이 관건

② 고향사랑기부금

○ (활용방향) 농촌마을이나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곳에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지원 필요

○ (활용방식) 행정의 직접 수행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농촌 활성화 사업·활동을 담당하는 지원조직·실행주체를 통한 실행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

○ (모금방식) 기존의 포괄적 모금방식에 덧붙여 지역사회(지자체+지역주민)가 특정의 사회적 문제를 특정하여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개선 필요

○ (실행체계) 지역사회 주민조직이 고향사랑기부금의 재원을 활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행체계의 구축이 필요

□ **지방소멸 대응재원의 농업·농촌 활용 프로그램 제안**

(1) 농촌사회+지역만들기 실행기반의 구축

○ '생활의 잣대' 만들기 : 지역의 자긍심을 갖기 위해 지역사회를 학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도시-농촌의 일상적 교류로 긍지를 재건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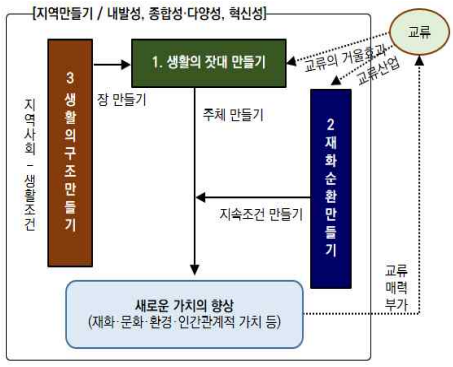
○ '생활의 구조' 만들기 : 삶의 질 기반의 사회서비스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여건을 고려, 지역+지역을 연결하는 커뮤니티+물적 조건을 만들어야 함

○ '경제적 순환' 만들기 : 농업·농촌 자원의 상품화와 융복합 산업화 전략을 통

〈농업·농촌 대응방향 구상의 기본전제〉



〈지역만들기를 위한 기본틀〉



해 지역사회의 작지만 순환하는 경제를 만들어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함

○ 농촌지역 만들기 위한 정책의 지원은 보조금(補助金)에서 교부금(交付金), 보조인(補助人), 새로운 공공(公共)으로 지원방식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함

(2) 농촌사회 생활돌봄의 체계 마련

○ 고령화·과소화된 농촌은 생활 필요하지만 충족되지 못하는 돌봄 등 사회적 수요가 많아, 생활돌봄 프로젝트를 통해 담당 주체를 결합하는 방식을 추진

○ 생활SOC 기반이 취약하고 고령화된 농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생생활에서 다양한 필요와 수요에 대응한 이른바 '생활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현실적 생활돌봄 서비스는 공동체 조직이 담당하면서 귀농·귀촌자 등과 같은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추진

(3)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역적 실행

○ 고령화 과소화가 심한 농촌지역 사회에 맞춰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실행을 확대하고 농촌사회에 맞는 추진전략을 특화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농촌지역 노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방문형 보건의료·건강·방문요양, 생활지원서비스 확충, 재가 자립생활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농촌지역 소지역 생활권(읍·면)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구축 준비 및 실행을 지원(돌봄조직 육성, 법인 설립 운영, 돌봄 제공 등)

(4) 농촌생활기술 활동역량, 향상 지원

○ 귀농·귀촌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어 농촌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제2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이주민 대상 생활기술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추진
○ 농촌지역 문화·환경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것은 농촌사회의 일상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과 도전에 필요한 기술인 '생활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음
○ 농업기반이 없는 청년의 역량 발휘를 위해 농업·문화·복지 등 다양한 활동과 연계 교육과정(프로그램)을 지역사회 공동체 사업조직이 개설·운영 지원

(5) 농촌학교와 농촌재생의 유지·연결

○ 인구감소 고령화 상황을 타개하는 '농촌재생'의 전략에서 중요한 과제가 바로 '농촌학교'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마을교육 공동체 추진
○ 농촌학교 유지하기 위한 이주민의 지원과 일정 수준의 교육의 질을 만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결합시켜 나감, 농촌학교는 정주(定住)의 필요조건
○ 중심이 되는 '학교'를 보완하는 주변이 되는 '마을'의 자원을 결합시키는 교육 활성화이자 농촌재생 전략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육성 전략을 지속 지원

(6) 농업의 6차산업화 다각화 역량의 혁신

○ 농업의 6차산업화 혁신전략은 ①가치창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혁신, ② 소비자 요구에 대응한 지역 내 수요창출 등이 실행전략으로 농업의 활로임
○ 농업의 6차산업화 다각화 실행역량은 사업주체에 따라 대응전략이 상이하므로 '개별 사업조직 통합형'과 '사업조직 간 연계형'으로 구분하여 대응
○ 다른 부문으로 유출되는 부가가치를 농업부문으로 되돌리는 '가치 되찾기'와 '지역 내 수요창출'을 핵심으로 하므로 지역 먹거리 전략 등과 결합 추진

(7) 농촌마을만들기의 혁신과 플러스 추진

○ 지역사회가 추진해온 마을만들기 정책은 행복 삶터 농촌만들기를 선도, 도시민 수요에 부응하여 농촌 신활력을 가져오는 혁신 프로젝트 추진이 요구
○ 지역사회 주요 자원인 '농촌마을'을 강화, 도시민이 농촌지역에서 실현하고 싶은 사회적 수요(버킷리스트)에 대응하는 '플러스(plus, +) 프로젝트' 추진
○ 농촌마을 플러스 프로젝트는 농촌주민 관점에서 도시민 수요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를 강화하는 것(농촌여행, 치유힐링, 문화예술 등)

(8) 먹거리 매개 공유부엌과 돌봄농장 운영

○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農)과 먹거리를 소비하는 식(食)의 물리적·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먹거리를 매개로 '도농상생 먹거리 연대' 프로그램 추진

○ 생산기반이 없는 도시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일정한 방식으로 보장하기 위해 농촌지역과 전략적인 제휴가 필요함을 강조하여 농촌재생 도모

○ 개인화·감염병 등이 일상화되면서 신체적·심리적 피로가 누적되면서 이를 해결할 물리적·사회적 공간으로 농업을 매개로 한 치유활동을 적극적 추진

(9) 농촌사회 청년활동 혁신거점의 조성

○ 단순 인구유입을 넘어 혁신활동 담당주체의 관계망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주목, 지식·기술·전문역량을 가진 '청년활동' 거점 구축과 프로그램을 운영

○ 농촌으로 이동은 비경제적 요인이 늘고 있어 귀농·귀촌인의 농촌사회 정착 경로를 고려 일정 활동공간을 거쳐 활동 인력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귀농·귀촌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이들이 기댈 수 있는 이른바 '비빌 언덕'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하고 혁신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

(10) 농촌 일자리·일거리 지원조직의 운영

○ 지역주민(사회)의 수요와 필요를 위해 농업·농촌의 여러 자원을 매개로 사업과 활동이 전개되면서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지원

○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와 일거리를 매개로 도시의 인력이 상시적으로 농촌사회와 결합하는 '농촌사회 일자리·일거리 지원체계'를 갖춰 운영

○ 농촌이 가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발굴과 정책대응을 위해 '시·군 농업·농촌일자리플러스센터'를 구성해 농촌 일자리를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차 례

제1장. 연구개요 ····· 1
1. 연구배경과 목적 ····· 3
2. 연구내용과 방법 ····· 5
3. 지방소멸 배경, 농촌문제 구조화 ····· 8

제2장. 지방소멸 대응재원 정책현황 ····· 15
1. 지방소멸대응기금, 주요현황 ····· 17
2. 고향사랑기부금, 주요현황 ····· 23
3. '대응재원' 정책실행, 개선과제 ····· 29

제3장. 지방소멸 대응재원 지역계획 진단 ····· 33
1.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 36
2. 고향사랑기부금, 추진현황 ····· 62

제4장. 지방소멸 농업·농촌 주요 대응사례 ····· 71
1. 오부세마치, 농업을 매개로 지역브랜드화 관리체계 구축 ····· 74
2. 카미야마쵸, 활동주체 중심의 관계인구 혁신 지역화 ····· 77
3. 포틀랜드, 지역활성화 관리모델의 혁신적 정립 ····· 79
4. 사카다시, 과소화마을 활동담당 인력 육성과 지원 ····· 85
5. 허즈웰, 지역 자산을 공동체 자원으로 활용 ····· 87
6. 마나츠루마치, 사람의 흐름을 만들어 활력을 이어가다 ····· 89
7. 도쿄 분쿄구, 보이지 않는 빈곤을 보이지 않게 지원하다 ····· 92
8. 일본 고향납세 주요 프로젝트 ····· 94
9. 지방소멸 대응재원 기획사례 ····· 127

제5장. 지방소멸 대응재원 농업·농촌 활용방향 ····· 131
1. 관련 사례분석 종합과 시사점 ····· 134
2. 농업·농촌에 주목하는 이유 ····· 137
3. 농업·농촌 대응의 기본전제 ····· 142
4. 농업·농촌 주요 프로그램 제안 ····· 147
(1) 농촌사회+지역만들기, 실행기반 ····· 147
(2) 농촌사회 생활돌봄의 체계 마련 ····· 150
(3)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지역적 실행 ····· 153
(4) 농촌생활기술 활동역량, 향상 지원 ····· 157
(5) 농촌학교와 농촌재생의 유지·연결 ····· 160
(6) 농업의 6차산업화 다각화 역량의 혁신 ····· 163
(7) 농촌마을만들기의 혁신과 플러스 추진 ····· 166
(8) 먹거리 매개 공유부엌과 돌봄농장 운영 ····· 169
(9) 농촌사회 청년활동 혁신거점의 조성 ····· 172
(10) 농촌 일자리·일거리 지원조직의 운영 ····· 175

부록. 농촌사회 주요 이슈 ····· 179

참고자료 ····· 202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과 방법
3. 농촌문제 구조화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 목적

○ ‘지방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가재정을 직접 지원하거나,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1]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2]’ 지원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기부금’ 조성 지원이 그것임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인구감소 시대에 지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대응한 ‘지방소멸 대응재원(財源)’으로서 성격을 가짐[3]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에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지원금을 결정하는 정책임
-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람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으

1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일부 개정(2022.12)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기초+광역)를 대상으로 재원을 분배하여 지원

3 ‘지방소멸’에 대응한 정부 정책이 ‘대응재원’ 방식으로 추진 중

로부터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임

○ 이 두 정책은 인구감소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대책·취약계층·지역활력'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목적의 정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중요한 재원(財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 왔음

○ 그러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중심으로 정책도입 목적인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재원이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 인구문제에 대응해 주거환경 개선 등에 사용하기보다 관광사업 시설 조성 등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등과 연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4]
- 정부도 이러한 문제인식을 갖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평가체계를 개선해 기금의 지원을 차등 배분 계획을 마련하였음

○ 무엇보다 지방소멸 위기의 배경은 대부분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농업을 매개'로 하는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원의 활용계획이 마련되지 못하고, 관행적 개발사업(숙원사업 등)에 투자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 고령화의 진전과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지역에 사람이 줄어들어 지역이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감은 '농촌지역'으로부터 현실화되고 있음
- 농촌지역은 도시화·산업화를 위한 국가 정책 기조에 자원이 동원되어 이른바 이촌향도(이촌향도)로 산업(농업)과 사회(생활)이 쇠퇴해 왔기 때문임

○ 이러한 이유로 '지방소멸' 위기의 원인은 농촌지역이 도시에 비한 '정주여건, 생활환경' 등에서 서비스와 인프라의 열악함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인에 따른 대책의 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

○ 이 연구는 이러한 정책추진의 배경을 토대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소멸 대응재원'으로 하여 농업·농촌에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는데 목적이 있음

○ 즉, 지방소멸 위기의 주요 배경이 되는 '농업·농촌 관점과 영역'에서 '대응

---

4 관련 기사로는 국민일보('21.12.9.), '지방 인구 소멸 막겠다더니…매년 1조 쏟아부어 인프라 개선?', 대구MBC('23.2.24),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구청장의 쌈짓돈?', 전라일보('23.4.23), '지방소멸대응기금 철저히 관리해야', 한국농어민신문('22.12.30), '고향사랑기부제 연착륙, 관계인구 형성이 열쇠' 등을 꼽을 수 있음

재원’의 ‘활용전략, 이용방안, 프로그램’ 등을 검토·제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연구내용과 방법

○ ‘지방소멸 대응재원’의 ‘농업·농촌 활용전략’에 관한 주요내용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이 연구는 크게 4가지로 연구내용을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지방소멸에 관련한 정부의 지원정책 현황과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연구 대상으로서 ‘지방소멸 대응재원’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함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에서 ‘지역쇠퇴’의 문제에 대응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책현황과 ‘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정책준비 및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둘째, 지방소멸 대응재원으로서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이 어떠한지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관한 동향을 정리하고자 함

- 전라북도와 시·군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을 어떻게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시행을 위해 혁신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사례를 검토하고자 함

○ 셋째, 농업·농촌과 관련하여 ‘지방소멸 대응재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외국(주로 일본)의 정책사례를 조사하여 지역사회의 대응전략 구상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

- 우리보다 앞서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 문제에 대응하여 대책을 추진한 일본이 지방소멸에 대응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원을 어떻게 구상하여 실행하고 있는지 주요한 사례를 조사하여 제시하고자 함[5]

---

5 주요하게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과소지역지속적발전지원특별조치법’에 따른 지자체(도도부현

○ 넷째, 지방소멸에 대응한 외국의 주요 대응대책 사례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에서 '지방소멸 대응재원'을 농업·농촌 분야에 활용해 나갈 대응전략을 제안하고자 함

- 정책진단과 사례분석 시사점을 토대로 농업·농촌 분야에서 지방소멸 대응재원의 활용 관점을 정립하고 대응방향을 제안하고자 함(기본전제 및 대응방향 등)
- 지방소멸 대응재원(지방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여 농업·농촌 분야에 대응할 전략별 프로그램 등을 구상하여 제시하고자 함(농촌사회와 지역만들기의 실행기반의 틀에서 검토)

표 1-1 주요 연구내용 (요약)

영역	주 요 내 용	방법
①정책현황 검토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정부 정책 주요내용 검토(지방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기부금)	자료검토
②대응계획 진단	지방소멸 '대응재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기부금' 설정, 전라북도 운영계획(도+시군) 검토	자료검토
③주요사례 조사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 문제 등에 대응한 외국(일본 중심)의 정책 프로그램 운용사례 조사	자료검토 출장조사
④대응전략 구상	지역사회에서 '지방소멸 대응재원'의 농업·농촌 분야 활용 대응전략 방향과 프로그램 제안	자료분석 자문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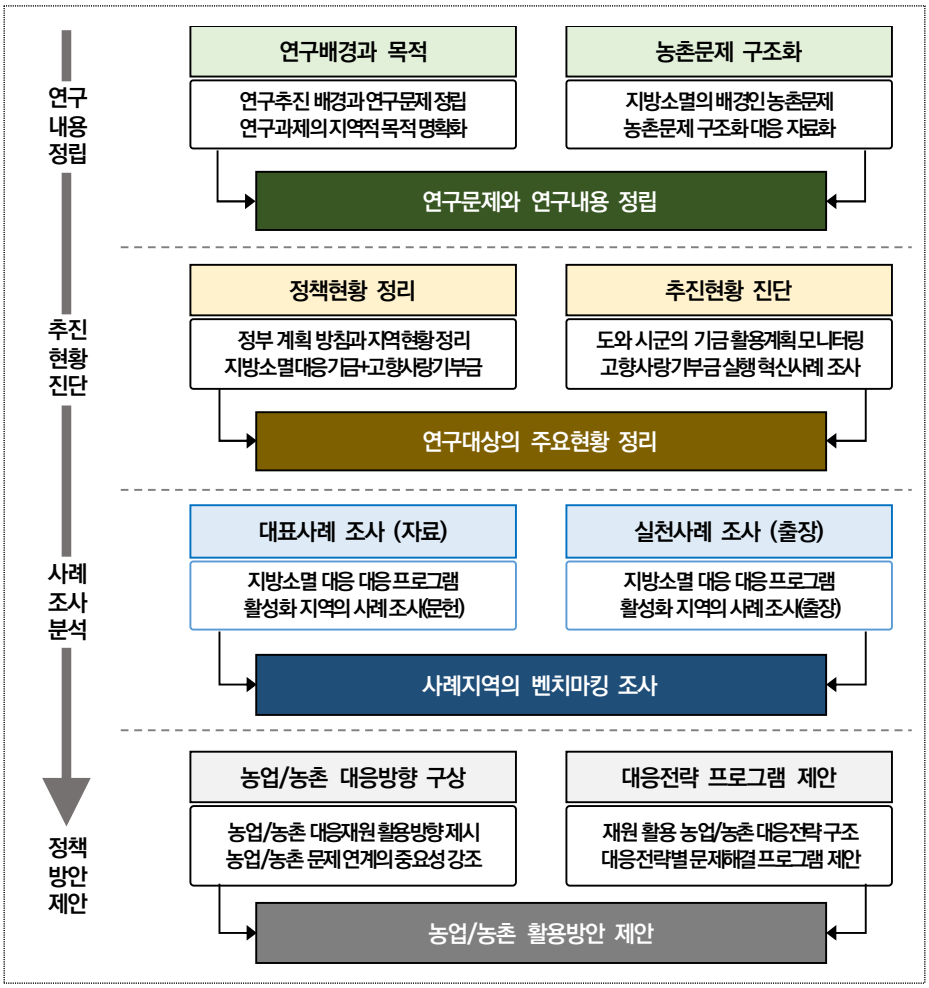
○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안)은 농업·농촌의 문제 구조화에 따라 현실성 있게 정책사업으로 실행해 나갈 내용을 검토·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 국내외 주요 정책사례 및 실천사례를 참고로 연구진이 수행한 농촌사회 문제해결 정책과제를 통해 제안한 프로그램을 현실성있게 수정·조정하였음
- 제안 프로그램 : '농촌사회 생활돌봄 체계 마련, 지역사회통합돌봄 실행 확대, 농촌생활기술 활동역량 향상 지원, 농촌학교+농촌재생 유지와 연결, 농업의 6차산업화+다각화 역량의 혁신, 농촌마을 만들기 혁신과 플러스, 지역

+시정촌) 차원의 정책추진 사례와 '고향납세 지정제도'에 따른 지자체별 기부금의 대응사업 프로젝트 주요 내용이 여기에 해당함

먹거리 매개 공유부엌+돌봄농장, 농촌사회 청년활동 혁신거점 +협업농장, 농촌 일자리·일거리 지원조직 운영, 도농융합상생 O2O 통합 플랫폼 구축 운영' 등임

그림 1-1 연구의 주요흐름



3. 지방소멸 배경, 농촌문제 구조화[6]

○ 이 연구는 '지방소멸'이라는 사회문제에 대응해 농촌사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이른바 '지방소멸 대응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음

○ 이를 위해 '지방소멸'의 배경이 되는 '농촌 지역사회' 현실이 어떠한지 이슈를 진단하고, '문제'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내용 마련의 자료로 삼고자 함

○ 지방소멸은 '인구감소'로 야기된 현상적 결과이므로 여기에서는 농촌지역의 '인구구조'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서 '삶의 질 수준'을 중심으로 진단하고자 함

○ 첫째, 농촌지역의 인구구조를 보면 국가적·사회적인 인구문제를 반영하고 있으면서, 도시지역에 비해 '미래세대'의 비중이 현격이 낮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음

○ 저출생(합계 출생율)과 고령화(초고령화)가 가져온 농촌지역 인구를 유소년과 고령자로 나누어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농촌지역에서 유소년 비율은 '00년 18.6%에서 '20년 10.8%로 7.8%나 낮아진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00년 14.7%에서 '20년 23.0%로 8.3%나 높아짐

○ 둘째, 국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 지역의 인구가 2010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실제 농촌지역인 면단위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이른바 '농촌지역(읍·면)'에 전체 인구의 18.8%인 971.8만명이 현상적으로 거주하지만, 실제 농촌지역인 면(面) 단위 지역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 인구 현실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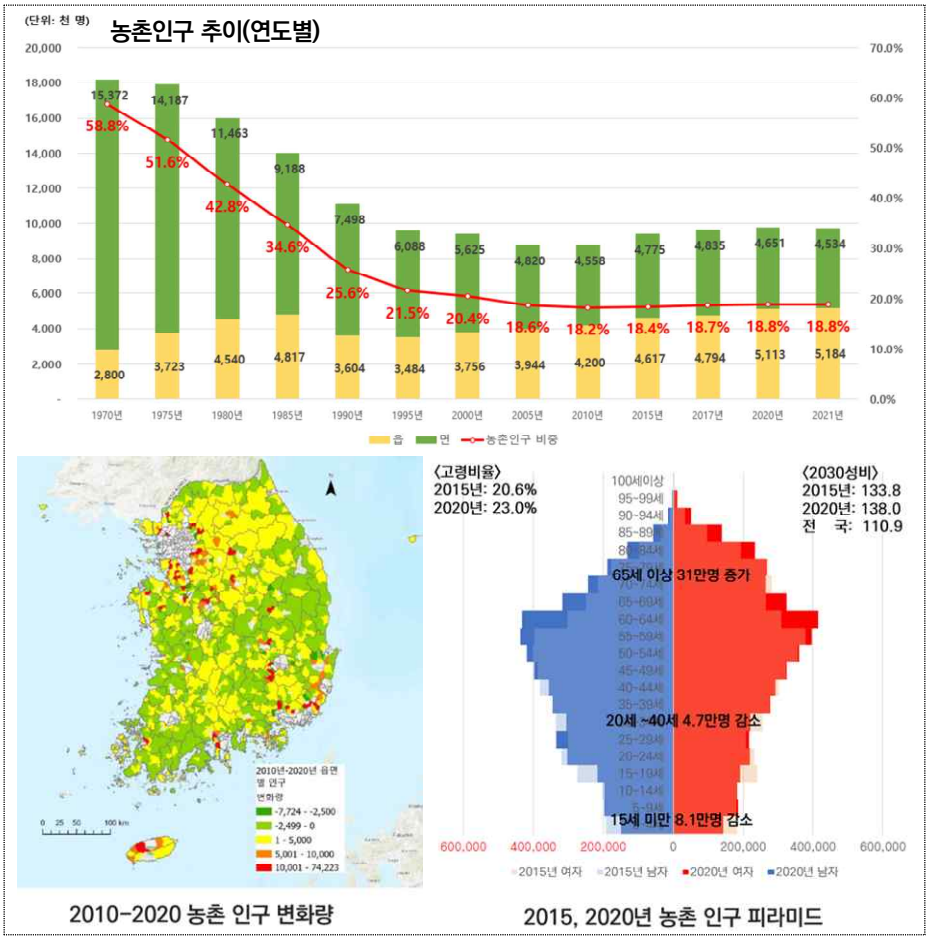
○ 특히 농촌지역에는 남성:여성의 비율이 '15년 133.8에서 '20년 138.0%로 높아졌는데, 이러한 의 성비(性比)는 전국 평균 110.9보다 훨씬 높은 수치임

---

6 농촌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이슈는 부록을 참고

○ 요컨대, 농촌지역의 인구구조는 '고령 인구의 증가, 젊은 인구의 감소, 성비 불균형 심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음으로 특징을 정리할 수 있음

그림 1-2 농촌지역 인구의 추이와 구조 검토



자료 : 송미령(2022), '도농상생을 위한 관계인구 현황과 확충방안',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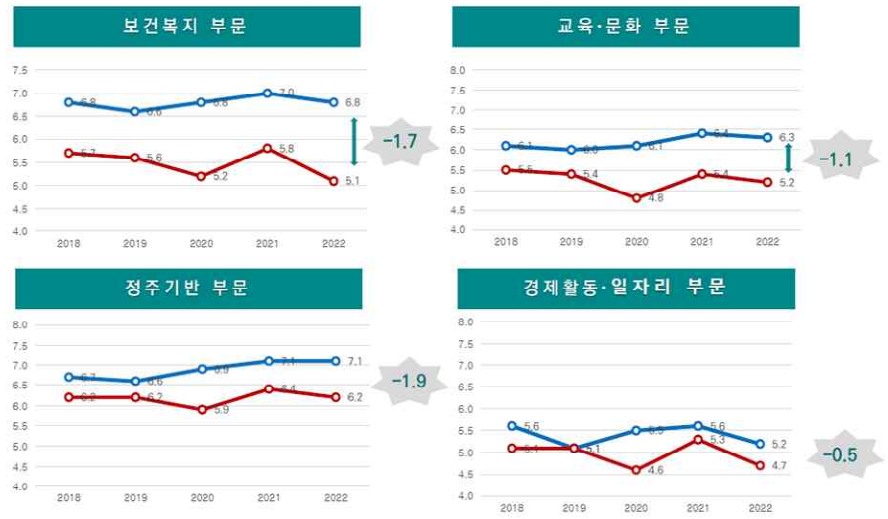
○ 셋째, 농촌지역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인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보면, 정주 환경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도시와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도시에 비한 농촌의 삶의 질 수준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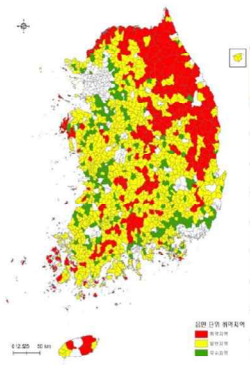
(-1.7p), 교육/문화 부문(-1.1p), 정주기반 부문(-1.9p), 경제활동/일자리 부문(-0.5p)로 격차가 있음

○ 특히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생활에 필요한 주요 필수 사회서비스의 접근성이 열악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이 문제가 되고 있음

그림 1-3 농촌-도시지역 삶의 질 수준 비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
조사 개요: 응답자 수_3,225명 (동 855 / 읍 1,071 / 면 1,299)으로 10점 만점(0점~10점)



농촌지역의 차별적인 공공서비스 접근성

주요 서비스 시설별 차량 접근성

서비스 시설	차량 소요 시간 (분)		
	읍부	면부	동부
의료기관 (병의원, 약국)	17.3	21.6	15.8
응급의료시설	21.5	26.6	15.4
노인복지 관련시설	20.5	20.5	17.9
평생교육시설 (성인교육)	24.2	24.4	21.9
도서관	14.4	20.6	15.6
미술관, 박물관 등 전시시설	32.5	28.8	24.7
생활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등	19.7	20.9	16.8
이미용, 세탁소, 목욕탕	14.0	17.6	13.8
음식점, 카페	15.3	17.6	17.5
소매점, 편의점	11.1	14.1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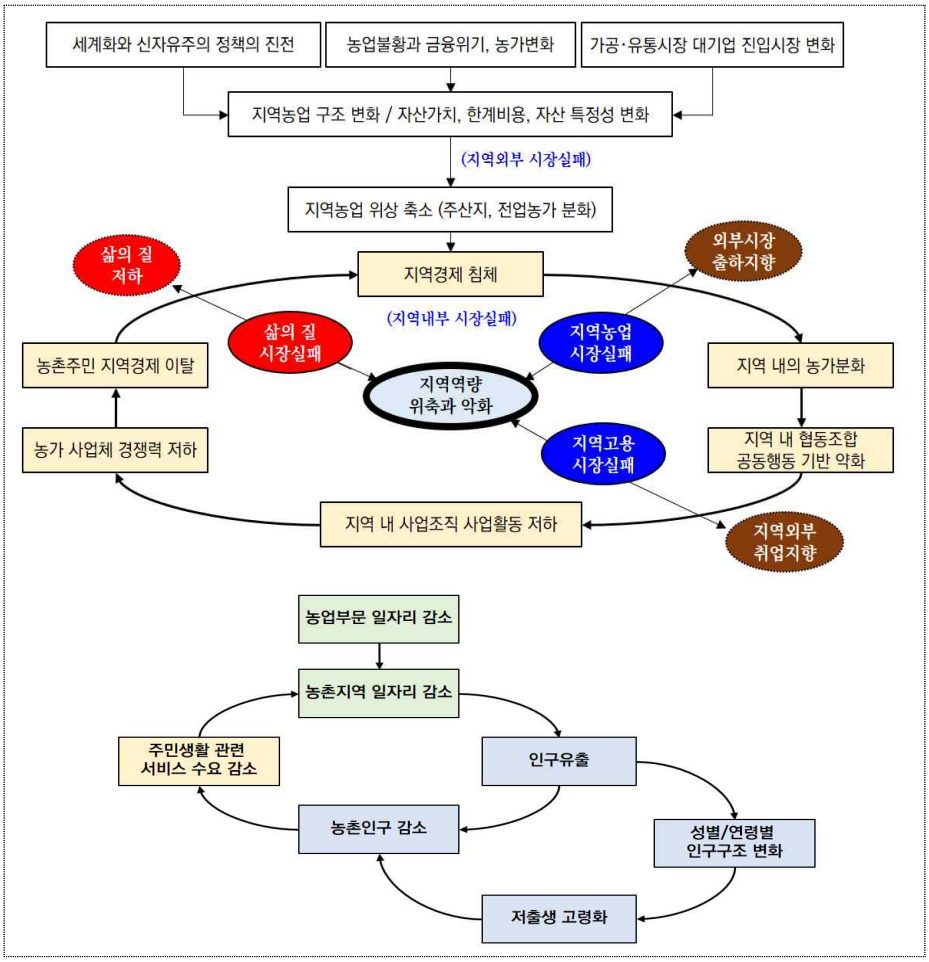
자료 : 송미령(2022), '도농상생을 위한 관계인구 현황과 확충방안',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 넷째, 농촌지역이 직면한 인구구조와 삶의 질 수준의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

에 걸쳐 사회적 위기로 현실화되고 있는데, ‘문제의 현실’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 고리에 머물고 있음

○ 농업생산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외부시장 출하지향을 갖자 ‘지역농업 시장’이 실패하였고, 농업을 매개로 한 ‘지역고용 시장’ 또한 작동하지 않자 지역 외부로 취업을 지향하게 되었음

그림 1-4 농촌지역 사회위기 문제와 악순환의 구조



자료 : 이인우·황영모(2015)(위), Hodge & Whirby(1981); 김정섭(2021)에서 재인용(아래)

○ 일자리가 없자 사람이 떠난 농촌지역에서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서비스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삶의 질 시장'이 실패하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 놓이게 된 것임

○ 다섯째, 우리나라의 농촌지역 사회문제는 사람이 살아갈 보편적 수준의 '삶의 질' 보장과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사회문제'라는 큰 틀 속에서 농촌지역의 문제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으며, 특히 분야별 실태를 통해 농촌지역의 현재를 진단해보고, 오늘날 농촌지역에서 나타나는 주요 이슈들을 무엇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매우 큼

○ 농촌지역의 사회문제 범위는 '취약계층, 생활·복지, 경제·노동, 주거·교통, 문화·여가, 건강·보건, 먹거리, 에너지' 등 매우 복합적인데, 지역개발 이슈에 밀려 생활수준의 보장은 후순위 과제가 되어온 것이 현실임[7]

○ 농촌지역의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과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음

표 1-2 농촌지역 사회문제 대별과 대응과제

구분	문제진단	대응과제
①	농촌지역 중 농업활동이 비교적 높은 지역은 해당 지역 인구 대비 취약계층 비율이 도시보다 높은 수준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비중 높아 복지 요구
②	농촌은 생활여건에서 주관적 만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지역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저조한 수준	생활여건 변화 체감할 정주기반시설, 교육, 문화 등 삶의 질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③	농촌에서 고령인구, 장애인, 지역 아동 등 취약계층 돌봄 및 복지서비스는 도시에 비해 여건이 낙후	복지수준 향상 위해 소득지원,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노후 취업지원 등 정책 지원 필요
④	농촌의 경제/일자리 만족도는 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 농촌 월평균 생활비는 약 182만원으로 추정	생활비 중 대부분을 식료품비로 지출, 소득 지원보다 먹거리 지원 등 서비스 지원이 필요
⑤	경제활동 여건으로 농촌 경제활동 인구가 도시보다 큰 차이, 노동의 성별 격차가 농촌사회에 만연	농촌 일자리 가치와 농촌여성/여성농업인 노동가치를 재정립하는 지원 프로그램 필요

7 이에 농촌진흥청의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농업전망(각년도)', 통계청의 '사회조사' 등 다양한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농촌문제를 진단하였는데, 그 결과는 부록을 참조

표 1-2 농촌지역 사회문제 대별과 대응과제

구분	문제진단	대응과제
⑥	농촌 주거여건 만족도는 도시보다 낮고, 난개발/저개발로 지역단위의 체계적인 공간계획이 필요	삶터·일터·쉼터로서 일자리, 주거, 산업, 사회서비스, 환경 등 포용하는 관점 넓힐 필요
⑦	교통여건에서 도시보다 농촌은 접근성의 저하, 주요 시설과 거리가 도시에 비해 상당시간이 소요	교통개선사업 인지도/이용도 낮아 수요자 맞춤 교통수단/환경 조성 수용도 제고 필요
⑧	문화·여가 프로그램 만족도 낮은 수준, 문화·여가 생활 여건은 변화가 없다고 체감하는 비중 높음	사회혁신 공동체 문화 장점과 결합, 혁신주체에게 정보/기술제공과 힐링공간으로 대응
⑨	건강에서 농촌은 만족도는 높으나, 정신건강은 고립감, 쓸쓸함, 답답함 등의 사회적 문제가 상존	정신질환 치유프로그램 확대, 치유농업 지원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더 추가될 필요
⑩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상대적 빈곤율 증가	먹거리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⑪	먹거리 손실/폐기는 지속가능한 환경 마련, 자원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검토를 요구	먹거리 손실/폐기를 재활용 처리하기 위해 재활용을 확대하고 자원화 시킬 방안 필요
⑫	'2050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으로 지속가능 재생에너지 활용 요구가 높은 현실	재생에너지를 위한 농촌마을 재원/시설지원을 위한 금융·제도적 장치가 마련 필요

자료 : 황영모 외(2022), '농촌형 사회문제해결 R&D 도입전략 수립 연구', 농촌진흥청에서 정리

제2장

지방소멸 대응재원 정책현황

1. 지방소멸대응기금
2. 고향사랑기부금
3. 정책실행 개선과제

제2장

지방소멸 대응재원 정책현황

1. 지방소멸대응기금, 주요현황

(1) 주요개요

○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확산됨에 따라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였음(’21.10.고시)

○ ‘인구감소지역’은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율, 재정 자립도’ 등 인구와 재정에 관련한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인구감소 지수를 기준으로 전국 89개 지역을 지정한 것임 (전국 시군구 229곳 중)[8]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이외에도 인구감소를 우려해야 하는 관심지역 18곳도 선정하여 발표했는데, 광역시 등 지역이 다수 포함됨[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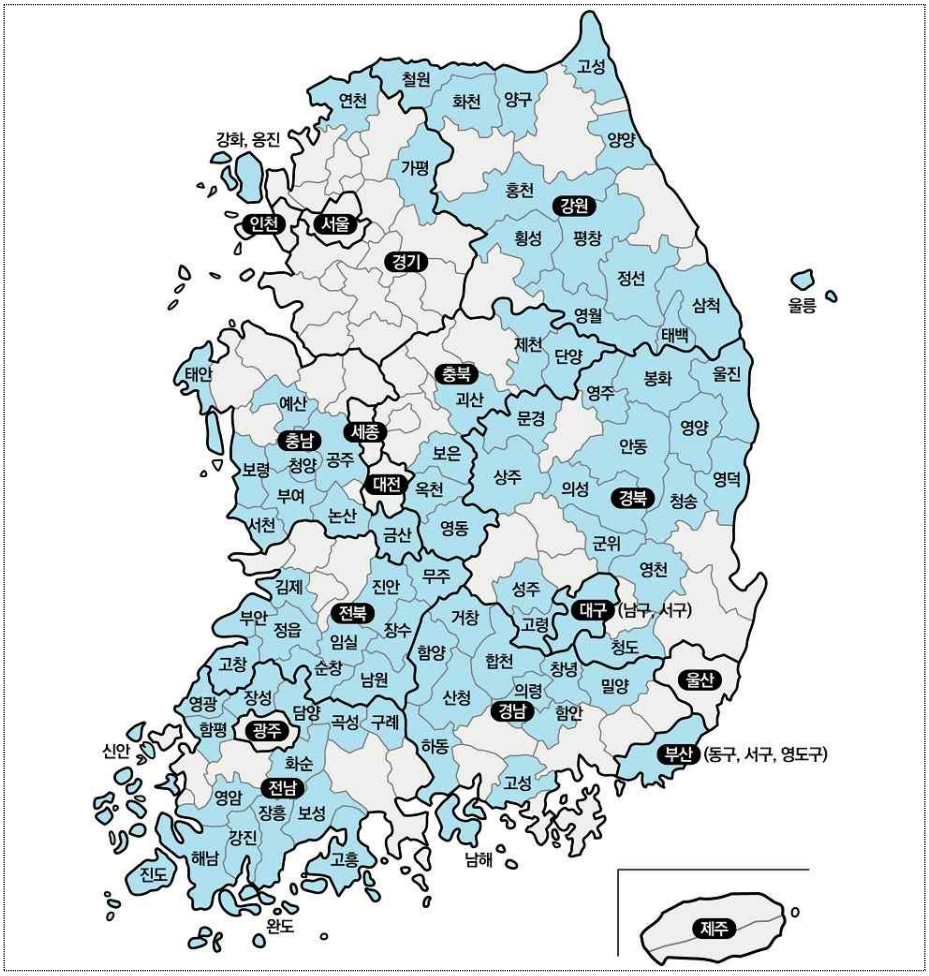
8 인구감소지역의 광역 시도별 현황을 보면, 부산시(3), 대전시(2), 인천시(2), 경기도(2), 강원도(12), 충북도(9), 전북도(10), 전남도(16), 경북도(16), 경남도(11) 등임

9 대전시(동구, 중구, 대덕구), 인천시(동구), 부산시(중구, 금정구), 광주시(동구), 경남도(통영시, 사천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경북도(경주시, 김천시), 전북도(익산시), 경기도(도두천시, 포천시)

○ 인구감소지역의 도내 현황을 보면 총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 11.2%를 차지함

○ 인구감소를 우려해야 하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는 도내에 1개 지역(익산시)이 지정되었는데, 인구감소 관심지역은 전국 18개 지역이 있음

그림 2-1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의 현황



자료 :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 이어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2022년 1월부터 도입·시행하였음

표 2-1 도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지정 현황

구분	시군
인구감소 지역 (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개소
인구감소 관심지역 (1개)	익산시 / 전국 인구감소 관심지역 전국 18개소

자료 : 행정안전부(2022.8.16.), '인구감소 위기 극복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분배' 보도자료에서 작성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정부 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하는데, 계정을 광역과 기초로 나누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에는 25%, 기초자치단체에는 75% 재원을 배분하는 구조임 ('22년 7,500억원)

- 근거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2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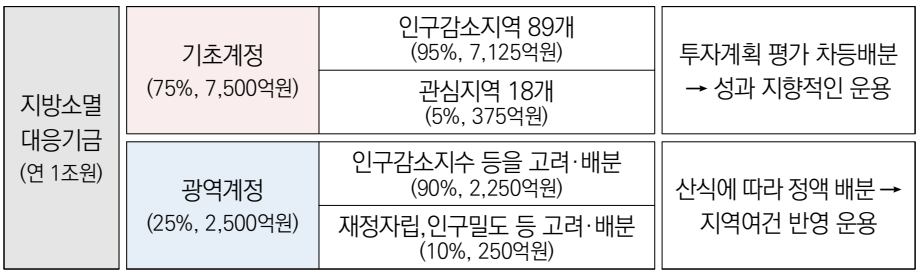
○ 한편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설치하였으며, 조합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는 구조임

- 지방자치단체 조합 : 기존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을 위해 17개 시·도로 구성

(2) 자원배분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간 1조원을 조성하는데, 기금은 '①기초계정, ②광역계정'으로 구분하여 집행하는 구조를 가짐

그림 2-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개요와 구조



자료 :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 기초계정은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광역계정은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와 재정자립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구조임

- 기초계정은 전체 기금의 75%, 광역계정은 25%를 차지함

○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기초지원계정' 주요내용

-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와 관심지역 18개 지자체 등 총 10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년간 7,500억원을 지원하는 계정임
- 인구감소지역(89곳)은 7,500억원의 95%(7,125억원)을, 관심지역(18곳)은 5%(375억원)을 배분함
- 행정안전부는 자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성과지향적 운용을 도모하겠다고 밝힘
-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는 지역별 여건 분석으로 투자계획을 작성·수립하여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평가단 평가 및 기금심의위원회 협의·자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조합 회의(조합 내 의결기구)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
- 투자계획 평가 : 지역별 지방소멸 '대응목표 부합성, 사업 타당성·효율성·실현가능성, 사업 간 연계성, 추진체계 구성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광역지원계정' 주요내용

-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광역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계정임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지수 등을 고려하여 광역계정 2,500억원의 90%(2,250억원)을 배분하고, 재정자립과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10%(250억원)을 산식에 따라 정액 배분함
- 광역계정을 배분받은 광역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운영하게 됨
-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 등으로 구성된 투자계획 제출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 조합회의(조합 내 의결기관)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

- 광역지원계정은 지원액을 A등급(210억원, 전체 5%), B등급(168억원, 전체 15%), C등급(140억원, 전체 45%), D등급(126억원, 전체 20%), E등급(112억원, 전체 15%) 등으로 차등 배분하고 있음

표 2-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분배규모

구 분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 관심지역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수 기준으로 지정/고시 지역(89개) ('21.10.19)		인구감소지수가 인구감소지역 다음으로 높은 지역(18개)	
배분규모	95%		5%	
	('22년) 5,344억원	('23년) 7,125억원	('22년) 281억원	('23년) 375억원
최대한도	('22년) 90억원	('23년) 120억원	('22년) 23억원	('23년) 30억원

자료 :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3) 투자계획

○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계획에 따라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107개 시·군·구(기초지원계정)와 광역 15개 시·도[10](광역지원계정) 등이 투자계획을 마련하였음

○ 2022년 7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기초계정 107곳+광역계정 15곳)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투자계획을 제출하였음

○ 지자체가 각기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투자계획은 '22년 투자계획 총 811건, '23년 투자계획 총 880건 규모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지자체가 제출한 기금 활용 투자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등 3개 분야가 사업건수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22년 기금사업 건수는 총 811건인데, 분야별로는 문화·관광(28%), 산업·일자리(23%), 주거(20%) 등의 순임

○ '23년 기금사업 건수는 총 880건인데, 문화·관광(26%), 산업·일자리

10 광역지원계정에는 광역시 중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제외되어 있음

(25%), 주거(22%) 등으로 나타남

표 2-3 지방소멸대응기금 년도별×분야별 사업건수

구분		문화 관광	산업 일자리	주거	교육	노인 의료	보육	교통	기타
사업 건수	‘22	226	190	167	84	47	43	24	30
	‘23	232	221	193	85	44	47	24	34

자료 : 행정안전부(2022.7.7.),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 보도자료
주 : (문화/관광) 산책로/캠핑장 개발, 예술/공연/여행 프로그램 등
(산업/일자리) 기업 유치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청년층 창업/취업 지원 등
(주거) 노후주택/빈집 리모델링, 골목재생사업 등
(교육) 교육 시설 건립, 청년 정착 맞춤형 교육 등
(노인/의료) 요양병원/건강센터 등 운영, 건강관리사업, 의료인력, 정주 환경개선 등
(보육) 육아나눔터/놀이터 카페 등 보육 시설 조성, 각종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교통) 교통약자 보행로 조성, 대중교통인프라 구축 등
(기타)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생활인구 확대 사업 등

표 2-4 지방소멸대응기금 년도별×지자체별 사업건수

구분		기초 지자체			광역 지자체 (15개)	총합 (122개)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소계 (107개)		
사업 건수	’22년	637	63	700	111	811
	’23년	691	66	757	123	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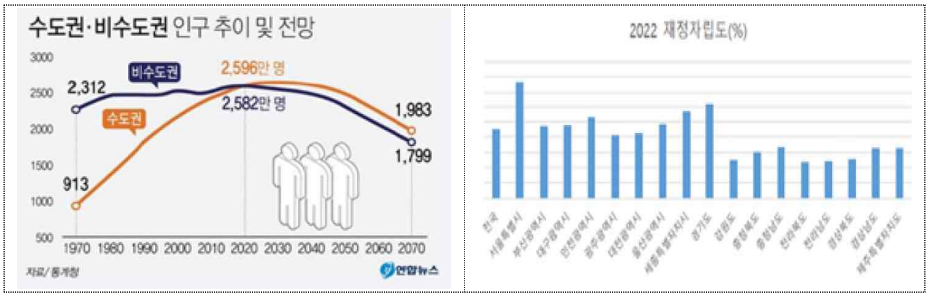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2022.7.7.),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 보도자료

2. 고향사랑기부금, 주요현황

(1) 기본개요

○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의 지역 외 유출[11]과 지자체의 재정 악화 악순환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정책임

그림 2-3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도입의 배경



자료 : 한병도(2023), ‘고향사랑기부제도 추진경과와 향후 과제;, 익산문화도시 시민토론회.

○ 국회와 정부(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21년 10월 제정하였고, ’23년 1월부터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12]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성립시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음

○ (추진목적)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기부주체) 지역에서 외지로 나온 출향민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개인으로 확대(법인은 불가),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의 혜택이 있음

---

11 20대를 살펴보면, 전북(-3.5%), 전남(-4.7%), 경남(-4.3%) 등 12개 시도에서 순유출되는 반면, 세종(+6.9%), 서울(+2.5%), 경기(+1.9%) 등 5개 시도는 순유입되고 있는 실정임

12 2009년 법안이 최초 발의되었고, 2016년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함. 2017년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2020년 법안이 재발의 되어 제정·시행되고 있음

○ (기부대상) 기부자의 고향에 한정하지 않고 기부자 거주지 이외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 (기부금액) 기부액은 연간 500만원(해당 지자체 합산)으로 하되 기부급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10만원 이하 100%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 (모금주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되, 광역+기초 모두 모금을 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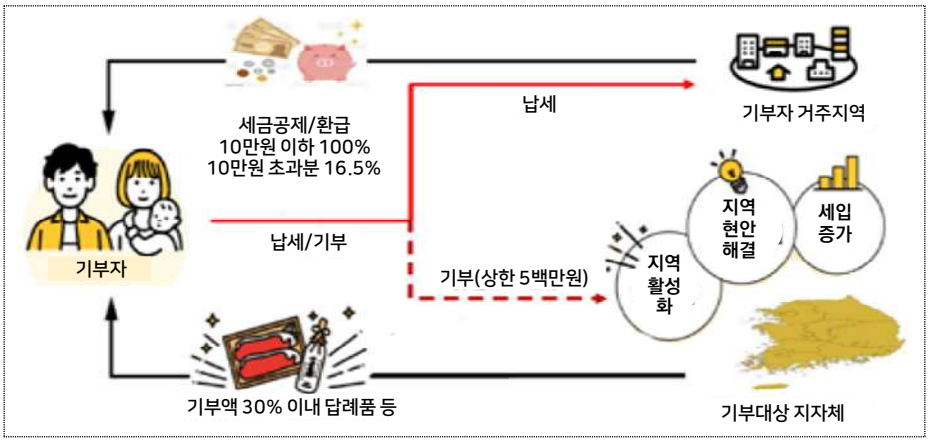
○ (모금대상) 모금주체(광역+기초)에 따라 기부금 모집의 대상이 약간 상이함

- (광역지자체) 광역 시·도 이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집
- (기초지자체) 같은 광역 시·도 내에 거주하더라도 해당 기초지자체에 거주하지 않으면 기부금 모집이 가능

○ (답례물품) 기부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를 위한 답례품을 기부액의 30% 한도에서 제공, 관할 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구역 통용 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품목 등이 가능

○ (모금홍보) 광고와 정보 통신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되, 개별 모금활동은 불가(호별방문, 개별전화, 서신송부, 동창회·향우회, 개인 SNS 등)

그림 2-4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작동방식



자료 : 신두섭(2022), '고향사랑기부제 정책목표와 활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재원사용과 기대효과

○ 고향사랑기부금 법률에 따라 조성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 대상을 정해 놓고 있음

○ 구체적으로 '4대 분야, 7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용용도) 4대 분야 : ①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②지역주밍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③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④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사용용도) 7대 영역 : ①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②청소년 육성·보호, ③문화·예술·관광 진흥, ④보건·의료 증진, ⑤시민참여·자원봉사 지원, ⑥공동체 활성화, ⑦주민복리 증진

그림 2-5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범위



자료 : 김동영 외(2022),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정립 및 발전방안', 전라북도.

○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등을 위해서는 법률과 조례에 의거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과 이에 따른 주민복지증진 사업의 추진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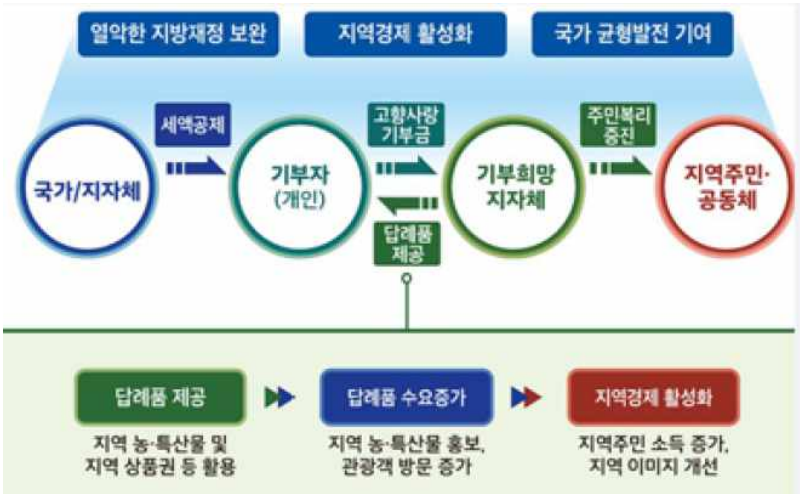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역 내 행정·민간·산업·학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하여 기금운영계획 수립, 모금·접수·홍보 등 제반사항 결정, 수립계획 추진, 결산보고서 작성, 운용성과 분석 등을 담당

○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과 답례품 제공, 조성된 재원의 활용 등을 통해 '거시효과, 지역적 효과, 주민적 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거시적 효과 : ①열악한 지방재정의 보완, ②지역경제의 활성화, ③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 지역적 효과 : ①답례품으로 지역농업 활성화, ②지역 농특산물 홍보, ③도시 관광객 방문 증가
- 주민적 효과 : ①주민복리 증진, ②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③기부자 편익

그림 2-6 고향사랑기부금의 작동에 따른 기대효과



자료 : 한병도(2023), '고향사랑기부제도 추진경과와 향후 과제:, 익산문화도시 시민토론회.

표 2-5 고향사랑기부금 법률의 구조

제1조(목적)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제2조(정의) (고향사랑기부금) 지자체가 해당 지자체 주민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으로 취득한 금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지자체가 광고·정보통신망·기타방법으로 해당 지자체에 고향

사랑기부금 제공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 권유, 요구하는 행위
제4조(모금주체·대상)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
제5조(기부제한) 타인 명의·가명으로 기부 불가, 업무·고용, 계약·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 권리·이익, 기타 관계 있는 자
제6조(강요금지) 업무·고용 기타 관계 이용해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 강요 금지, 공무원은 직원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 권유 · 독려 금지
제7조(모급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에서만 모금, 모금불가 방법(개별 전화·서신·전자매체, 호별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 참석·방문 기부 권유·독려)
제8조(접수·상한액) 지자체장 지정한 금융기관, 전자결제·신용카드·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기부자에게 지자체 장 명의 영수증 발급, 연 상한액 500만원
제9조(답례품) 시행령 정한 한도 초과 않는 범위 물품·경제적 이익 제공(지역 특산품 등 지자체 관할 생산·제조 물품, 해당 지자체 관할 통용될 상품권 등 유가증권), 답례품 제공 불가 품목(현금, 고가 귀금속·보석류, 외부 상품권 등 유가 증권)
제11조(기금설치) 기금 사용목적(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복리 증진 필요 사업 추진), 전년 기부액 15%내 운영비 사용
제12조(제도연구·지원) 주기적인 조사·분석·연구, 기부금 모금·접수·답례품 제공 등 업무 지원·정보제공을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제17조(벌칙) 6조 및 7조 위반자의 벌칙 규정

(3) 향후과제

○ 고향사랑기부금이 재원 조성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행과제의 엄격한 이행과 추가적인 정책적 준비가 제안되고 있음

○ 고향사랑기부금 운용·사용계획의 철저한 수립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실행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며 기부금의 목적 사업 개발이 중요

○ 지역 생산물 기반의 지역기업 육성과 지원

- 지역 답례품을 발굴하고 마케팅 또는 컨설팅을 통해서 생산자의 판로 확보 및 수익확대를 지원하는 지역기업 육성이 필요

○ 지역사회 문제 특화 크라우드 펀딩[13]의 도입

- 불특정 다수로부터 지자체가 주도하여 기부금을 모집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도입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회적 지지를 넓혀 나감

○ 고향사랑기부금 매개 관계인구 확대 노력

-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기부자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역소식 안내와 정보 제공 등으로 지역사회와 교류의 접점을 형성해 나가는 프로그램 필요

그림 2-7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준비사항



자료 : 신동철(2022), '고향사랑 기부제 실시, 지자체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경남연구원.

13 클라우드 펀딩은 특정 단위 사업에 대한 기부금을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모금하는 것으로 사회공헌 그 자체를 희망하는 기부자가 참여하여 답례품은 제공하지 않음. 지자체가 프로젝트의 시행주체 이므로 사회적 공신력과 신뢰도가 높아 많은 시민의 참여가 기대됨

3. ‘대응재원’ 정책실행, 개선과제

○ 앞서 살펴보면 ①지방소멸대응기금과 ②고향사랑기부금은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대응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사업·활동 등에 동원·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성격을 가짐

○ 이렇게 본다면 이 연구가 전제로 하는 두 사업은 지자체 또는 지역사회 입장에서 중요한 ‘지방소멸 대응재원’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이 요구된다 하겠음

○ 정책의 시행이 1년이 경과하였거나(지방소멸대응기금), 이제 시작된 여건(고향사랑기부금)을 고려할 때 실행진단이 빠른 점이 있지만, 현재까지 정책실행의 과정에서 제출된 과제를 중심으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자 함

(1) ‘지방소멸대응기금’ 과제

○ (목적의 의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지방소멸의 문제를 일정하게 해소하기 위한 것을 ‘직접적인 정책목적’으로 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국가로부터 지자체가 받는 재정 지원의 대부분이 보조금인 상황에서 사업계획을 전제로 하지만 지자체의 필요·수요를 바탕으로 실행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정책의 진단)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실행계획 평가 등을 통한 재정지원 방식은 행정 주도의 단기적인 성과에 지나친 비중을 두는 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치중하는 경향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14]

- 이러한 행정 주도의 실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은 하드웨어 또는 개발사업 중심으로 시행되거나, 탑다운 방식의 추진으로 인해 지역사회 문제의 진단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수립·실행 등에 문제가 있음

14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시군구 실행계획 컨설팅 참여 전문가 자문 결과

○ (계획의 수립)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사용처에 대해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실행계획 수립 등 기금 지원 계획 프로세스 상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음

-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금 사업을 설계하는 곳(행정부서 등)이 필요한 일을 사업으로 계획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임
-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프로젝트·프로그램으로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재정을 지원한다고 하니 기존 방식으로 사업을 기획하여 실행하는 형국'이라는 지적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이라는 한시적 운용기한을 두고 있으므로, 이 재원을 활용해 10년의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현재의 구조로는 어렵다는 점을 행정 관계자 및 활동가 등은 토로하고 있음

○ (실행의 평가) 기 제출한 '22년~'23년의 지자체별 실행계획은 단기간 수립하여 제출하여, 투자계획에 기존 사업을 참고해 유사사업을 만들어 내는 단편적 활용계획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큼

- 지자체의 신청사업은 문화·관광(산책로·캠핑장 개발, 예술·공연·여행 프로그램 등), 산업·일자리(기업유치 위한 클러스터 조성, 청년층 취창업 지원 등), 주거(노후주택 및 빈집 리모델링, 골목재생사업 등) 등 시설중심 사업 계획의 비중이 매우 큼
- 지역의 문제는 당사자인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참여할 때 해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주민참여 과정을 거치지 못함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성과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중장기 계획보다 단기적인 성과(보여주기식)가 있는 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큼
-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실행계획 등의 이러한 진단과 평가를 종합하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의 해소와 직접 관련 없는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2) '고향사랑기부금' 과제

○ (목적의 의미)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민의 지역(농어촌)에 대한 관심을 높여, '관계인구'를 확대하고 균형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음

-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정책의 진단) '고향사랑기부금'를 시행하는 첫해 이지만,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제도의 도입과 실행에 대해 행정과 민간 모두 낯설거나 정책도입의 취지에 맞는 실행계획 등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진단이 높음[15]

- 행정 중심의 획일화된 기부금의 접수와 홍보, 답례품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 모금된 재원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활용방안 부재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재원의 모금) 고향사랑기부금은 온라인 시스템 '고향사랑e음'과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통해서 모금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민간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운용 참여(지자체와 협력 또는 위탁 등)를 불허하고 있음

- '고향사랑e음'에는 기부 절차와 답례품 목록만이 제시되어 있고, 지역에서 기부금을 통해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한 내용이나 기부금의 구체적 사용처는 알 수 없음
- 지자체에서도 기부금을 관장하는 부서가 대부분 총무부서(세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기금을 다루고 집행하는 단순한 업무에 집중할 우려가 높음
- '고향사랑e음'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 등 총 6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답례품

15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첫해의 상황을 진단하는 연구로는 국승룡(2023), 최동철(2023), 신두섭(2023) 등을 꼽을 수 있음

을 만들기도 하였음

○ (계획의 준비) 조성한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사용하여 정책도입의 배경이 되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실행계획의 준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보다 훨씬 민간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 재원으로 '사용의 적기성, 효과의 확장성, 실행의 현장성' 등이 기대되는 재원임
- 고향사랑기부금 정책의 추진을 위해 법규 등에서 규정한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구성하여 실효적인 실행계획 등을 마련하는 장을 조속히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견줘 재원 규모가 미미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원의 모금, 계획의 마련, 계획의 실행을 현장에 기반한 중간지원조직·민간활동조직 등이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큼[16]

16 고향사랑기부금의 현실적 실행을 준비해온 완주군 관계자라 자문결과

제3장

지방소멸 대응재원 지역계획 진단

1.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2. 고향사랑기부금 추진현황

제3장

지방소멸 대응재원 지역계획 진단

○ 이 연구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소멸 대응재원 財源'으로 파악하고 정책도입·시행의 배경이 되는 농업·농촌의 문제에 주목하여 활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지하다시피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인구감소 사회인 한국사회가 직면한 과소화·고령화가 먼저 현실화되는 지역사회에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의 기반(재원)이 되는 정책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인구가 감소하여 이른바 '지역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저마다 지역에 사람을 불러들이거나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구상과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금의 조성, 기금의 사용 목적이 과소화된 지역사회에 사람을 늘리거나 관계망를 갖춰 활력을 되찾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음

○ 지역사회가 직면한 인구감소, 활력저하, 경기침체, 생활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해당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세부 사업계획·실시계획 등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 시행 중에 있음

○ 이 장에서는 개괄적으로 살펴본 '지방소멸 대응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이 어떻게 세워져 추진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광역(도)과 기초(시·군) 지자체도가 각각 '지방소멸대응기금 실행계획'을 어떻게 세웠으며,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느 수준에서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17]

1.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18]

(1) 전라북도

□ 주요사업과 우선순위

○ [1순위] 지역맞춤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22년 30%, '23년36%)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 건립 지원 : 공공 임대주택 간선시설 설치비 등 추가 지원
- 물 복지 사각지대 농어촌 상수도 정비 : 생활 밀착형 상수도 시설 확대를 통한 농촌지역 물 복지 확대
-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농어촌 하수도 정비 : 보편적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 시설 지원
- 섬마을 LPG 시설구축 지원 : 국고 보조사업에서 지원하지 않는 30~50세대 섬마을 안정적 연료공급 지원
- 농촌 과소화지역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 농촌지역의 취약한 생활서비스 지원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 [2순위]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22년 22%, '23년15%)

- 전북 행복 온(ON)마을 학교 지원 : 지역학교-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연계 학습을 통해 마을 교육 생태계 활성화
- 지역을 품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 육성 : 대학의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통한 중·고교 교육기회 제공
-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 배움터' 조성 : 노후화된 평생교육 공간 리모델링을

17 도와 시군의 계획을 평가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으므로(자료확보, 관계자 인터뷰 등) 여기서는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진단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함

18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와 시군의 사업계획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요약서를 중심으로 사업내용과 컨텐츠, 추진체계 등을 중점으로 계획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요약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여 시·군별 세부 실행사업의 예산 등의 합계가 맞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통한 맞춤형 교육공간 조성

- 가상현실 스포츠 마을오락관 : IT기술 활용 실내 체육시설 조성으로 스포츠 환경 조성
- 유아 숲 체험원 조성 : 유아-청소년을 위한 숲 체험원 조성

○ [3순위] 삼락농정 기반 농생명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창출 ('22년 17%, '23년 23%)

-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 우수 청년농 대상 지역정착을 위한 스마트팜 시설(온실+에너지시설+ICT) 패키지 지원 및 교육
- 지역 농산물 활성화를 위한 푸드플랜 시스템 구축 : 학교급식 등 지역 농산물 소비 및 생산 활성화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수도권 내 청년기업 지역 이전 지원 : 유망 청년창업 기업 도내 이전을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 농촌 희망 농촌 활동가 육성 지원 : 농촌 활동가 체류 및 현장 경험 지원으로 농촌 일자리 창출 및 공공 서비스 제공

○ [4순위] 도농 상생교류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 (22년 13%, 23년 7%)

- 도농융합 상생시대 대응, 생생마을 플러스 : 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민 상호작용 프로그램 운영
-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 주민 공동체 및 도농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 농촌 유휴시설 통합 플랫폼 농디 구축 : 빈집 및 유휴시설 정보 통합관리 및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
- 농촌 유휴시설 '리노베이션 스쿨 in 전북' : 유휴시설 활용 사업계획을 위한 기획단계부터 지원으로 유휴시설 체계적 활용 추진
- 어촌 유휴시설 활용 맞춤형 귀어 스테이 조성 : 어촌 마을 중심 귀어 희망자 체류공간 조성 및 어업활동 지원

○ [5순위] 특색있는 콘텐츠 여행체험으로 체류인구 유입 ('22년 18%, '23년 18%)

-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 천리길 및 생태 관광지 간 상호연계를 통한 생태힐링 관광 활성화
- 체류인구 확대를 위한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 : 리모트워크 도입에 따른 일

+휴식 병행 가능한 공간 조성을 통한 체류인구 확대

- 체류인구 증가를 위한 전북 야간관광 활성화 : 야간관광 자원 연계 및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한 숙박관광 활성화
- 펫코노미 시대 반려가족 동반 숙박시설 조성 : 반려가족 대상 맞춤형 숙소 조성을 통한 반려가족 관광 활성화
- 함께 인구 확대를 위한 사랑도민제도 활성화 : 도민제도 활성화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외국인 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제도 개선에 따른 계절근로자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 [투자예산]

- 2022년 : 총 277,349백만원 (기금활용 56,377백만원, 연계사업 220,972백만원)
- 2023년 : 총 350,951백만원 (기금활용 105,395백만원, 연계사업 245,556백만원)

□ 대응사업 추진체계

○ 성과분석

- 개별목표 및 공통목표 제시를 통한 사업별 추진목표와 인구감소 대응 목표 동시 관리
- 사업별, 평가지표 및 평가절차 관리를 통하여 사업 추진 상황 관리

○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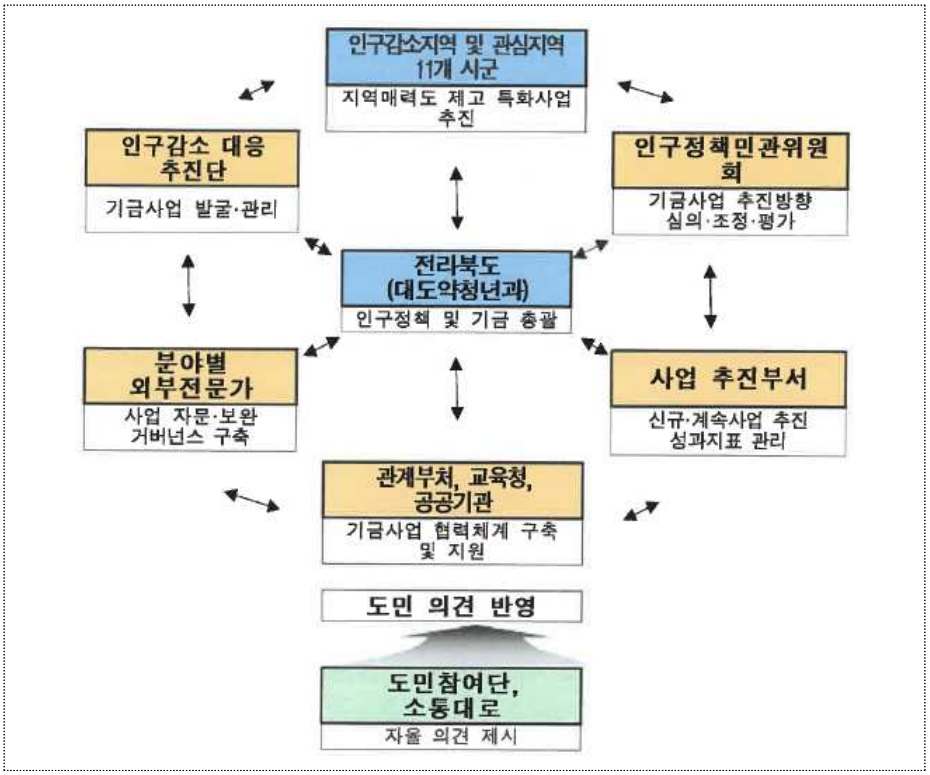
- 사업별 추진주체 간 역할분담 및 공동관리체계 구축, 투자계획의 연차별 성과 분석, 자체평가 실시, 차년도 투자계획 반영 추진

○ 추진체계

- 전담부서(대도약청년과)를 중심으로 도청 사업부서, 도내 관계기관, 관련 시·군 등과의 행정적 연계협력 체계를 구상함
- 대응기금의 원인이 되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별도의 '추진단'을 두고, 기금의 사업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설정함
- 인구문제와 사회문제 등을 고려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의견개진 창구(온라

인 플랫폼)를 개설·운영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 거버넌스 구조를 제시함

그림 3-1 전라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체계(안)



(2) 익산시[19]

□ 주요사업 우선순위

○ [추진전략] 5개 추진전략을 제시

- ① 청년, 益산으로 益며들다

19 익산시는 '인구감소 관심지역'

- ② ‘익산시민’의 안정적인 내집 마련 지원
- ③ 생활 속의 힐링 도시 프로젝트
- ④ 아이가 태어나면 ‘익산’이 키운다
- ⑤ 연어 프로젝트 <新중년 인생2모작, 新중년이 달린다>

○ [1순위] 위드로컬 패키지 익산시 다이로움 청년창업 지원사업 (‘22년, ‘23년)
- 익산형 스타트업 시제품(MVP[20]) 지원(①유형)
- 민관협력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사업-익산형 스타트업 지원(②유형)
- 익산형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③유형)

○ [2순위] 청년·신혼부부 익산형 주거 사다리 구축 (‘22년, ‘23년)
- [임대형]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 [자가형] 청년·신혼부부 내 집 마련(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

○ [3순위] 시니어 전문교육 및 전문직 종사자 인력양성사업 (‘23년)
- 시니어 시설 리모델링, 전문교육센터 건립
- 실버가드너(정원사),실버메디케어(복약관리사), 반려견 산책 도우미, 아이 돌봄 보조교사 등 양성

○ [투자예산]
- 2022년 : 총 41,897백만원 (기금활용 2,600백만원, 연계사업 39,297백만원)
- 2023년 : 총 83,117백만원 (기금활용 2,400백만원, 연계사업 80,717백만원)

□ 대응사업 추진체계

○ 성과분석
- 사업별 성과분석 방식 제시 (실적, 만족도 조사 등)

○ 사후관리
- 사업별 사후관리 방안 제시
- (1순위) 창업지원 전담인력 구성 관리 및 액셀러레이팅, 선순환 피드백 구조

---

20 MVP(Minimum Viable Product) : 완성 제품 출시 전 최소 실행 가능 시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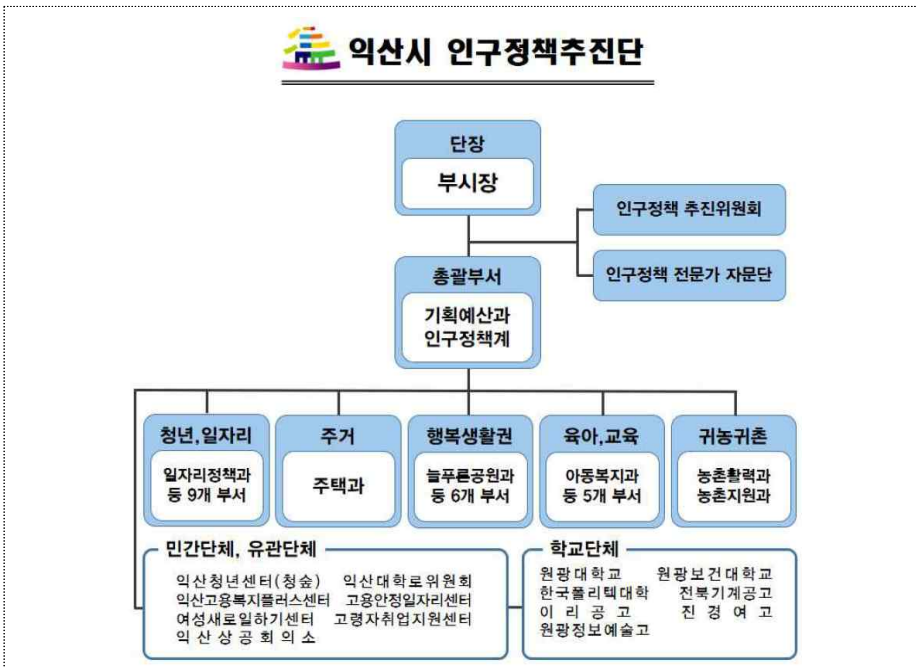
정립, 창업지원 유관기관 연계프로그램 발굴, 국가기관 창업지원 사업 연계

- (2순위) 사업별 성과 평가는 부서 자체적으로 매년 사업 정량목표 달성도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로 측정, 결과를 통해 향후 개선 및 보완사항을 다음해 사업 추진에 반영
- (3순위) 전문 교육센터가 완공 이후 관내 대학, 관련 지역 사회협의체와 운영위원회·MOU 등 인프라 확대, 시니어 전문교육 센터 운영·관리, 일자리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국비 신청 예정

○ 추진체계

- 시정 전체를 포괄하는 인구정책추진단을 구성하고 기금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별로 사업을 실행하고, 시정 전제로 총괄하는 구조로 계획됨
- 청년 등의 인구정책 관련 지역사회의 민간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연계를 가지면서, 추진위원회와 자문단 등 전문가 참여 거버넌스 기구를 운영함

그림 3-2 익산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체계(안)



(3) 정읍시

□ 사업순위+추진체계

○ [추진전략] 2대 추진전략과 2개 정책으로 추진

① 청년 지역정착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② 지역 활력을 위한 건강힐링 기반 구축

○ [1순위]

- 청년지역 정착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 정읍 평생학습관 신축,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22~'23)

○ [2순위]

- 지역 활력을 위한 건강힐링 기반 구축 :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 추가 사업('22)
- 청년일자리와 생활인구 확충을 위한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 정읍드림랜드 조성, 정읍시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23)

○ [투자예산]

- 2022년 : 총 46,765백만원 (기금활용 14,100백만원, 연계사업 32,665백만원)
- 2023년 : 총 69,710백만원 (기금활용 8,000백만원, 연계사업 61,710백만원)

□ 대응사업 추진체계

○ [성과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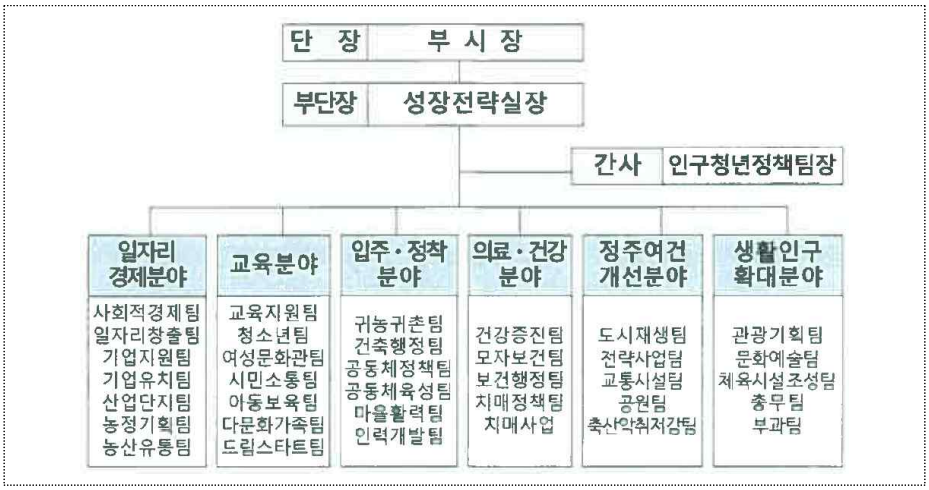
- 성과분석 : 평가(자체평가, 사전절차 이행 및 공정률 진행상황, 만족도 평가 등), 항목(예산 집행률, 사업 공정률, 사업 정량목표 등 설정·검토)
- 사후관리 : 주체(정읍시, 위탁기관 등), 방식(수요자 중심의 관리, 주변 자원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체계

- 기금 사업계획에 담고 있는 핵심영역의 사업부서가 참여하는 시정 전체 차원의 추진체계를 구성 운영 계획

- 기금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사업부서(팀)가 추진체계의 간사 역할을 맡음
- 지역주민, 관계기관, 민간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의 참여방안과 거버넌스형 추진체계는 아님

그림 3-3 정읍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체계(안)



(4) 남원시

□ 주요사업 우선순위

○ [추진전략] 생활거점과 관광거점 기능 강화로 추진전략 방향을 설정

① 지리산권 생활거점 기능 강화 : 남원 책임형 정주여건 개선, 남원 특화형 지역경제 활성화

② 지리산권 관광거점 기능 강화 : 남원 연계형 생활-문화-예술 복합관광도시 구축

○ [1순위]

- 지리산권 공공 산후조리원 : 건립, 산모 및 신생아 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역

및 사업 간 연계, 지리산권 거점 역할 수행 (‘23)

○ [2순위]

- ‘걷고 싶고~머물고 싶은’ 지리산권 관광휴양벨트 조성 : 남원관광단지↔광한루 일원 활성화, 혼불문학관↔서도역 연계 관광지 조성, 지리산권 스탬프 투어, 남원시 관광거점 연계 강화 사업 (‘22~’23)

○ [3순위]

- 지리산권 워케이션 둘다 빌리지 조성 : 일하기(원격근무), 놀고 휴식하기, 머물기(기존 숙박시설 활용) (‘22)

○ [4순위]

- 지리산권 인재양성 프로젝트(춘향골 인재학당) : 공립학원 건립, 운영, 구성, 지리산권 시군 협의 확대 운영 (‘22~’23)

○ [5순위]

- 지리산권 미꾸리 공유 양식 플랫폼 구축 : 토종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 조성, 양식기술 전문교육 및 컨설팅 지원, 남원추어탕
- 브랜드화 및 고급화 (‘22~’23)

○ [투자예산]

- 2022년 : 총 27,224백만원 (기금활용 6,000백만원, 연계사업 21,224백만원)
- 2023년 : 총 20,763백만원 (기금활용 8,000백만원, 연계사업 12,763백만원)

□ 대응사업 추진체계

○ 성과분석

- Plan-Do-Check-Action 시스템 운영을 통한 목표 달성 및 지속적 성과 개선 추진
- 계획-실행-분석-조치-확산·환류 체계 구성, 각 단계별 조직 체계와 연동한 지속적 성과 관리 및 성과 제고

○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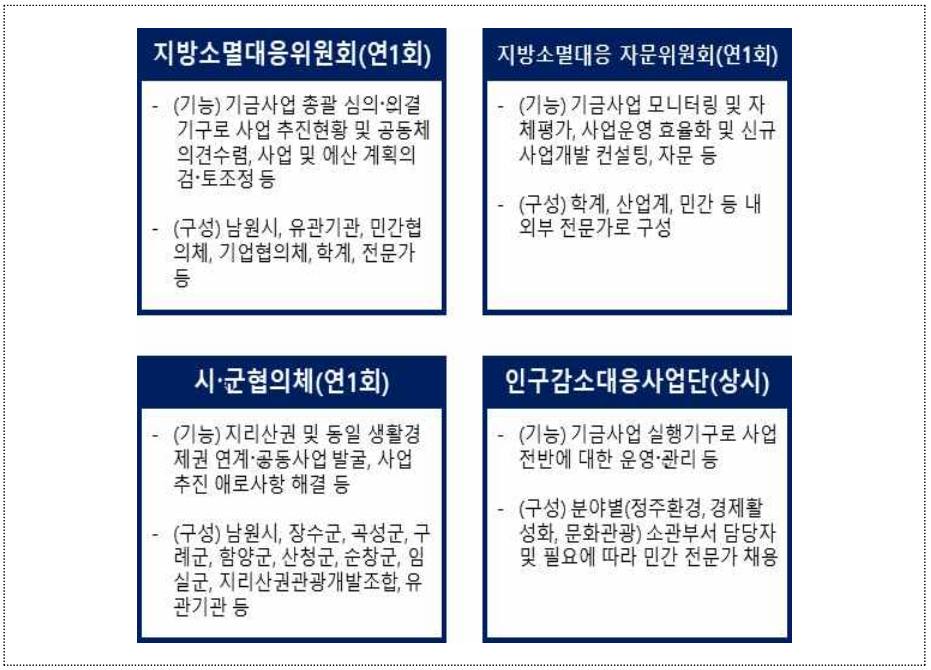
- 중장기 목적 달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후 관리 추진

- 하드웨어 사업의 기능 보존, 편의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후 지원 필요 분야 발굴

○ 추진체계

-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시정 차원의 추진체계 '단위'를 명시하여, 책임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
- 기금 사업을 담당하는 위원회(지방소멸대응위원회)와 행정조직(인구감소 대응사업단)을 구체적으로 명시
- 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설정하고, 특히 지리산권 연계 지자체(시·군)와의 협의체계까지 반영한 점이 특징

그림 3-4 남원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체계(안)



(5) 김제시

□ 주요사업 우선순위

○ [추진전략]

① 함께 돌보고 키우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

② 안정적 영농 정착 위한 ALL STEP 지원

③ 지평선 도시 브랜드화로 젊은 이미지 제고

○ [1순위]

- 대율 캠핑장 아동 어드벤처 조성(공간) : 가족 단위 휴양 공간을 저수지 근처에 조성, 문화기반 확충 ('22)
- 청년인재 유입 스마트팜농 육성 : 전라북도 청년창업 보육사업과 스마트팜 혁신밸리(김제시 백구) 교육생들이 수료 후 즉시 임대·영농을 시작하여 농업경영을 접목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시설을 갖춘 단지 구축 ('23)

○ [2순위]

- 청년인재 유입 스마트팜농 육성 : 전라북도 청년창업보육사업과 스마트팜 혁신밸리(김제시 백구) 교육생들이 수료 후 즉시 임대·영농을 시작하여 농업경영을 접목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시설을 갖춘 단지 구축 ('22)
- 영농정착 통합지원 드림農센터 구축 : 드림農센터 건립으로 기 선정 사업인 푸드플랜 패키지, 농산물 전처리 시설, 향토산업 육성산업 등을 총괄하는 원스톱 관리 시스템 구축 ('23)

○ [3순위]

- 숲&아이 생태놀이터 조성(공간) : 시내 거점지 노후화된 공원을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친화공간으로 재조성 ('22)
- 대율캠핑장 아동 어드벤처 조성(공간) : 가족단위 휴양공간을 저수지 근처에 조성, 문화기반 확충 ('23)

○ [4순위]

- 김제아이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 : 노후화된 시립 도서관을 아동친화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 (‘22)
- 김제 청년농 온오프라인 판로체계 구축 :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습교육으로 생산된 농산물 활용방안으로 생산물의 상품화 지원 및 판로를 마련하여 청년농 성공을 안전 보장할 수 있는 다각적 지원 생태계 조성 (‘23)

○ [5순위]

- 청년 공시생 유입을 위한 김제형 노량진 공시사관학교 운영 : 관내 취업 준비생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반 프로그램을 마련해 개인 역량을 강화해서 취업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할 신규 센터 건립 (‘22)
- 귀촌청년 둥지(게스트하우스) 조성 :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김제시를 단시간에 소개할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 형식의 공간 지원 (‘23)

○ [6순위]

-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프로그램) : 찾아가는 놀이터를 운영하여 자녀들의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전통놀이를 소개 전수하면서 기초체력 증진과 공동체 정신 함양 (‘22~’23)

○ [투자예산]

- 2022년 : 총 29,789백만원 (기금활용 6,000백만원, 연계사업 17,089백만원)
- 2023년 : 총 58,764백만원 (기금활용 8,000백만원, 연계사업 45,924백만원)

□ 대응사업 추진체계

○ [성과관리]

- 성과분석 : 사업 발굴팀 성과 자체평가 후 인구정책추진단 취합 분석
- 사후관리 : 분기별 성과와 연간 성과는 개별사업별로 관리체계 설계

○ [추진체계]

- 김제시 지방소멸대응 인구정책추진단 구성으로 기금 사업 추진체계 설정

(6) 진안군

□ 주요사업 우선순위

○ [추진전략]

① 지속가능한 희망일터 함께 가꾸고 : 고령화·농업인구 감소 대응 마을단위 농지 규모화 및 생활농업의 경영체 육성 도모

② 진안고원만의 매력창출로 생활인구 늘리고 : 지역자원을 활용한 숙박단지, 체험관광지 등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

③ 지역 꿈나무 미래 인재 키우고 : 원어민 화상 영어 서비스, 주말 청소년 스포츠 등 교육여건 개선과 생애주기 평생학습 환경조성

④ 진안고원 혁신마을 주거행복 채우고 : 빈집과 같은 기존 주거자원을 활용 주거 인프라 조성을 통해 유입인구 주거환경 개선

○ [1순위]

-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 : 농업경영체 육성, 마을 조직화, 비가림 시설 하우스 조성, 소규모 상품화 시설 조성, 전문가 컨설팅, 농업법인 육성 및 운영 ('22~'23)

○ [2순위]

- 다시 찾고 머무는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 진안살아보기 체험관광 활성화 ('22~'23)

○ [3순위]

-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인프라 구축 : 평생학습관 건립, 전 세대 학습공간 모두 배움터 조성 ('22~'23)
- 진안고원 영어 인재스쿨 운영, 청소년 주말 스포츠 데이 운영 ('23)

○ [4순위]

- 청년 행복 주거 플랫폼 구축: 빈집 리폼을 통한 주거 플랫폼 구축, 면장(面長) 관사활용 귀농·귀촌 스테이 하우스 조성 ('22~'23)

○ [투자예산]

- 2022년 : 총 7,735백만원 (기금활용 6,000백만원, 연계사업 1,735백만원)
- 2023년 : 총 13,510백만원 (기금활용 8,000백만원, 연계사업 14,476백만원)

□ 대응사업 추진체계

○ 성과분석

- 주민참여 + 분야별 전문가 집단이 점검
- 사업 추진과정 문제점 사전점검, 환류기능을 강화하는 주민주도형 성과관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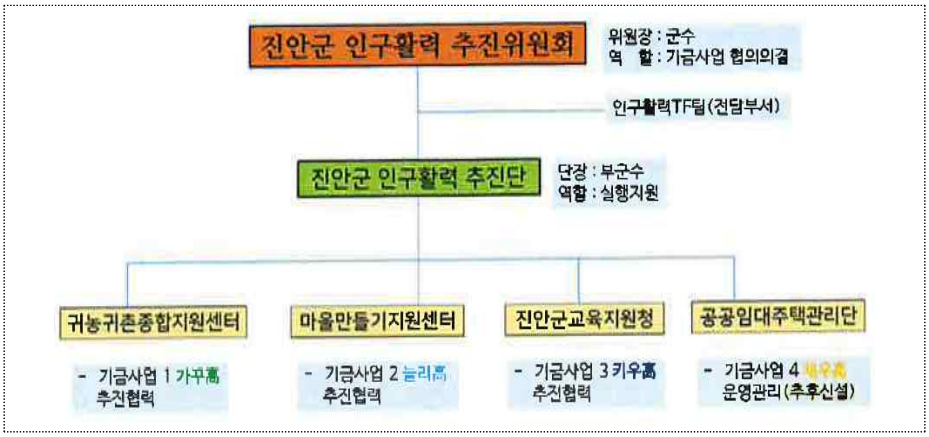
○ 사후관리

- 기금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마이 모니터링단' 운영

○ 추진체계

- 군정 전체를 포괄하는 추진체계(인구활력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 사업 전체를 관리하는 단위로 설정
- 행정적 실무는 추진단을 두어 책임성을 높이고, 기금 사업과 관계한 지역의 중간지원조직 및 교육기관·주택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갖춤

그림 3-5 진안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체계(안)



(7) 무주군

□ 주요사업 우선순위

○ [추진전략] 3대 추진전략을 설정

① SMART 생태계 조성

② 관광 생태계 재창조

③ 농촌 의료·복지·에너지 개선

○ [1순위]

-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 실습장 조성 : 고랭지 스마트시설 특성화를 위한 농업기술센터 테스트베드 시설 연계 연구시설 구축, 고랭지 연동형 스마트 시설 재배 실증포 및 실습장 조성, 2기작 작목 실습장 조성, 4계절 생산 모델 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22~'23)

○ [2순위]

- 무주군립 요양병원 건립 운영 : 군립 요양병원 건립, 운영 ('22~'23)

○ [3순위] ('22년 0백만원, '23년 1,000백만원)

- 무주군 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 무주군 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센터 건립, 무주군 장애인 통합돌봄 운영 ('23)

○ [4순위]

- 반딧불 미디어 아트 영상관 및 축제 전시관 조성 : 미디어 아트 영상관 조성, 영상 콘텐츠 제작, 축제 전시관 조성 ('22~'23)

○ [5순위]

- 무주군 청년센터 조성 : 무주 청년센터 조성, 청년창업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무주군 청년센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 ('22~'23)

○ [6순위]

- 무풍면-안성면 고랭지 스마트팜 연계 교통 인프라 개선 : 도로 선형개선 (L=2.35km) ('23)

○ [투자예산]

- 2022년 : 총 20,480백만원 (기금활용 10,936백만원, 연계사업 9,544백만원)
- 2023년 : 총 51,327백만원 (기금활용 15,042백만원, 연계사업 35,285백만원)

□ 대응사업 추진체계

○ 성과분석

- 사업의 진행과정 평가(목표대비 실적(달성도))
- 그 결과를 환류하여 투자사업의 계획적 관리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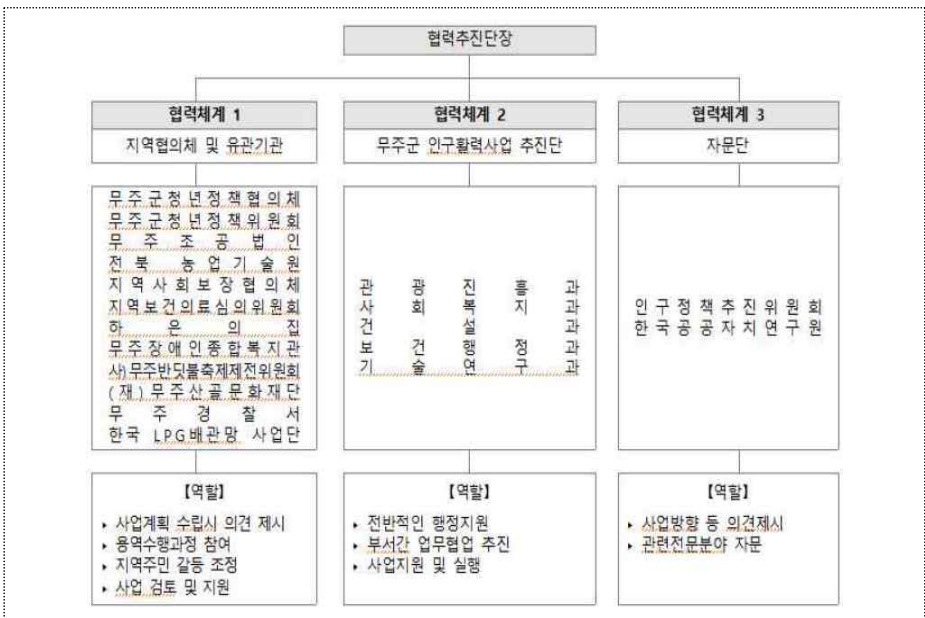
○ 사후관리

-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조례에 의해 무주군과 해당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체계 구축

○ 추진체계

- 기금 사업과 관계한 추진체계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
- (1유형) 지역협의체·유관기관, (2유형) 행정부서, (3유형) 전문가 자문단

그림 3-6 무주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체계(안)



(8) 장수군

□ 주요사업 우선순위

○ [추진전략] 인구+교류+소득 정책을 설정하되, 핵심사업은 2개로 압축

① 인구증가유지 전략

② 교류인구 증가 전략

③ 주민소득 증가 전략

○ [1순위]

-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22~'23)

○ [2순위]

- 장수형 꿀벌 6차산업단지 조성 ('22~'23)

○ [투자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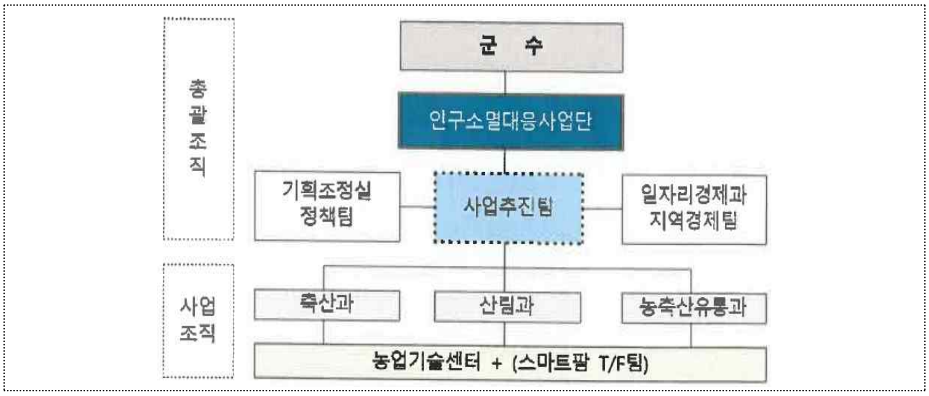
- 2022년 : 총 17,458백만원 (기금활용 7,000백만원, 연계사업 10,458백만원)
- 2023년 : 총 36,935백만원 (기금활용 16,400백만원, 연계사업 20,535백만원)

□ 대응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

- 기금 사업 전담 사업단을 구성하고, 해당 사업부서가 참여하여 사업의 기

그림 3-7 장수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체계(안)



획·진행 등을 총괄하는 구조를 설정

- 민간조직, 주민참여, 전문가 등의 참여구조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음

⑼ 임실군

□ 주요사업 우선순위

○ [추진전략]

① 살기 좋은 힐링 임실

② 머물고 싶은 힐링 임실

③ 눈이 즐거운 힐링 임실

○ [1순위]

- 임실문예담터 건립 : 문화예술 공간 신축(가칭-임실문예담터) ('22)
- 관촌 공공임대 주택 건립 사업 : 주택사업 추진 공기업과 협약하여 공공임대 주택 공급 ('23)

○ [2순위]

- 옥정'牛' 푸드 플레이스 조성 : 건물 신축(3동), 휴게·편의·부대시설, 기반시설(상·하수도, 조경 등), 주차장 설치 등 ('22)
- 오수 공공임대 주택 건립 사업 : 전북개발공사 대상지구 주거 수요예측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건립 계획 ('23)

○ [3순위]

- 임실 전통시장 청년 맛잇길 특화거리 조성 : 임실시장 청장년층 특화거리 점포 조성 ('22)
- 옥정'牛'푸드 플레이스 조성 : 건물 신축(3동), 휴게·편의·부대시설, 기반시설(상·하수도, 조경 등), 주차장 설치 등 ('23)

○ [4순위]

-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23)

○ [5순위]

- 임실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 임실시장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23)

○ [투자예산]

- 2022년 : 총 32,674백만원 (기금활용 7,510백만원, 연계사업 25,164백만원)
- 2023년 : 총 24,225백만원 (기금활용 14,180백만원, 연계사업 10,045백만원)

□ 대응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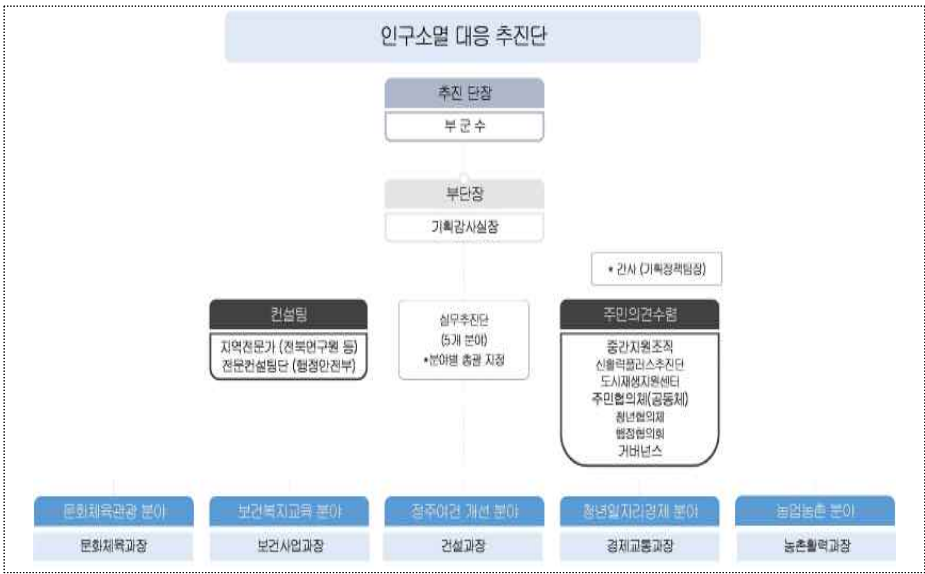
○ 성과분석

- 분기별 자체평가(인구정책 실무추진단) → 자체평가결과 공유 및 피드백 시행(인구소멸 대응 추진단)

○ 사후관리

- (총괄부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성과 분석 및 장기적 인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부서) 인구소멸대응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금사업완료 후 지속적인 성과 점검 및 사후관리

그림 3-8 임실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체계(안)



○ 추진체계

- 기금사업 전담 추진단을 구성하고 행정부서의 실무추진단, 주민참여 공간 마련, 분야별 사업추진 단위 등을 마련하여 추진
- 전문가와 전문기관 참여 상시 정책 컨설팅 체계 갖춰 전문성 제고에도 노력

(10) 순창군

□ 주요사업 우선순위

○ [추진전략]

① 청년들의 원활한 지역 탐색 지원

② 청년들의 탄탄한 지역 정착 지원

③ 청년들의 행복한 지역 살이 지원

○ [1순위]

- 순창형 청년허브 구축 : 청년이음공간(가칭-청년청) 조성,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22~'23)

○ [2순위]

- 맞춤형 청년 일자리 확대 : 지역특화 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사회서비스형 청년 일자리 창출 ('22~'23)

○ [3순위]

- 맞춤형 청년 주거공간 확대 : 교육 연계형 청년 가족 임대주택 조성, 기업 연계 청년 근로자 기숙사 조성, 빈집 활용 청년형 단기 주거시설 조성 ('22~'23)

○ [4순위]

- 청년가족 생애주기서비스 고도화 : 출산·육아 해피니스 센터 운영, 순창형 아이돌봄센터 확대,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지역 인재숙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신중년 행복 캠퍼스 운영 ('22~'23)

○ [5순위]

- 맞춤형 청년창업 활성화 기반 구축 : 공간연계 청년창업 지원 확대, 전통시장연계 청년창업 친화공간 확충, 청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쉴랜드 워케이션 공간 조성, 유기농 창업인프라 구축 ('22~'23)

○ [6순위]

- 청년가족 지역탐색 기반 확충 : 발효 미생물 연계 클라인가르텐 발효농장 조성, 섬진강 연계 치유문화체험 기반 확충, 서부권 역사 문화체험 연계 도농교류기반 확대 ('22~'23)

○ [투자예산]

- 2022년 : 총 35,807백만원 (기금활용 13,110백만원, 연계사업 22,697백만원)
- 2023년 : 총 38,850백만원 (기금활용 12,984백만원, 연계사업 25,866백만원)

□ 대응사업 추진체계

○ 성과분석

- 방법 : 직접조사 : 주민 설문조사, 사업별 행정자료 등
- 절차 : (분기별) 자체평가(사업부서) 및 점검(실무추진단 회의) → (반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환류(기획추진단 회의) → 총괄평가 및 차후 기금투자계획 수립 반영(전담부서)

○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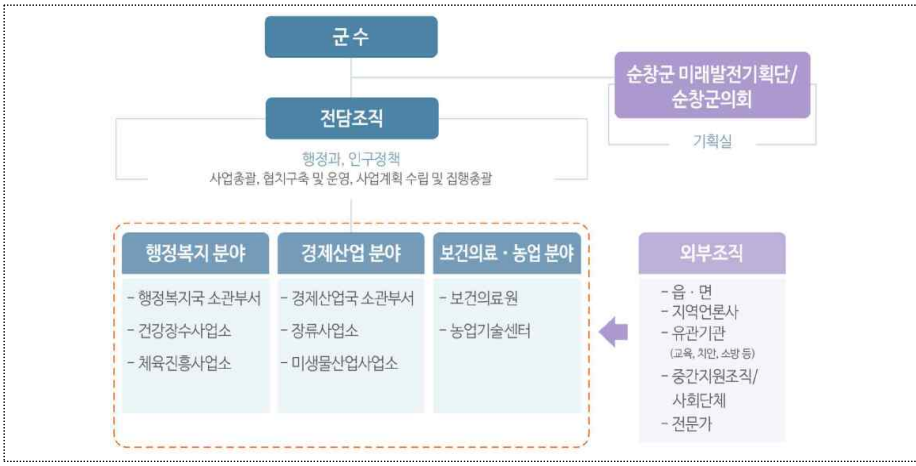
- (자체예산 확보 등 소관부서 책임관리로 지속가능성 제고) 기금사업 추진부서 사후관리 책임 부여 및 총괄(전담)부서 전반적인 관리상황 점검 및 유도
- (연관사업 추진 시너지 제고) 기금사업 기반으로 연관 공모사업 등 민관이 함께할 사업을 추가 발굴 및 추진하여 시너지 제고
- (기록·홍보 통한 다양한 주체 참여 유도)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기록 및 착수, 진행, 완료시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 증대 및 참여 유도

○ 추진체계

- 지역사회 인구정책과 기금사업을 담당하는 전단조직을 설정하여 계획수립과 실행을 총괄하는 구조 설정

- 기금사업의 영역별 담당부서를 정하고 관련항 외부 조직(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연계를 갖춤

그림 3-9 순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체계(안)



(11) 고창군

□ 주요사업 우선순위

○ [추진전략]

① [청년 활력] 청년 창업농 스마트팜 조성,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② [청소년의 꿈]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 [1순위]

- 청년 창업농 스마트팜 단지조성·지원사업 : 청년 창업농 대상으로 스마트팜 5천평 조성하여 1인당 500평 5년간 총 10세대 무상임대 ('22~'23)

○ [2순위])

- 신혼부부 및 청년 창업농 보금자리 조성사업 : 덕산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80세대 다세대 주택 및 업무시설, 공원 등 정주여건 조성 ('22~'23)

○ [3순위]

-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사업 : 서남부권 중위거점인 무장면에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 ('22~'23)

○ [투자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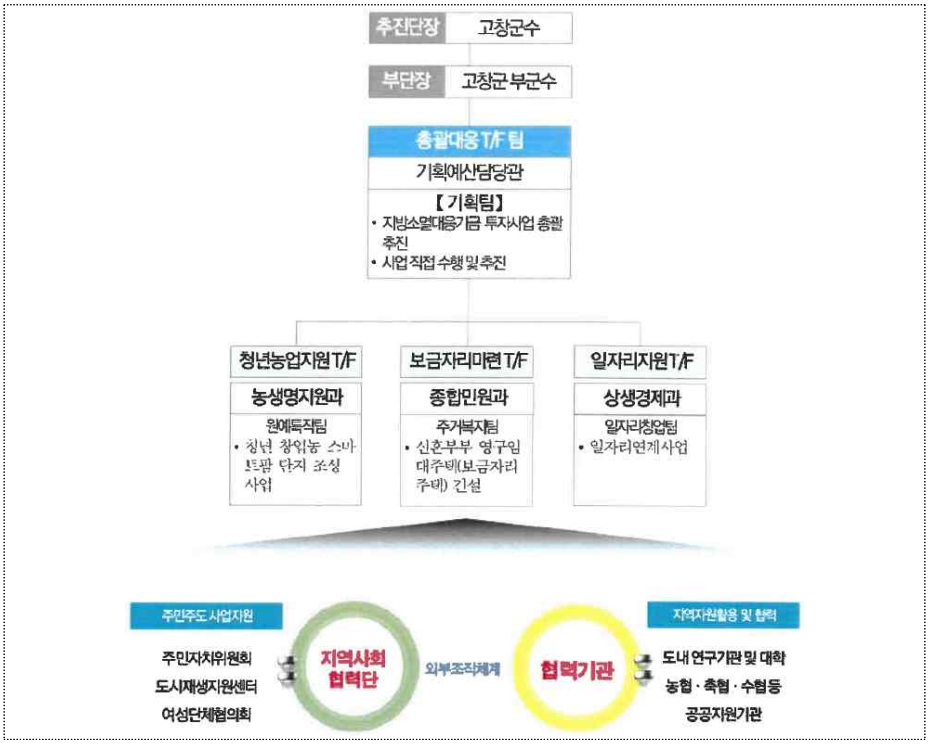
- 2022년 : 총 15,135백만원 (기금활용 6,000백만원, 연계사업 9,135백만원)
- 2023년 : 총 18,175백만원 (기금활용 8,000백만원, 연계사업 10,175백만원)

□ 대응사업 추진체계

○ 성과분석

- 방법 : 분기별 성과목표 추진상황 점검
- 절차 : 분기별 자체평가(실무부서) → 반기별 현장점검(성과평가단) → 사업종합평가(민·관 거버넌스)

그림 3-10 고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체계(안)



○ 사후관리

-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사업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차년도 실행계획에 반영

○ 추진체계

- 작업반(전문 TF팀) 방식으로 추진체계를 설정(총괄-분야별)하고 지역주민 참여와 유관기관 연계를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

(12) 부안군

□ 주요사업 우선순위

○ [추진전략]

① 지역자원 기반 소득·일자리 창출과 생활인구 유입

② 소 생활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③ 매력 공간 조성으로 정주인구 유입

○ [1순위]

-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 : 변산·격포권 로컬푸드 생산자 판매센터 건립, 푸드앤 레포츠타운 연계 스마트팜 체험농장 조성 ('22~'23)

○ [2순위]

- 주민참여형 한지학교 조성 : 닥나무 식재부터 한지 완성까지 전 과정 체험공간 조성 ('22)
- 일+쉼터 워케이션센터 구축 : 유휴공간 활용 워케이션센터 1관 조성, 워케이션센터 인프라 구축 ('23)

○ [3순위]

- 일+쉼터 워케이션센터 구축: 유휴공간 활용 워케이션센터 1관 조성, 워케이션센터 인프라 구축 ('22)
- 격포항 권역단위 인구활력 연계사업 : 격포권 관광이점 고려 유휴시설 활용

및 기반시설 정비로 주민 소득사업 확장·연계 ('23)

○ [4순위]

- 줄포 소도심 신활력 사업 : 줄포상설시장 유휴공간 리모델링 ('22)
- 청춘실험실 : 청년정착 프로그램 운영, 유휴공간 발굴 및 리모델링, 온라인 플랫폼 구축 ('23)

○ [5순위]

- 격포항 권역단위 인구활력 연계사업 : 격포권 관광이점 고려 유휴시설 활용 및 기반시설 정비로 주민 소득사업 확장·연계 ('22)
- 부안 아트 플랫폼 조성 : 부안예술회관 내 유휴공간 활용으로 문화예술 향유 인프라 확충 ('23)

○ [6순위]

- 부안 아트 플랫폼 조성: 부안예술회관 내 유휴공간 활용으로 문화예술 향유 인프라 확충 ('22)
- 귀농·귀촌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 귀농·귀촌 기반마련을 위한 친환경 목조주택 건축목공 자격증반 운영, 빈집 철거 후 유휴토지 활용하여 이주 대상자에게 빈집 수리, 모듈주택 등 신축 비용 지원 ('23)

○ [7순위]

- 귀농·귀촌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 귀농·귀촌 기반마련을 위한 친환경 목조주택 건축목공 자격증반 운영, 빈집 철거 후 유휴토지 활용하여 이주 대상자에게 빈집 수리, 모듈주택 등 신축 비용 지원 ('22)

○ [투자예산]

- 2022년 : 총 487,545백만원 (기금활용 6,000백만원, 연계사업 481,545백만원)
- 2023년 : 총 18,175백만원 (기금활용 8,000백만원, 연계사업 10,175백만원)

□ 대응사업 추진체계

○ 성과분석

- BSC 활용 기금사업 성과 분석 추진방식으로 성과분석 체계 구축

- BSC 지표개발, 확정지표 시스템 탑재, 성과관리 BSC 실행, 지표성격 평가, 군민 만족도 평가, 평가결과 활용 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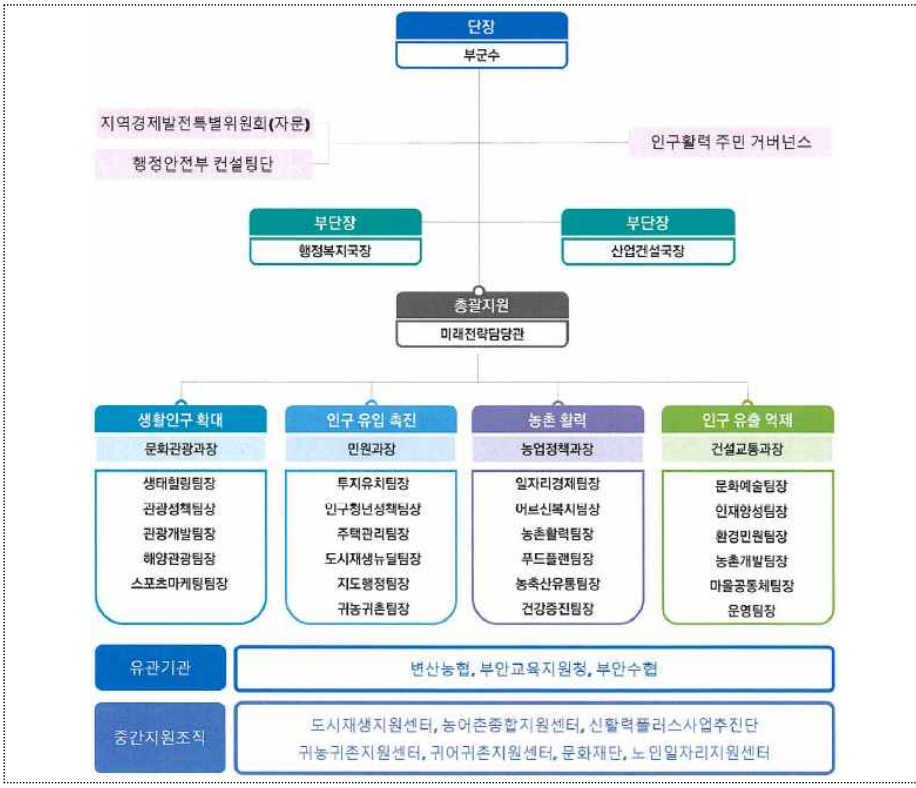
○ 사후관리

- BSC활용 기금사업 성과분석 추진 체계를 활용한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
- (H/W) 운영주체의 장기 운영계획 수립, 운영예산 확보
- (S/W) 지속적인 S/W 운영을 위한 기관 선정 및 예산 확보

○ 추진체계

- 행정부서의 총괄 부서 분야별 전담부서 행정 체계를 중심으로 주민참여 거버넌스 기구(유관기관·중간지원조직 등)와 자문위원회·컨설팅 구조를 갖춤

그림 3-11 부안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체계(안)



2. 고향사랑기부금, 추진현황[21]

(1) 모금·운용에 관한 내용

□ **목적, 정의, 기관장의 책무**

○ 목적 : '고향사랑기부금'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

○ 정의 :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 고향사랑기금, 기부자, 답례품 등을 각각 규정 (군산시)

○ 기관장의 책무 : 기관장은 기부금 모금과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노력함을 규정 (군산시)

□ **답례품 관련 조항**

○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위원회의 심의사항 명시, 위원수, 위원 임기(진안군) 등

○ 답례품 종류 : 도내 생산·채취 농축수산물 등 지역특산품과 도 생산기반 둔 업체 생산·제조 물품 등, 체험·숙박·관광·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

○ 답례품 우선 선정 기준 : 친환경·유기·무항생, 6차산업, 지리적표시, 전통공예, 사회적경제, 도인증 공동브랜드, 지역사랑 상품권, 도출연 쇼핑몰 상품권 등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 답례품비 지급 :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지급 위해 별도 예산 편성, 답례품 공급 등 정보 관리운영 및 상담서비스 제공 위한 사무위탁(전문기관) 명시(완주군)

---

21 고향사랑기부금은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어, 시·군별 추진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확보가 여의치 못해, 시·군별 정책추진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조례)의 내용을 토대로 추진현황을 개괄하고자 함

□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

○ 고향사랑기금 운영심의위원회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명시

○ 위원회의 기능 : 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기금 결산 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 성과분석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안건 심의에 필요한 전문가·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규정을 명시

○ 위원회의 구성 등 : 위원수(당연직, 위촉직), 임기, 해촉, 위원장 직무, 회의, 위원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간사, 위원 수당 등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항**

○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기탁서 접수, 확인, 영수증 발급 등의 역할 수행)

○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재원 :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 일반회계 및 타 기금 전입금, 기금운용 발생 수익금 등

○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별도 기금계좌 설치 관리운용, 금고에 예치관리, 적립기금+운용기금 구분관리

○ 기금의 사용목적 : 법률 11조2항1~4호 해당사업 중 지정하여 기부금 모집 가능(이 경우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모금액 비율에 따른 홍보·운영비 사용(완주군만 제외)

- ①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②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③시민참여, 자원봉사 등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④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기금관리 공무원 등 : 기금 운용관(실국장), 기금분임 운용관(과장), 출납원(사무관) 등의 규정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조항**

○ 기금 운용계획 수립 :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기금의 재산사항 등 (완주군, 무주군 제외)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결산 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8조, 시행령 5조~6조를 따름

○ 기금의 결산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도의회 제출(운용 성과분석 결과, 개황·분석, 현금 수입지출 서류) (완주군, 무주군 제외)

□ 기타 관련 사항

○ 포상 : 활성화에 공로한 시군, 단체, 기업, 개인 등 (전북도, 순창군)

○ 명예군민증 수여 (순창군)

○ 시행규칙 규정 (군산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표 3-1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조례의 지역별 비교

구성	주요내용 설명	전북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목적	법률 및 시행령 위임사항 규정	1조	1조	1조	1조	1조	1조	1조	1조	1조	1조	1조	1조	1조	1조	1조
정의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모금, 고향사랑기금,기부자,답례품	·	·	·	2조	·	·	·	·	·	·	·	·	·	·	·
기관장 책무	시장은 기부금 모금과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노력	·	·	·	3조	·	·	·	·	·	·	·	·	·	·	·
답례품 선정위원회구성	9명	2조	20조	2조	22조	2조	2조	2조	16조	2조	2조	2조	3조	2조	2조	2조
	선정위원회 위원 임기	·	·	·	·	·	·	·	·	·	·	·	4조	·	·	·
답례품 종류	도내 생산 · 채취 농축수산물 등 지역특산품과 도 생산기반 둔 업체 생산 · 제조 물품 등, 체험/숙박/관광/서비스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	3조	21조	3조	23조	3조	3조	3조	15조	3조	3조	3조	12조	3조	3조	3조
	(우선선정 기준) 친환경.유기,무항생,6차산업,지리적표시,전통공예,사회적경제,도인증공등브랜드,지역사랑상품권,도출연쇼핑몰상품권 등	·	·	·	·	·	·	·	·	·	·	·	·	·	·	·
답례품 선정시 고려사항	안정공급,수행능력,기반보유,실적/매출,안전성, 대형유통업체입점여부 등	4조	22조	4조	24조	4조	4조	4조	17조	4조	4조	4조	13조	4조	4조	4조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5조	23조	5조	25조	5조	5조	5조	18조	5조	5조	5조	14조	5조	5조	5조
답례품비 지급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지급 위해 별도 예산 편성	6조	24조	6조	26조	6조	6조	6조	·	6조	6조	6조	15조	6조	6조	6조
	답례품 공급 등 정보 관리운영 및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위탁(전문기관)	·	·	·	·	·	·	·	19조	·	·	·	·	·	·	·
지정 금융기관 위탁	지정 금융기관 위탁(기탁서 접수, 확인, 영수증 발급 등)	7조	19조	7조	21조	7조	7조	7조	20조	7조	7조	7조	16조	7조	7조	7조
고향사랑기금 설치/재원	모금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 일반회계/타기금 전입금, 기금운용 발생 수익금	·	2조	8조	4조	8조	8조	·	2조	·	·	8조	17조	·	·	8조
기금의 관리/운용	별도 기금계좌 설치 관리운용, 금고에 예치관리, 적립기금+운용기금 구분관리	8조	3조	9조	5조	9조	9조	8조	3조	8조	8조	10조	18조	8조	8조	9조
기금의 사용목적	법률 11조2항1~4호 해당사업 중 지정하여 기부금 모집 가능 (사업정보 제공), 모금액 비율에 따른 홍보/운영비 사용	9조	4조	10조	6조	10조	10조	9조	·	9조	9조	9조	19조	9조	9조	10조

표 3-1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조례의 지역별 비교

구성	주요내용 설명	전북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운용관)	기금운용관(실국장),기금분임운용관(과장),출납원(사무관)	10조	5조	11조	7조	11조	11조	10조	4조	10조	10조	11조	20조	10조	10조	11조
고향사랑기금 운영심의위원회	·	11조	6조	12조	8조	12조	12조	11조	5조	11조	11조	12조	2조	11조	11조	12조
심의위원회 기능	기금운영계획 수립/변경,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 성과분석	12조	7조	13조	9조	13조	13조	12조	6조	12조	12조	·	21조	12조	12조	13조
심의위원회 구성	9명 이내(당연직, 위촉직)	13조	8조	14조	10조	14조	14조	13조	7조	13조	13조	13조	23조	13조	13조	14조
위원 임기	2년, 1회 연임	14조	9조	15조	11조	15조	15조	14조	8조	14조	14조	14조	22조	14조	14조	15조
위원 해촉	·	15조	10조	16조	12조	16조	17조	15조	9조	15조	15조	·	5조	15조	15조	16조
위원장 책무(직무)	·	16조	11조	17조	13조	17조	18조	16조	10조	16조	16조	15조	6조	16조	16조	17조
심의위원회 회의	정기회의, 임시회의	17조	12조	18조	14조	18조	19조	17조	11조	17조	17조	16조	7조	17조	17조	18조
위원 제척기피회피	·	18조	13조	19조	15조	19조	16조	18조	12조	18조	18조	·	8조	18조	18조	19조
심의위원회 간사	·	19조	14조	20조	16조	20조	20조	19조	·	19조	19조	18조	9조	19조	19조	20조
심의위원회 의견청취 등	안건심의에 필요한 전문가/공무원 등 의견 청취	20조	15조	21조	17조	21조	22조	20조	13조	20조	20조	17조	10조	20조	20조	21조
위원 수당	·	21조	16조	22조	18조	22조	21조	·	14조	21조	21조	·	11조	21조	21조	22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의 수입/지출 사항, 해당년도 사업계획/자급계획, 기금의 재산사항	22조	17조	23조	19조	23조	23조	21조	·	22조	22조	·	24조	22조	22조	23조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결산 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8조, 시행령 5조~6조를 따른다	·	·	·	·	·	·	·	·	·	·	·	·	·	·	·
기금결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도의회 제출 (운용 성과분석 결과, 개황/분석, 현금 수입지출 서류)	23조	18조	24조	20조	24조	23조	22조	·	23조	23조	·	25조	23조	23조	24조
포상	활성화 공로 시군, 개인, 단체, 기업 등	24조	·	·	·	·	·	·	·	·	24조	·	·	·	·	·
·	명예군민증 수여	·	·	·	·	·	·	·	·	·	25조	·	·	·	·	·

표 3-1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조례의 지역별 비교

구성	주요내용 설명	전북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	관계규정 준용	·	·	·	27조	·	·	·	·	·	·	·	·	·	·	·
·	조례 규정 외의 기금운영 사항은 지자체 기부금관리기본법 준용	·	·	·	·	·	·	·	21조	·	·	·	·	·	·	·
·	시행규칙	·	·	·	28조	·	24조	·	22조	·	·	·	·	·	·	·
·	운영세칙	·	·	·	·	·	·	·	·	·	·	19조	·	·	·	·
시행일	·	부칙 1조	·	·	·	·	·	·	·	·	·	·	·	·	·	·
준비행위	·	부칙 2조	·	·	·	·	·	·	·	·	·	·	·	·	·	·
모집운용비용 특례	최초 개시 사업년도 필요비용의 별도 예산 편성 지급	부칙 3조	·	·	·	·	·	·	·	·	·	·	·	·	·	·
위원임기경과조치	·	부칙 4조	·	·	·	·	·	·	·	·	·	·	·	·	·	·

자료 : 각 시·군 조례에서 직접 작성.

(2)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관련 사이트

○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플랫폼을 운영 중 “위기브(Wegive)”

그림 3-12 고향사랑기부금 플랫폼 ‘위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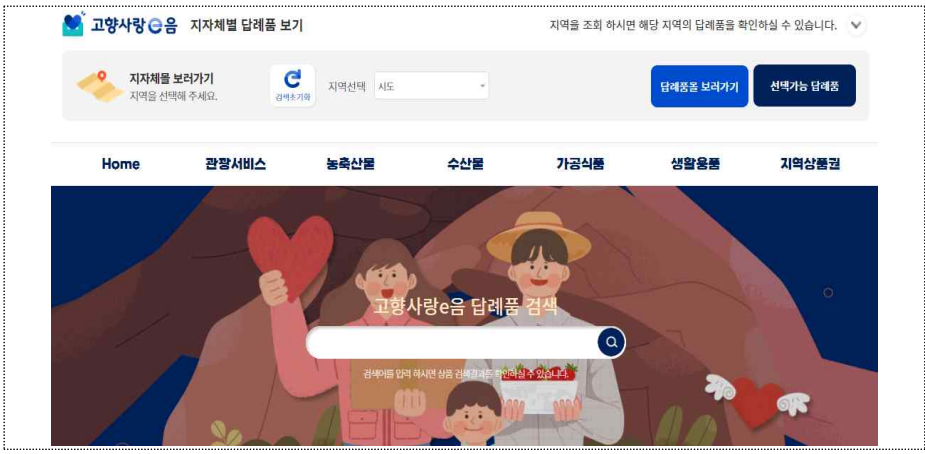


자료 : https://www.wegive.co.kr/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KLID-행정안전부]

- 기부금에 따른 답례품 안내 플랫폼 운영 중 “고향사랑e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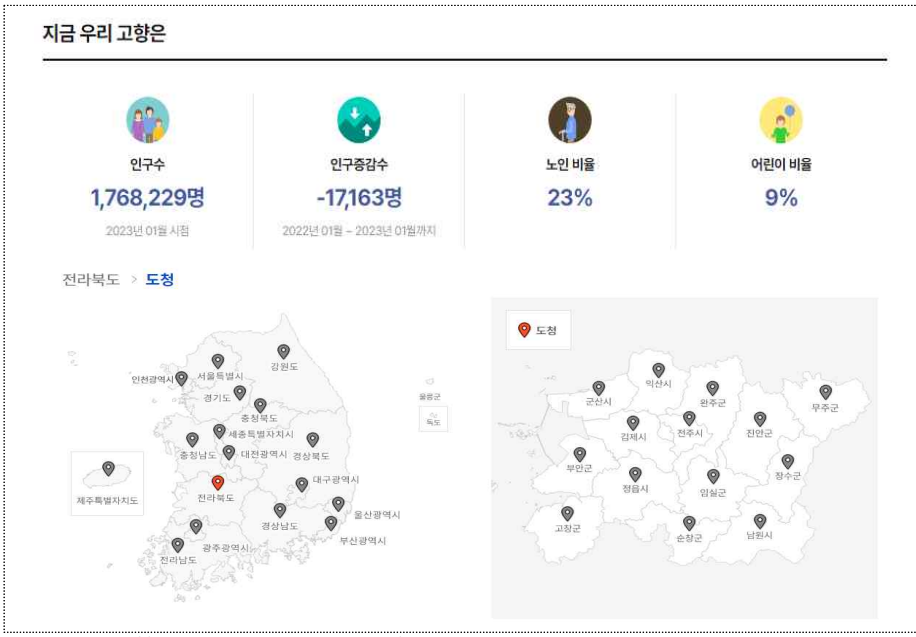
그림 3-13 고향사랑기부금 플랫폼 ‘고향사랑e음’



자료 : https://www.ilovegohyang.go.kr/

○ 지역별로 기부금을 위한 해당 지역 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 (광역+기초)

그림 3-14 지역별 고향사랑기부금 운영현황 (예시)



자료 : https://www.ilovegohyang.go.kr/

(3) 답례품 지정 현황

○ 고향사랑기부금의 답례품으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539개의 상품이 지정되어 있음

- 시·군별로 답례품 선정 여건이 상이한데, 진안군(84), 익산시(57), 부안군(53), 전주시(42), 장수군(40), 무주군(39), 고창군(37), 정읍시(34), 순창군

표 3-2 전라북도 시·군별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지정 현황

전체	전북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539	21	42	57	16	27	24	34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19	14	32	39	84	40	37	53

(32), 김제시(27), 남원시(24), 완주군(19), 군산시(16), 임실군(14) 등의 순

그림 3-15 전라북도 시·군별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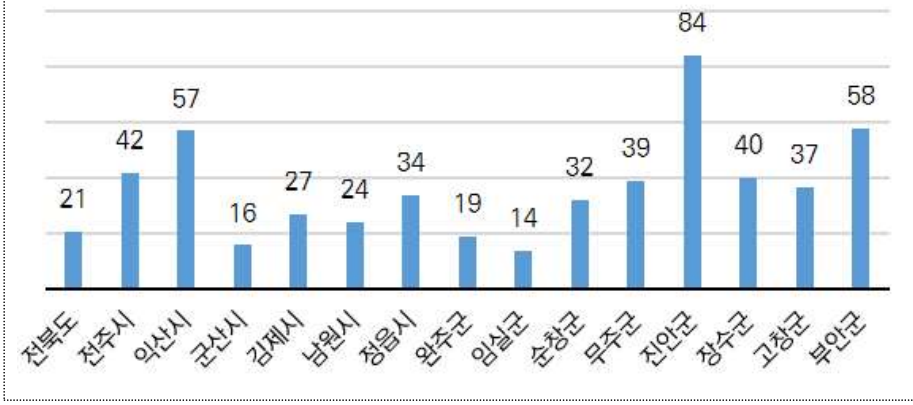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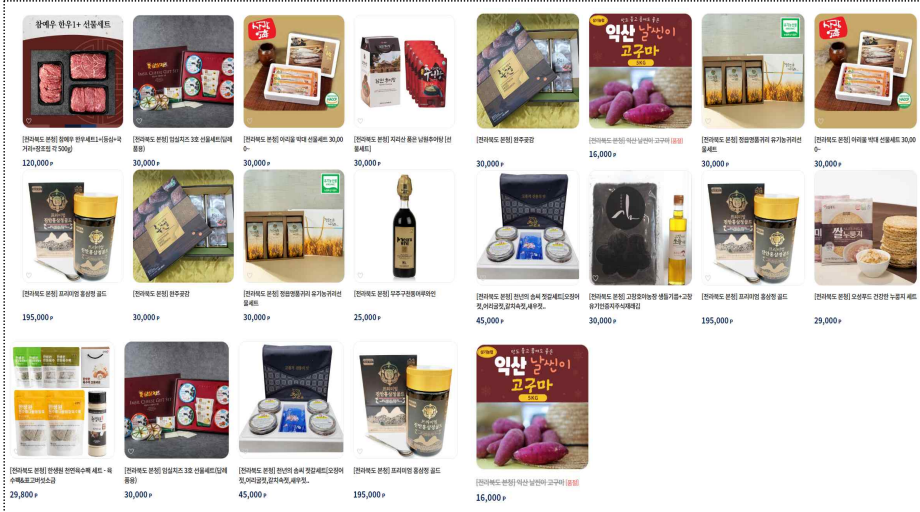


그림 3-16 전라북도 시·군별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상품(예시)



자료 : https://www.ilovegohyang.go.kr/

제4장

지방소멸 농업·농촌 주요 대응사례

1. 오부세마치(小布施町)
2. 카미야마쵸(神山町)
3. 포틀랜드(Portland)
4. 사카다시(酒田市)
5. 허즈웰(Hudswell)
6. 마나츠루마치(真鶴町)
7. 도쿄 분쿄구(文京区)
8. 일본 고향납세 사업
9. 고향사랑기부금 사례

제4장

지방소멸 농업·농촌 주요 대응사례

□ **조사목적 배경**

○ 이 장에서는 지역(지자체 등) 단위에서 지역활력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주요 정책사례를 조사·검토하고자 함

○ 지방소멸 대응재원의 지역적+농업·농촌적 활용을 위해 유사한 국외 프로젝트·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하여 정책 담당자 업무 활용 자료제공에 목적을 둠

□ **조사대상 설정**

○ 지방소멸 위기의 배경이 되는 과소화·고령화 문제가 야기한 지역사회+지역경제의 침체 및 후퇴의 상황에 대응한 주요 외국(일본 중심)의 사례를 대상

○ 지방소멸 위기의 문제는 인구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 삶의 질 영역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한 사례 검토 추진

□ **사례 분석방법**

○ 지역사회 후퇴에 대응해 문제를 정의하고, 대응방향을 구상하며, 실행주체를 세우면서, 프로젝트를 실행해 나가, 일정한 변화 성과를 창출하는 스토리 방식으로 검토하고자 함

○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는지, 활성화 사례를 검토·소개함(일본 고향납세 활성화 60개 사례 등)

○ 지방소멸 위기 대응해 고향사랑기부금 등 대응재원을 지역사회 주도력에 맞추어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국내 사례를 검토하여 소개하고자 함

1. 오부세마치(小布施町), 농업을 매개로 지역브랜드화 관리체계 구축

□ 사례지역의 개요와 지역사회 문제의 검토

○ 일본 오부세마치(小布施町)는 역사·문화·풍토를 살린 매력 있는 지역개발, 지역 브랜드·지역 특산품(오부세 밤과자 등)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교류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임

○ '오부세'라는 지역 브랜드를 활용하여, 농업분야 연구개발 및 농산가공(와인, 주스, 잼 등)을 활성화하였고, 경지면적의 확대와 농업 종사자를 다양화(법인, 고령자, 여성)해 나가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지역의 인구가 1963년 1만명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11,005명으로 1만명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관광을 위해 지역을 찾아오는 '교류인구'는 연간 약 120만명이나 됨 → 지역인구의 100배가 교류인구로 지역을 찾음

○ 기간산업은 농업인데, 농업생산액(사과, 포도, 화주, 밤, 버섯 등)과 농산물 가공액(밤과자 등)은 지역내 총생산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높고, 농가인구도 지역인구의 35%로 높음(평균 지역인구 중 농가인구는 7%)

○ 오부세 밤 재배의 역사는 600여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에도시대 후기 시대부터 밤과자를 개발(밤양갱 등)하였는데, '밤과자'는 지역 브랜드로 폭넓은 지명도를 쌓아 왔음

□ 밤과 농업으로 시작한 지역브랜드화, 지역가치 창조

○ 오부세마치에는 밤과자 생산 명가(名家) 3곳이 입지하여 경쟁·협력을 통해 지역 향토산업으로 밤의 자원을 집적해 나가고 있음

○ 밤과자 명가(제조원)들은 쿠리오코와(밤밥)를 개발하고, '아카리 박물관, 작은 밤나무 미술관' 등을 유치하여 지역사회 활력을 가져올 중요한 거점을 계속 늘려가는 중임

○ 지역기업이 지역 브랜드화 전략에 머물지 않고 관광형 매장 형태로 문화 정보를 제공하면서, 해당 지역의 브랜드화를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례이며, 지역기업들 간 경쟁을 통해 관광객이 수용 가능한 정보량은 계속 증가

○ 지역농업은 밤, 사과, 복숭아, 포도 등 과일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데, 겸업농가 비율이 70%를 차지하고 있음(농업이 지역의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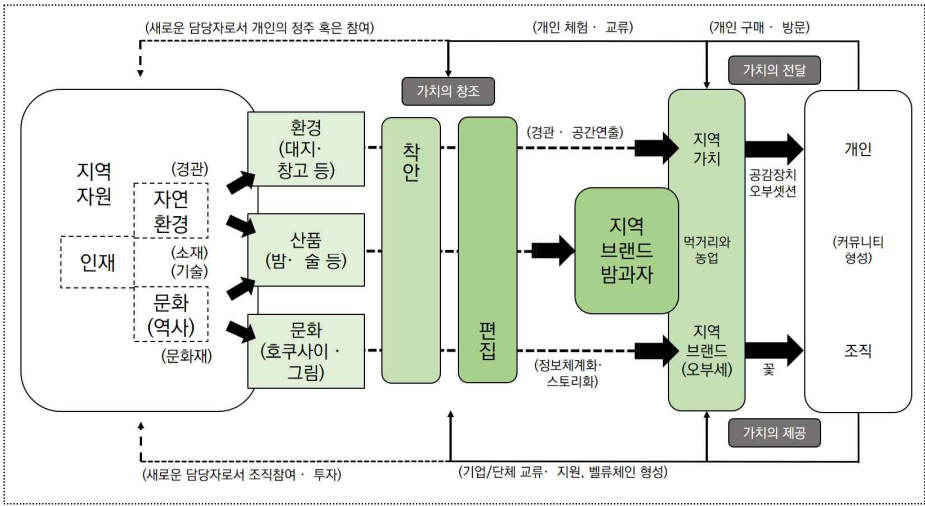
○ '오부세 진흥공사' 주관으로 지역 농작물과 특산품을 판매하는 '오부세야'(판매장)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지역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음

○ '농업과 꽃'이 어우러진 삶을 강조하여 새로운 지역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는데, '오브세 플라워 센터'를 중심으로 매년 봄 '꽃 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이곳에서 종묘를 판매함

□ 지역활성화+지역브랜드, 융합 마케팅 모델 사례

○ 오부세 마치는 밤과 같은 농업자원, 지역의 오래된 농촌마을 등을 지역자원화하는 브랜드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그림 4-1 오부세마치 지역활성화 마케팅 모델



자료 : 미야조에 켄시(2021), "지역을 디자인하다", 학연문화사.

○ 이러한 농업자원+지역자원을 지역기업은 관광형 매장으로 환경을 연출하고 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브랜드화를 촉진해 나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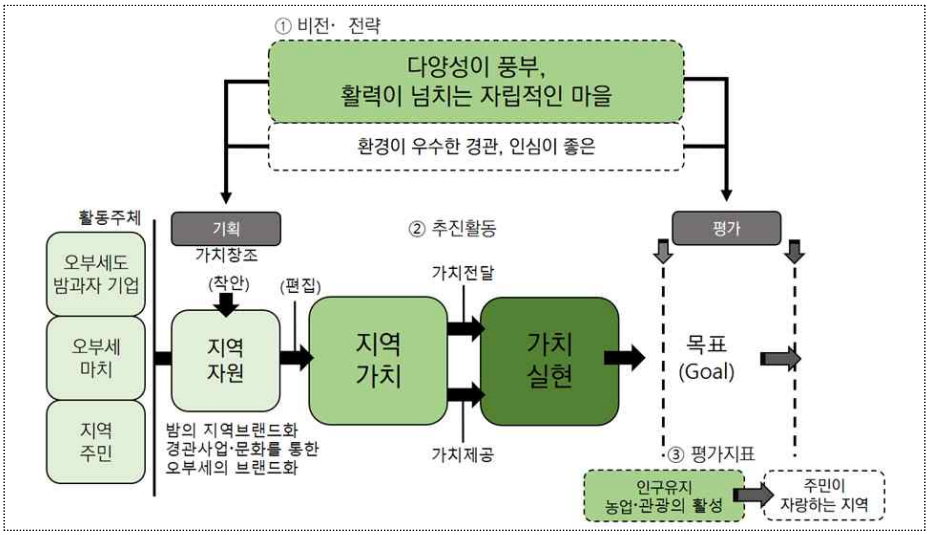
○ 그러한 노력은 '오부셋션(오부세 문화가치 기획)'을 통해 지역과 도시를 연결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 지역활성화+지역브랜드, 다양한 추진주체 육성

○ 오부세 마치는 행정·민간협조를 통하여 농촌경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책로 등 환경 인프라와 관련하여 민간이 일정한 비율로 개발비를 부담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건축 전문가 감수로 건물외장 등은 콘셉트는 통일함

○ 경관조례를 제정하였는 데, 조례는 주민의 자율규제(전원환경에 맞는 자율적 건축조성), 정원개방 활동('14년 130가구나 참여)의 기조이며, 이것이 오부세 마치의 행정과 지역주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임

그림 4-2 오부세마치의 지역활성화 매니지먼트 모델



자료 : 미야조에 켄시(2021), "지역을 디자인하다", 학연문화사.

2. 카미야마쵸(神山町), 활동주체 중심의 관계인구 혁신 지역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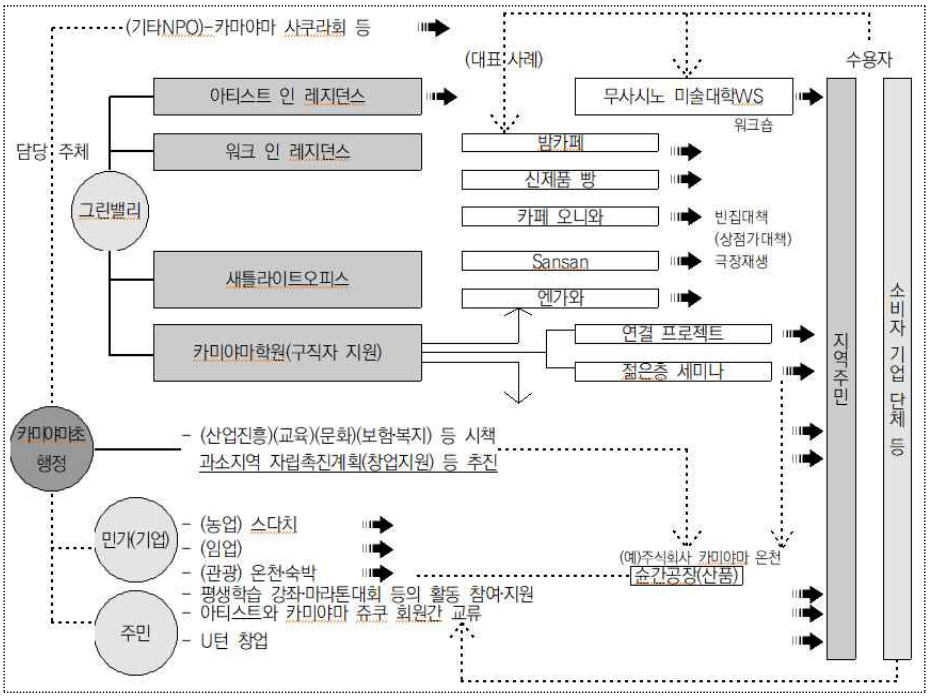
□ 사례지역 개요와 지역사회 문제의 검토

○ 카미야마쵸((神山町)는 일본의 낙후지역인 도쿠시마현의 산간 지역으로 인구가 약 6천여명에 불과한 작은 지역인데, 오랜 기간 과소화 현상이 이어졌고, 순례지(오헨로)로 알려졌으나, 관광자원과 지역기업은 부족한 상황임

○ 지역이 직면한 문제와 한계점을 '낡은 빈집, 적은 인구'로 정하고, 이 문제를 오히려 역 이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진행해 오고 있는 사례임

○ 새로운 지역의 자원에 착안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방식'과 '노동방식'을 구현할 지역적 가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림 4-3 카미야마 지역활성화 활동의 주요흐름과 개념



자료 : 미야조에 켄시(2021), "지역을 디자인하다", 학연문화사.

○ 지역 활성화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활동주체는 '주민유치' 활동에서 시작된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NPO) '그린밸리('04년 설립, GV)'[22]가 그 역할 담당

○ 지역 활성화 활동주체인 '그린밸리'가 운영 중인 대표적인 사업장

- 카미야마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KAIR) : 국내외 아티스트를 카미야마로 초정하여 체류, 예술활동을 지원
- 워크 인 레지던스 : 개조한 오래된 민가에 기업 이주를 촉진
- 새틀라이트(위성) 오피스 : IT벤처기업
- 카미야마쥬쿠(宿) : 지역 창업 인재를 육성·지원 학원

□ 지역활성화 대응활동의 특징과 모델

○ '작은 지역'에서의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전국에서 흔한 산간 지역의 과소 도시(산간마을 등)인 '작은 지역'이라는 요소는 지역 활성화 정책에 있어 부정적 의미가 큰 것이 사실임
- 카미야마쵸는 지역이 작다는 것, 사람이 적다는 것을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활용하여 관계망을 강화하여 활성화해나가는 장점으로 승화시킨 사례임

○ '주민 주체'에 의한 지역 활성화를 실행하고 있음

- 지역주민의 자주적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NPO 조직을 발족하고 주체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참여하여 제안과 실행, 운영 등을 맡고 있음
- 단순히 지역 발전이라는 의욕에 갇히지 않고 정량적 목표를 확실히 설정해 구체적 활동으로 연결시키는 점이 특징

○ 비전·전략·실행의 '일관된 수행'으로 지속하고 있음

- 지역 활성화 주체로서 '그린밸리'(실행주체)는 '일본의 시골을 멋지게 바꾼다'는 것을 목표로 실현을 위해 3개 비전을 제시하였고, 이를 일관되게 실천하고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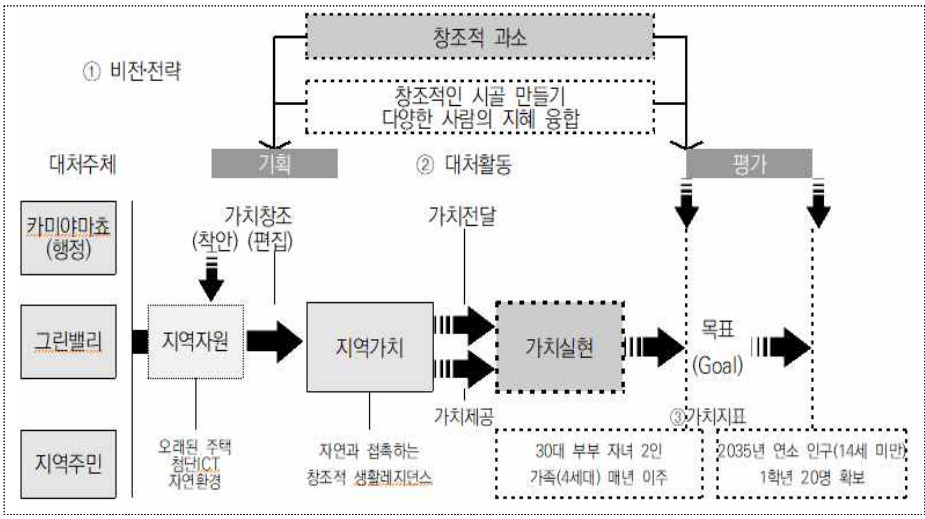
22 그린밸리는 카미야마 이주 촉진과 IT 기업 유치를 담당하는 비영리법인(NPO), 사무국 직원 6명, 회원 55명 모두 카미야마에 거주, '카미야마 국제교류협회'가 그린밸리의 전신, 카미야마 주요 프로젝트는 그린밸리로부터 시작되었고 다양한 활동을 현재 진행

① ‘사람’을 콘텐츠로 하는 창조적인 농촌 만들기

② 다양한 사람의 지혜를 융합하는 ‘세계적 카미야마’ 만들기

③ ‘창조적 과소(過小)’에 의한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그림 4-4 지역활성화 매니지먼트 모델 주체(카미야마 그린밸리) 활동



자료 : 미야조에 켄시(2021), “지역을 디자인하다”, 학연문화사.

□ 주체가 창조하는 지역활성화 대응전략의 창조적 활동내용

○ 실천주체 ‘그린밸리’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독자적 발상 ‘창조적 과소’ 라는 분석방법을 제시하였음

- 인구감소와 과소화를 전제, ‘35년 0~14세 인구 확보 목표로 필요한 이주 인구 추산해 활동을 펼치는 방법을 구사, 인구 추산 결과 30대 부부(자녀 2명) 가족 4쌍이 이주하면 좋다는 결과를 얻고, 구체적 활동 펼침

○ 전략적 차원에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NPO를 결성하고 조직의 일원으로 ‘지역이주센터’ 업무를 맡음, 행정의 입장에서는 대처하기 까다로운 오래된 주택과 인재를 전략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성과임

○ 다수 지역이 적용하는 ‘사람을 주택에 입주하는 방식’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에 필요한 기능·기술을 가진 인재(꿈)를 중시하는 이주 촉진정책’을 추진

○ 정책제도와 공적자금 등의 견실한 활용 : 국가·현의 지역 활성화 제도·구조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전개하는 것이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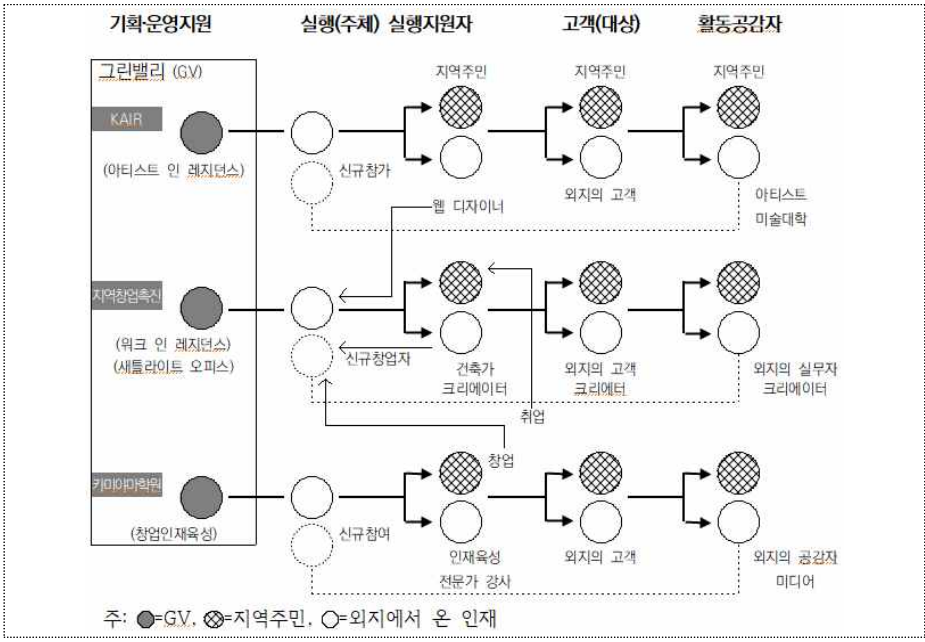
- 카미야마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도쿠시마현 국제문화촌사업 활용), 정보제공 카미야마 웹사이트(총무성 지역ICT 활용모델 구축사업 활용), 워크인 레지던스(지역 이주교류센터 조성사업 활용), 카미야마학원(후생성 구직자지원사업 활용)

○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이를 상승시켜 시너지로 활성화를 이어가고 있음

- 각종 활동사업을 통해 여러 사람의 공감대를 얻거나 유발하여 참여자가 늘어남에 따라 견학, 체험 등 통해 한층 발상이 확산되어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끌어 들이고 있음

○ 결국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연쇄와 순환'의 작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임

그림 4-5 활동주체(카미야마 그린밸리) 중심의 인적관계 개념



자료 : 미야조에 켄시(2021), "지역을 디자인하다", 학연문화사.

3. 포틀랜드(Portland), 지역활성화 관리모델의 혁신적 정립

□ 지역현황과 지역활성화 모델의 개요

○ 미국의 오리건주에 위치한 인구 약 60만명의 도시, 주변 도시까지 포함한 인구로는 약 220만명 규모의 생활권을 가짐

○ 미국 전역에서 가장 '환경 친화적인 도시, 가장 맛있는 레스토랑이 있는 도시' 등으로 선정·주목되어 지역활성화의 시범도시로 꼽히고 있음

○ 실제로 도시권에 살고 있는 인구는 10년 간 19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17%가 증가하였음

○ 지자체 행정으로 '도시성장 경제선'을 설치하여 지역개발을 규제한다는 점이 특징임, 이를 통해 대도시이면서 농업생산이 잘 이루지는 농업지대 포함한 도시로 거듭나 '지산지소(地産地消)'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항만 조성으로 조선·기계부품 등 공업 분야와 첨단기술 분야 산업이 이전함에 따라 '실리콘 포레스트'라는 별명도 얻게 됨

그림 4-6 포틀랜드 지역활성화의 이미지



자료 : 미야조에 켄시(2021), "지역을 디자인하다", 학연문화사.

○ 포틀랜드가 지역활성화로 실현하는 지역 가치

① 유기농 식자재를 지역자원으로 활용해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지산지소형 식생활 스타일

② 지적이고 창의적 예술을 친근하게 느끼는 예술적 생활방식

③ 도시에 있으면서 자연을 즐기는 건강한 스포츠 생활방식

④ 이를 종합적으로 포함한 친환경적이고 선진적인 생활방식

□ 지역가치를 실현하는 생활방식의 주요내용

○ 식생활 스타일

- 지역자원인 유기농으로 재배한 신선한 재료로 만든 요리를 지역의 와인·커피 등과 즐기는 지산지소형 생활방식이 지역가치로 실현하고 있음
- 파머스마켓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음(3~12월, 5곳 개설, NPO 조직 PFM 운영, 250개 생산자 단체가 참여, 입점조건 엄격-신선·맛·건강·생물다양성)
- 팜 투 테이블 레스토랑 운영(현지 농가 식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제공하는 미국식 지산지소, 유수의 요리사들이 음식의 품질을 향상, 관광객 붐을 이룸)

○ 예술적인 생활방식

- 펄 지구 재개발로 건축가·디자이너 활동 기회와 이주가 늘어났고, 예술 관련 학습과 장소가 증가하여, 이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직종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PNCA(독립 예술전문학교, 펄지구 문화랜드마크, 공동체 지원역할)
- 에버렛 스테이션 로프트(펄 지구 활동 젊은 아티스트 제작·창작 시설)

○ 스포츠 생활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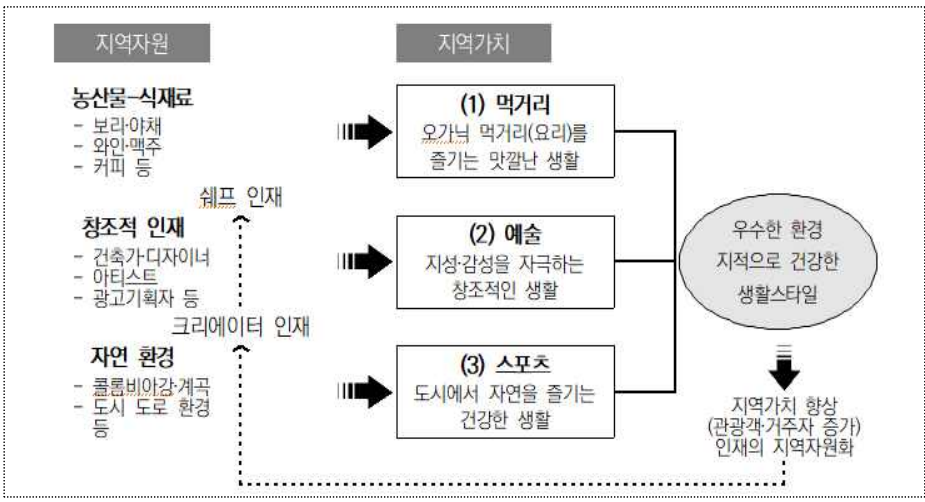
- 도시에 살면서 자연을 즐기는 건강한 삶의 터전(자전거·아웃도어)을 지키는 기로를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음

○ 친환경 생활방식

- 지속가능 사회를 위해 고속도로 건설 중단, 도보를 생활화하는 도시 조성을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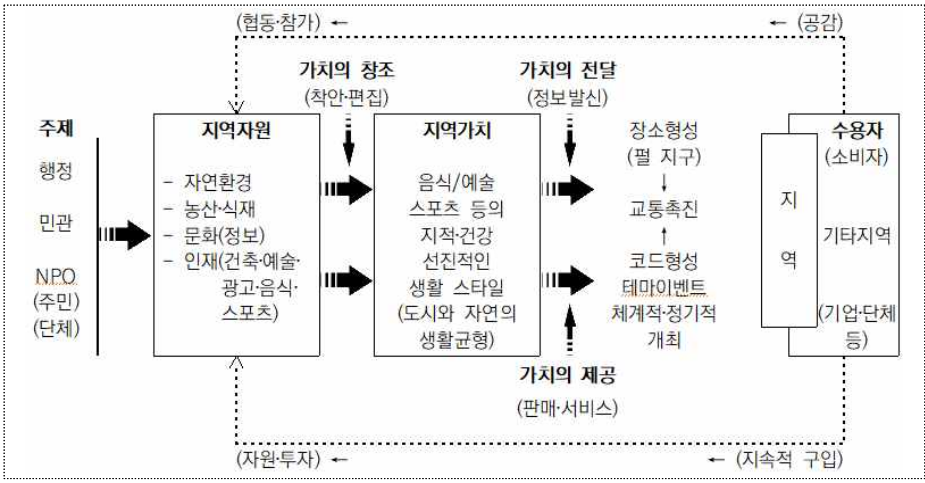
- 식재료 유기농 위주, 지역생산-지역소비로 에너지 감축 식생활 실천
- 주거시설은 환경 고려 태양광 발전패널이 길거리 예술 설치물 적용 재활용이 정착한 도시로 자리 잡음

그림 4-7 포틀랜드시의 지역활성화 모델의 실행경로



자료 : 미야조에 켄시(2021), "지역을 디자인하다", 학연문화사.

그림 4-8 포틀랜드시의 지역활성화 마케팅 전략



자료 : 미야조에 켄시(2021), "지역을 디자인하다", 학연문화사.

□ **지역활성화 추진주체와 성과적 특징**

○ 행정 : 광역행정 조직인 '메트로'(토지이용과 교통발전 계획 담당), 포틀랜드시(7개 권역 95개 근린조합 구성, 네이버후드 시스템)가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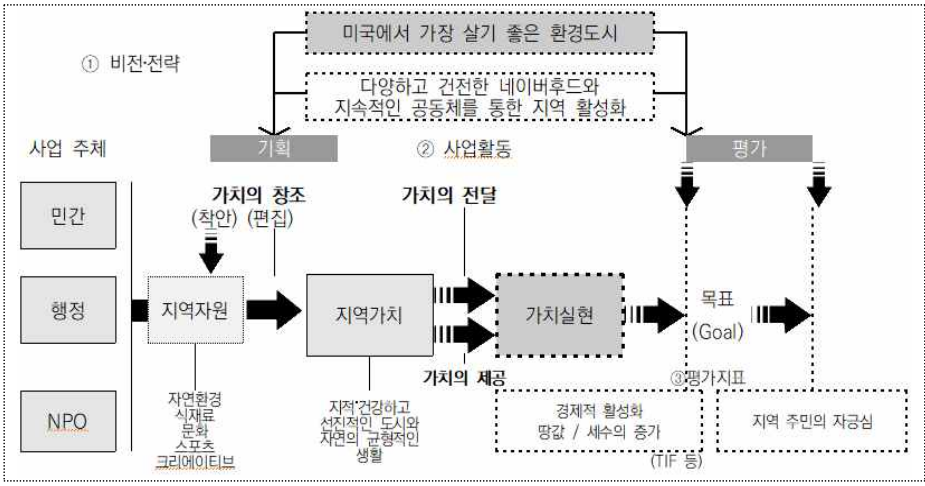
○ 기업 : 행정-민간 협업으로 도시재생기업 PPP 통해 공동사업,

○ 주민 : 네이버후드 조직, NPO조직(공간디자인, 인구유입 활동)

○ 행정이 장기 전략으로 실행력 발휘하면, 행정 주도형 아닌 주민이 주체적 참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결정된 시책을 행정이 수행하는 방식임

○ 개인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도시 내에 매몰되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인구밀도에 관계의 부드러움으로 이어짐(작은 단위 조직 활성화)

그림 4-9 포틀랜드시의 지역활성화 전략 관리 방안



자료 : 미야조에 켄시(2021), "지역을 디자인하다", 학연문화사.

4. 사카다시(酒田市), 과소화마을 활동담당 인력 육성과 지원”

□ 지역현황과 ‘집락지원원(集落支援員)’ 대책의 개요

○ 일본 야마가타현에 위치한 인구 10만명의 소도시로 고령화율은 36%나 되어 도시 내 일부는 일본 정부가 정한 과소지역으로 지정됨

- 사카다시 시내 전 구역에는 초등학교(소학교) 단위의 커뮤니티진흥회 설치

○ 2017년부터 커뮤니티진흥회 별로 ‘지역계획’의 수립을 추진했음, 지역계획을 수립한 커뮤니티진흥회는 지역계획을 실시하는 시기에 교부금을 가산받거나 ‘집락지원원(集落支援員)’을 둘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함

○ 집락지원원(集落支援員)이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지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주체이며, 지역 내외의 인재를 ‘집락지원원’으로 활용

표 4-1 집락지원원의 개념과 역할

· 2008년에 도입된 제도, 조건이 불리한 농산촌지역의 집락(마을)기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대한 한계집락 대책의 하나 · 집락지원원이란 해당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으며, 마을 활성화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인재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촉받아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마을을 순회하고 지역(마을)상황을 파악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 선발되면 연간 최대 350만엔이 지급, 별도의 직업이 있어 겸업을 할 경우 연간 40만엔 지급 · 해당 지역 공무원, 지역주민들과 함께 인구동향, 주민생활상 파악, 농지 상황, 지역자원 발굴, 귀농(귀촌)자 동향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집락점검) · 집락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

자료 : 유학렬(2017), ‘일본의 한계마을 정책 사례 분석’, 충남연구원.

□ 집락지원원 활동 우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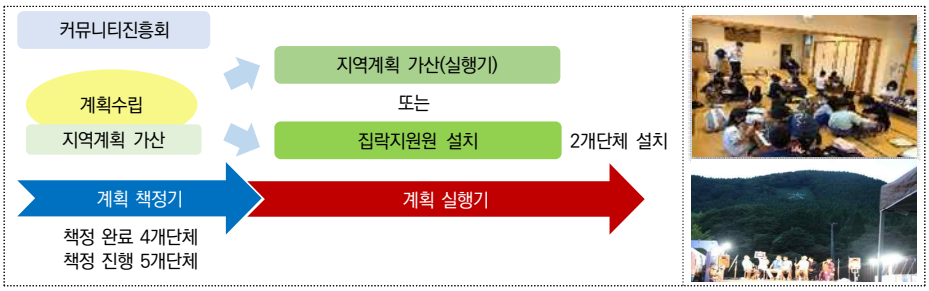
○ 사카타시 오사와 지구 (오사와 커뮤니티 진흥회 소속)

- 오사와 지구는 거주인구가 413명, 163세대가 살고 있고 고령화율은 50%

○ 집락지원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은 정부 지원으로 추진한 '지역부흥협력대(地域復興協力隊)[23]' 시기에 '지역계획' 책정에 중심적으로 관여함

- 지구의 심벌을 활용한 '오사와 大문자축제' 등 지역활성화 이벤트 통한 지역 프로듀싱을 실시함
- 오사와 북, 아오자와 사자춤, 기타 전승·전통 문화 활동을 지원
- 빈집 뱅크 설치, 인터넷 활용 빈집 정보 발신과 이주 희망자 매칭의 구조 만들기 등을 추진
- 집락지원원 홍보지 'ほぼ月刊やわた集落支援員通信'를 발행하여 지역사회 내 모든 가구에 배포하여 활동을 공유하고 있음

그림 4-11 집락지원원을 통한 지역활성화 추진 모델



자료 : 日本 總務省(2023), '過疎對策について', 현지조사 자료.

그림 4-10 농촌마을의 공간적 위치와 집락지원원의 활동범위



자료 : 유학렬(2017), '일본의 한계마을 정책 사례 분석', 충남연구원.

23 지역부흥협력대는 일본 총무성이 2009년부터 추진하는 제도. 도시에서 살다가 인구가 크게 감소한 농촌마을 등 조건불리지역으로 이주한 40세 미만 청년에게 가입자격. 농촌마을 유지에 기여하는 활동의 정도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년간 지원을 받음(인건비 연간 최대 400만엔, 활동경비 최대 200만엔)

5. 허즈웰(Hudswell Parish), 지역 자산을 공동체 자원으로 활용

□ 지역자산 공동체 자산화 배경과 추진과정

○ 허즈웰(Hudswell)은 영국 노스요크셔 요크셔데일 국립공원 경계에 자리한 작은 지역으로 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지자체인데[24], 인구는 353명('11년)

○ '조지아 드래곤(George and Dragon)'은 허즈웰에 있는 유일한 펍(Pub)이었는데, 2008년 경영난으로 파산한 이후 은행소유로 소유권이 넘어감

○ 작은 마을에서 유일한 모임의 장소를 잃게 된 주민들은 펍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운영하고 싶다는 논의를 시작함

○ '09년 7월, 45명이 모여 공개토론을 진행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소유권을 가진 은행에게 '조지아 드래곤' 매입의사와 희망가격을 공식 제안하고 '공동체이익조합(CBC)' 결성을 추진했음

○ 해당 은행과 매각대행 부동산 회사는 이러한 주민들의 매입 의사에 처음에는 비 호의적이었으나, 지역사회 언론을 통해 은행에 접근하자, '09년 10월 2주일 내로 계약하자는 확약을 받아냄

그림 4-12 허즈웰 주민공동 펍 복원 추진 활동 모습



자료 : 황종규(2021), '균형발전-지역혁신 해외사례 II',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4 허즈웰은 노스요크셔 카운티의 리치몬드 디스트릭트의 패리쉬(parish)인데, 의회를 구성하여 로컬의회(parish and town councils) 구성원이 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www.nalc.gov.uk/about/who-we-are를 참조

○ ‘09년 12월, 주민들은 허즈웰 마을펍조합(HCP Ltd)의 설립을 등기하고 펍 건물 앞에서 주민 투자설명서를 공개하여 공식 조합원 모집을 시작함

□ 주요성과와 기대효과

○ ‘10년 2월, 140명이 가입하여 펀딩 목표액(22만 파운드)을 달성하였고, 합의한 매입 금액으로 펍 건물과 토지를 매입함

○ 건물·토지의 구매 후 보조금을 지원 받아 전문회사를 투입하고 조합원과 주민의 봉사활동으로 대규모 보수작업 진행했고, ‘10년 6월 펍을 재개장함

○ 지역인 허즈웰에는 ‘회관’이 있지만 ‘상점·우체국’ 등 ‘공공시설’은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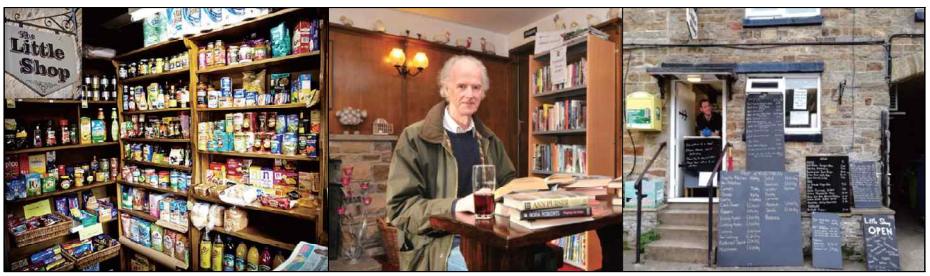
○ 처음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로컬 식재료로 만든 음식 판매, 전통펍 게임, 마을행사·기념모임, 음악·문화활동 공간조성을 목표로 하고, 작은 상점 개장, 간단한 생활용품과 마을생산 농산물 판매 계획을 세움

○ 허즈웰 마을조합은 펍을 직접 운영 방식이 아닌, 전문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임대료 수입으로 조합의 수익을 마련하는 사업모델을 선택함

○ 펍 재개장 이후 주택 신축이 발생, 약 10%의 인구증가 효과를 가져 왔다고 평가되고 있음

○ 성공적 펍 운영을 위해 조합-운영자간 정기모니터링 모임(3달 1회)을 갖고 서로의 역할을 조정하며 공동의 운영 목표와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해 나가는 협업모델을 발전

그림 4-13 허즈웰 주민공동 펍 복원 추진 활동 모습



자료 : 황종규(2021), ‘균형발전-지역혁신 해외사례 II’, 국가균형발전위원회.

6. 마나츠루마치(真鶴町), 사람의 흐름을 만들어 활력을 이어가다

□ 지역개황과 주요특징

○ 도쿄로부터 90분 소요, 가나가와현 서쪽 위치, 현내 2번째 작은 지역

○ 인구 통계로는 7,104명, 실제로는 6천명 후반대 (시뮬레이션 결과 2060년 약 3천명 규모 예측) ('17년 가나가와현 내에서 과소지역으로 최초 지정)

○ 어항 2곳, 어업 발달, 고마츠이시 묘비석 산지, 농업 밀감 중심, 관광업 활발 (농업-60대 이상, 석재산업과 관광업은 50대 이상이 절반)

○ 마나즈루 반도 내 보호림, 숲 양분 풍부, 신성한 숲으로 생각, 삼림욕 등 진행

○ '미의 기준(美の基準)'이라는 도쿄(대도시)와는 차별화된 디자인 코드 갖춤[25]

○ '작은 도시의 커다란 도전(小さな町、大きな挑戦)'(아사히신문 사설, '92년)

□ 대응전략과 추진경과

○ (목표) 지역 인구를 늘릴 수는 없지만, 생산가능 인구를 고령인구보다 높게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

○ (전략) ①일자리, ②새로운 사람의 흐름 만들기, ③교육과 육아를 응원하기, ④안심과 안전한 지역만들기[26]

○ 지역활성화 추진경과(개괄)

- ①행정의 중견직원+젊은 직원, ②지역 주민 중 젊은 사람 등이 무엇이든 해도 좋은 계획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 실행 예산 5만엔 지원, 10명 미만 그룹 4개팀이 실제 자기계획을 실행
-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아침 장을 개설, 성공하여 8년간 지원, 매월 마지막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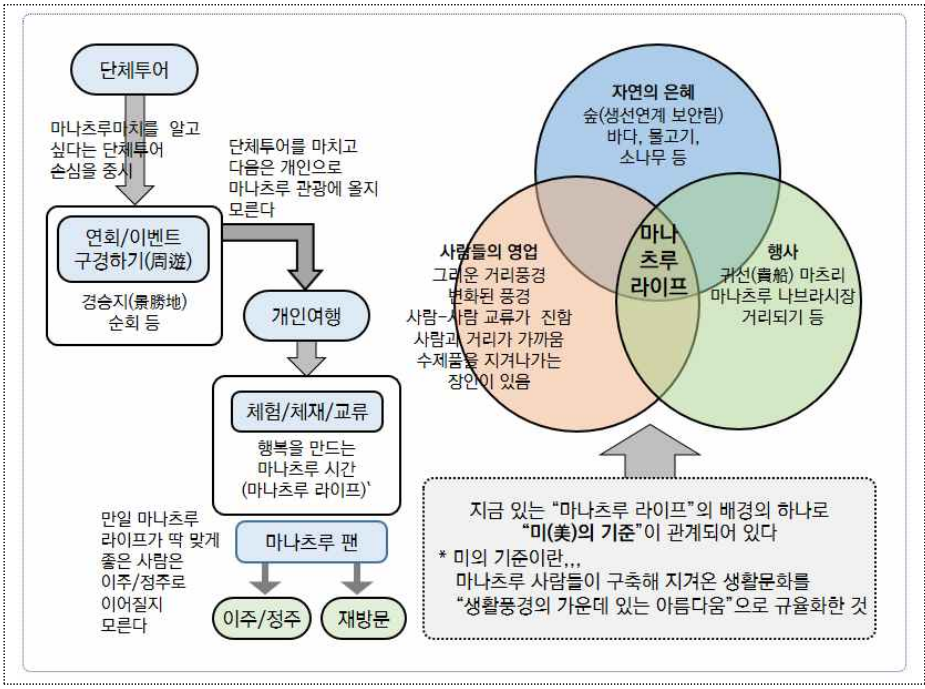
25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지역, 2011년 월드 디자인 서미트(World Design Summit, WDS) 개최(세계 32개 도시 참여, 마마츠루 1회/2회 참가)

26 지금까지의 마나즈루町 정책을 통해 ①과 ②는 어느 정도 추진, 그러나 육아와 교육은 부족했다는 평가에서 이에 중점을 두는 경향

요일 '아침시장(마나즈루 나브라시장 真鶴 なぶら市)' 운영

- 처음부터 관광객을 상대가 아니고, 주민 상대로 하는 실행계획, 주민들의 시장운영이 잘 되자 관광객이 찾고 있음
- 처음 액션플랜 실행 그룹에서는 이주가 힘드니, 한 달 살아보기를 해보고, 역 앞 빈집 고쳐 살다가, 나중에 2개 팀이 이주
- 이후 행정이 정책으로 추진, 2주간 거주하는 것이 가능, 출근 쇼핑 편의성, 부동산 등이 탐색시간을 가질 수 있음
- 이주 정책을 행정이 나서서 끌기 보다,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주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담소모임 등 활용)
- 액션그룹 중에 IT업 엔지니어+디자이너와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이 외부와 마나즈루를 연결(IT 이벤트 개최)

그림 4-14 마나즈루町의 지역활성화 구상과 대응구조



자료 : 真鶴町(2017), '小さなの大きな挑戦-自治体先進施策紹介', 현지조사 자료.

- 사람들의 이동 흐름이 생기고 나서 하드웨어를 정비,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하드웨어를 정비해야 함
- '미술관'을 웹에서 개설, 마나즈루에 실제 미술관이 1곳이지만, 가상 미술관은 일하는 사람들이 실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됨(2018년)
- 원격 근무 오피스로 마나즈루를 만들어 가는 중, 행정이 이끌어나가기 보다 '나즈루 위성오피스유치운영협의회'가 원격 근무 오피스를 운영 주체
-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어 회사가 결정하면 원스톱 처리가 가능
- IoT기업 1개 본사 이전, 7개 회사가 지사를 두고 사람이 이주(총 11명)

표 4-2 마나즈루町 '지역소멸 대응전략' 체계와 구조

기본목표	시책의 기본방침	세부시책
1. 일자리 만들기, 안심하는 이동을 가능하게 하자	(1) 기존산업의 활성화	①농업/수산업/석재업의진흥 ②신상품의 개발지원 ③브랜딩의 추진 ④상공업의진흥
	(2)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①위성오피스의 추진 ②취업/창업의 지원 ③새로운 움직의 개척 ④상공업의 진흥
2. 새로운 사람의 흐름을 만들자	(3) 새로운 사람의 흐름 창출	①이주/정주의 촉진 ②관계인구의창출
	(4) 마나즈루의 매력 향상	①관광시설 등의 정비 ②지역 내 미화의 추진
3.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양육에 희망을 이루자	(5) 젊은 세대로의 지원	①공원과 공터의 이/활용 ②어린이/양육 지원의 추진 ③청소년의 건전육성 추진
	(6) 마나즈루다운 교육 추진	①매력있는 학교교육 추진 ②자연/문화 친숙한 교육 추진
4. 시대부합 지역을 만들어 안심을 지키고 지역과 지역을 연계하자	(7) 시대에 부합한 지역만들기	①공공교통 충실 ②지역생활 서비스 충실 ③소방방재체제 강화
	(8) 연계에 의한 지역 만들기	①광역에 의한 연계 ②자치회 등과 연계

자료 : 真鶴町(2017), '小さなの大きな挑戦-自治体先進施策紹介', 현지조사 자료.

7. 도쿄도 분쿄구(文京区), 보이지 않는 빈곤을 보이지 않게 지원하다

□ 추진배경과 기본개요

○ 분쿄구의 '宅食프로젝트'는 빈곤 아동대책의 일환으로 '보이지 않는 빈곤을 보이지 않은 채로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음

○ 추진배경

- 선호하는 교육환경 때문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섞여 있으나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지역적 소득구조에서 어린이 결식의 문제가 사회화되고 있음[27]
- 지역 빈곤 가정 규모 약 830세대로 추산되는데 사회적 취약계층 대응 필요
- 어려운 사람을 드러내지 않고 지원하는 '생명을 잇는 어린이 집 식사 지원'

○ 실행재원

- 전국적으로 모은 고향납세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데, 5~6천만엔 수준
- 재원이 부족하여 기업의 지원을 받고, 쌀은 주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공

○ 식품배송

- 식품배송은 2달에 1회
- 배송자는 훈련을 받아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배송업무를 맡고 있음, 집안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시 조치도 취함

□ 운영방식과 주요특징

○ 주요특징

- 고향납세 재원을 토대로 빈곤 가정의 어린이에 식품을 지원하므로 예산을 의회의 예산 승인없이 추진할 수 있음
- 복잡한 과정, 필요시기 미집행 등 문제에 안정적 사업추진 가능하다는 장점

---

27 도쿄 분쿄구에서는 지역 내 저소득층이 자신의 수입 상태를 알리지 않으면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굶기는 등의 아동 학대가 빈번하다고 보고되고 있음

표 4-3 도쿄 분쿄구(文京区) 어린이 식품 배송 프로그램 '宅食'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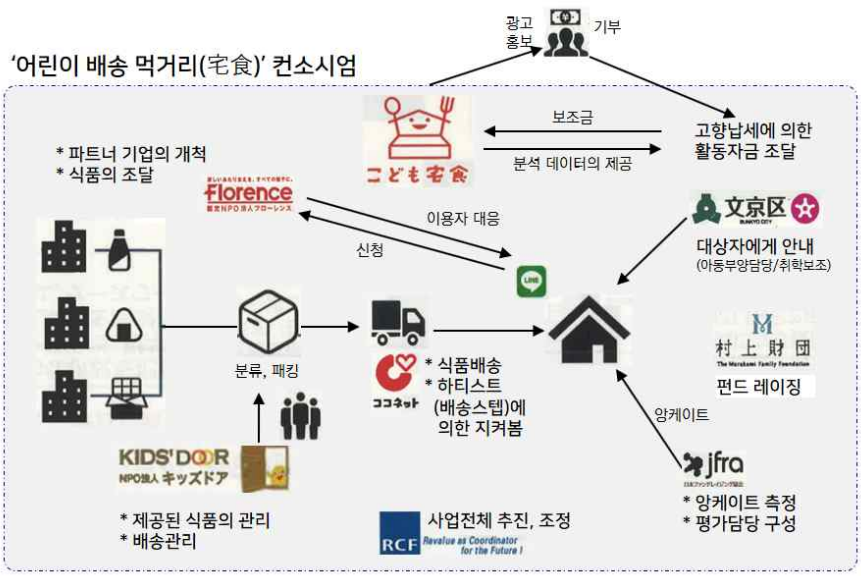
(1) 분쿄구가 협동하는 지역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필요하는 가정에 직접 이용안내
(2) 이용신청은 온라인으로 완결하게 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불편을 최대 경감
(3) 식품은 자택에 배달, 주위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게 보이지 않는 지원이 가능
(4) 정기적인 식품배달과 라인으로 접점을 가지면서 가정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냄
(5) 필요 서포트(지원)를 이어가면서 생길지 모르는 곤란한 상황에 이르지 않게 예방

자료 : 東京都 文京区(2023), '子どもの貧困対策について', 현지조사 자료에서 작성

○ 추진체계

- 어린이 식품지원 모든 내용을 행정이 다 할 수 없어 여러 NPO 단체 등과 협력하는 실행체계를 갖춤[28]

그림 4-15 도쿄 분쿄구(文京区) 어린이 식품 배송 프로그램 '宅食' 운영체계



자료 : 東京都 文京区(2023), '子どもの貧困対策について', 현지조사 자료에서 작성

28 일본의 어떤 지자체도 사회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데, 분쿄구 행정의 추진의지가 매우 높음

8. 일본 고향납세 주요 프로젝트[29]

□ **지역과제를 배워 지역의 미래를 찾다** (홋카이도 유바리시, 北海道 夕張市)

○ 유바리시(夕張市) 고등학교는 급속한 인구감소와 시정부의 재정 파탄[30] 이후 초등학교·중학교 통폐합 영향 등으로 입학 학생 감소문제에 대응하여 '유바리 고등학교 매력화 프로젝트'를 추진

○ 지역의 공공 교통 등 지역과제를 교재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주학습 서포트나 지역학습을 활용한 학교 내 공영학원(公營塾)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크라우드 펀딩형 고향세로 모집

○ 고향세 기부자에게눈 유바리 고등학생이 수행하는 도전과 노력의 진척 상황을 알리고, 공영학원(公營塾) 기획에 참가를 유도하여 관계인구 증가로 연결

그림 4-16 유바리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매력있는 농업학교(農高) 만들기** (홋카이도 엔벤츠정, 北海道 遠別町)

○ 지역에서 농업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 거점이 되는 곳이 '엔베츠 농업고등학교'이지만, 최근 입학자가 감소하고 있어 매력적인 농업고등학교 만들기 일환의 프로젝트를 추진

○ 논이나 밭의 상황을 관측하는데 농업분야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조사·연구

29 이 내용은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 소개된 사례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30 과도한 개발사업 추진으로 일본 최초 자치단체 파산 선언 후 국가 관리된 지역

를 새롭게 실행하기 위해 고향세를 모집

○ 고향세의 모금에 참여하는 기부자의 공감을 받기 위해 지역에서 위기에 직면하여 고등학교가 최첨단의 연구로 부활하는 스토리를 활용하여 홍보를 전개하여 지지와 공감대를 얻는데 노력

○ 고향납세 기부자에게는 프로젝트의 사업내용을 보고를 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참여 고등학생이 기부자에게 보내는 감사의 메시지가 전달됨

그림 4-17 엔베츠町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육아지원 내실화로 인구유입 지원** (홋카이도 카미시호로정, 北海道 上士幌町)

○ 카미시호로는 고향세를 활용하여 도시민을 지역으로 이주를 촉진하고 이주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돕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 중

○ 주요한 지원내용은 자녀의 육아와 교육의 기능을 강화하는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매진하는 것임

- ①육아 지원과 저출산 대책 중심으로 인가 어린이집 보육료 무료(10년간), ②영어교육 위한 외국인 강사 배치, ③초등학교 교직원 추가 배치로 소인원 학급운영 실현, ④공설(公設) 민영(民營)학원을 개설 등

○ 고향납세 기부자에게는 지역의 직업을 안내하고, 이주 체험하우스 등을 소개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체험 이벤트 등을 통해 기부자의 참

그림 4-18 카미시호로町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가를 지원

□ **국제교류사업과 제설除雪대행 서비스 제공 (아키타현 유자와시, 秋田県 湯沢市)**

○ 고향납세로 기부받은 재원을 통해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지원, 유자와시는 독일의 지크브루쿠시와 재매결연 교류도시인데, 이곳으로 중학생을 파견하고 교류비 등에 기부금을 충당하고 있음

○ 눈이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겨울철 폭설로 그대로 두면 주택 붕괴 등으로 이어질 위험에 처하므로 고령자 세대나 빈집의 지붕에 눈을 치우는 제설 서비스를 고향세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음

그림 4-19 유자와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새로운 생명 축하 마음 전달 프로젝트 (야마가타현 나가이시, 山形県 長井市)**

○ 나가이시는 아이가 태어난 세대에 육아용품 등을 담은 배이비 박스를 보내는 프로젝트를 고향납세를 활용해 추진하고 있음

○ 베이비 박스(baby box)사업은 아이를 출산한 세대에 육아용품 등을 담은 상자를 보내는 프로젝트

○ 프로젝트의 제안자는 지역부흥협력대 대원으로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을 지역의 기업 등에 대해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고향세 모집 활동을 하고

그림 4-20 나가이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그 재원으로 돌봄 서비스를 전달

□ **학생들의 희망을 실현하는 고향납세 프로젝트 (후쿠이현, 福井県)**

○ 후쿠이현은 고향납세를 재원으로 지역내 고등학생에 '①고향의 모교(母校) 응원사업, ②지역학생의 장기해외 유학지원' 등 2가지 사업을 추진

○ '고향모교 응원사업'은 고향의 고등학교의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학업에 필요한 연구활동비와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장기 해외유학지원'은 외국으로의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응원하여 세계에 활약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재정지원 제도를 설치

○ 고향납세의 기부자에게는 프로젝트 등 재원의 활용실적을 보고하고 학생의 감사편지, 해외 유학중인 학생의 생활과 성장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송부

그림 4-21 후쿠이県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지역자원 활용 하쿠바 高教 존속 프로젝트 (나가노현 하쿠바무라, 長野県 白馬村)**

○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폐교의 위기에 처한 하쿠바 무라(村)의 유일한 현립(県立) 하쿠바 고등학교를 존속하기 위해 고향납세 활용 프로젝트 추진

○ 하쿠바 고등학교에 학생들의 모집에 인기가 있는 '국제관광과'를 신설하고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뉴질랜드 유학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그림 4-22 하쿠바村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지역 내외의 기업자들로부터 재원을 모금하는 크라우드펀딩형 고향세를 모집하였으며, 사회인 강사를 지역 내외로부터 파견받는 지원하는 제도 창설

○ 고향납세의 기부자들에게는 유학을 다녀왔던 학생으로부터 리포트를 송부

□ **아이들에게 책 보내기 프로젝트** (교토부 나가오카쿄시, 京都府 長岡京市)

○ 유소년기에 책을 만지고 접하는 것은 표현력과 상상력을 배양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어린이들에게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중요

○ 아이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학교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영어책 등 다양한 책을 읽는 프로젝트를 고향납세를 통해 시행

○ 고향납세 기부자들에게는 기부하고자 하는 학교와 기증하고 싶은 책을 지정할 수 있고, 납세자들에게 아이들의 감사장과 독서 감상문 등을 정기 송부

그림 4-23 나가오카쿄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제도 원점에서 시작하는 어린이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돗토리현, 鳥取県)

○ 미래사회를 책임지는 아이들을 위해 고향납세를 활용하여 '어린이 미래기금'을 설치하여 아이들에게 도서를 증정하는 프로젝트를 전개

○ 고향납세를 활용하여 현립(県立) 학교 운동부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전문가를 외부 지도자로 초청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지원

그림 4-24 도토리県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2016년 10월 발생한 도토리현 중부 지진의 부흥을 위한 재원도 고향납세에서 사용하도록 모집

○ 고향납세 납부자들에게는 주요 사업의 정보지를 송부하고 감사장을 보냄

□ **공영학원 개설로 교육고장 부활 프로젝트** (오카야마현 와케정, 岡山県 和気町)

○ 와케정은 오래전부터 '교육의 고장'으로 명성이 높았는데, 교육고장을 부활하는 프로젝트를 고향납세를 활용하여 추진

○ 교육의 고장을 실현하기 위해 '공영학원' 설치, 방과후 학습지원, 영어능통 인재육성 등 프로젝트를 '1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개시하고 있음

○ 프로젝트의 운영 비용은 크라우드펀딩형 고향납세로 모집하였고, 토요일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은 초등학생 5~6학년까지 포함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월 1회 유치원~초등학교 4학년까지를 대상으로 '공영학원 키즈(KIDS)'를 개최하여 고향납세 기부자에게 지역의 지원 프로젝트 활동 상황을 알림

그림 4-25 와케町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이동 도서관 차량 부활 프로젝트** (도쿠시마현 이시이정, 徳島県 石井町)

○ 이시이 정에서는 이동 도서관 차량으로 지역의 유치원·보육원에 그림책·종이연극 등을 읽어주는 활동을 전개해 왔는데, 차량이 노후화되자 프로그램을 폐지하게 됨

○ 공공의 이동 도서관 차량이 폐차되고 프로그램이 중단되자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자원봉사단체의 활동가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 '이동 도서관 차량'을 공공에서 부활해줄 것을 요구해 왔음

○ 이에 지역사회의 이동 도서관 차량 운영에 필요한 경비(신차구입)를 위해 고향납세를 모집하였고, 차량을 구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주요한 활동정보를 제공

그림 4-26 이시이町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낙도 핸디캡 극복을 위한 ICT 교육 추진 (나가사키현 고토시, 長崎県 五島市)

○ 고토시에는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8개교, 병설학교 3개교가 있으나, 5학급 미만의 복식학급이 많아 교육의 질에 한계가 지적되어 옴

○ 낙도라는 조건의 섬 아이들이 다른 학교과 지역의 사람들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해 ICT 환경을 정비하는 프로젝트를 고향납세를 활용해 추진

○ 인터넷을 활용하여 비디오가 제공되는 화상통화,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기반 시설 등을 갖춤

○ 고향납세 기부자에게 감사의 영상 메시지를 제작하여 동영상 사이트와 홈페이지 등에 공개

그림 4-27 고토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미래 책임질 국제 청년 육성 프로젝트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沖縄県 宜野湾市)

○ 기노완 시는 주일 미군 기지의 반환 후에 유적지 이용에 관해 국제적 시야를 갖고 활약할 인재육성 위한 사업을 추진

○ 외국으로의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자기 부담없이 유학을 지원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형 고향납세를 모집

○ 고향납세 기부자에게 학생이 유학하는 곳에서의 체험이나 연수 등의 모습이 담긴 보고서와 감사장을 송부

그림 4-28 기완노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주민자치 지역만들기 외지 참가 활동 (홋카이도 니세코정, 北海道 ニセコ町)

○ 지역만들기에 공감하거나 고향으로의 기대와 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지역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

○ 고향납세를 활용하여 목제(木製) 완구를 정비하거나 '아리시마다케로(有島武郎)' 자필 서한을 수집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을 실시

○ 주민자치의 지역만들기 추진의 관점에서 '니세코町 고향만들기위원회'에서 의견를 청취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

○ 고향납세 기부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소식을 보내고 지역의 최신정보 알림

그림 4-29 니세코町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문화·스포츠 활성화로 도시활력 프로젝트 (군마현 다카사키시, 群馬県 高崎市)

○ 다카사키시는 지역만들기의 큰 전략을 실천하고 있는데, 문화·스포츠가 지역만들기의 기반(1층)이 되게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고향납세로 추진

○ 문화와 스포츠의 단체와 사람은 시의 지역진흥에 커다란 공헌을 하는 주체

○ 교향악단을 포함하여 지역 야구팀, 기업 소프트볼부, 육상부 등 문화·스포츠 단체 활동을 고향납세를 재원으로 지원

○ 고향납세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기부할 단체를 특정하여 지원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활동 상황을 기부자에게 알림

그림 4-30 다카사키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사용처 공감 12개 기금 조성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神奈川県 横須賀市)

○ 요코스카시에는 조례에 양육·복지 등에 관계된 12개 기금을 설치하여 고향납세에서 선택된 사용처 사업에 각각 충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듦

○ 예를 들어 기금의 하나로 '아이양육기금'을 통해 아이 낳아 기르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아이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움이(헬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 고향납세 기부자들에게는 각각 기금의 사용내용을 사진 등을 통해 알리고 활용 상황을 보고

그림 4-31 요코스카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전국 핸드볼 선수권 대회 존속 프로젝트 (도야마현 히미시, 富山県 氷見市)

○ 히미시의 초·중학교 핸드볼팀은 전국 대회 우승 등 핸드볼이 우수한 도시로

명성을 가짐, ‘05년~ ‘춘계 전국 중학생 핸드볼 선수권 대회’ 개최

○ 춘계 전국 핸드볼 선수권 대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방식의 고향납세를 시행

○ 고향납세 기부자들에게는 핸드볼 대회 프로그램이나 대회 결승전 티켓을 제공하여 대회기간 중 히미시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그림 4-32 히미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고향 활력 (후쿠이현 사카이시, 福井県 坂井市)**

○ 사카이시는 기부금의 사용방도를 중시하는 대책을 위해 ‘기부시민참여제도’를 ’08년부터 실시 (기부에 의한 시민참가 조례의 제정)

○ 시민대표가 참여하여 고향납세를 활용하여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의견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시민의 정책참가가 가능 (NPO단체, 기업, 고교생 등 폭넓은 세대와 입장이 반영)

○ 고향납세의 모집에 있어 이러저러한 사용사업의 필요한 목표를 설정하고 고냥납세가 목표액에 도달하는 단계에 사업화가 결정되는 구조

○ 사업목표가 달성된 사업은 포털 사이트에 보고하고 기부자에 대해 과거 10년간 사업보고서 송부 및 기부금 활용을 보고할 예정

그림 4-33 사카이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마음 편해지는 고향, 지역을 가깝게 사업** (나가노현 이이다시, 長野県 飯田市)

○ 이이다시는 자치기본조례에 근거해 시내 20개 모든 지역자치를 담당할 '지역만들기위원회'를 조직하고 시민과 행정이 협동으로 지역만들기를 추진

○ 각 지구가 자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지구의 활동을 직접 응원하기 위해 '이이다시 20지역 응원대'를 개최

○ 각 지역(지구)가 하는 사업과 활동을 웹에 발신하고 각 지역의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에게 사업비를 교부하는 방식, 주민주체의 지역만들기 시책 도모

○ 고향납세의 기부자들에게는 소식지나 초대장 등을 통해 관계인구의 확대, 이주의 촉진 등을 도모

그림 4-34 이이다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살아나는 후나카미산船上山 만송이 벚꽃 활동** (돗토리현 고토우라정, 鳥取県 琴浦町)

○ 후나카미산(船上山) 일대는 '후미카와산 만송이 벚꽃 공원'으로 불리는 사쿠라 축제가 열리는 사쿠라 명소

○ 근년 집중 호우로 벚나무의 규모가 줄어 들어 벚나무의 부활을 위한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 고향납세를 활용하여 후나카미산을 벚꽃의 명소로 부활시켜 관광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 '14년도부터 130그루의 벚나무를 심음

○ 벚나무 심는 날 참가자 전원 식사대접 등 고향세를 계기로 하나가 되는 마을 만들기에 동참

○ 고향세 기부납세자에게는 사쿠라 축제 개최 안내를 보내고 있으며 관광객도 증가

그림 4-35 고토우라町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협동에 의한 지역만들기로 지역과제 해결 프로젝트 (사가현, 佐賀県)**

○ 지역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과 다양한 주체의 협동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고향납세를 사용한 NPO법인 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

○ 당뇨병 근절과 건강 관련사업으로 고령자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향납세를 재원으로 조성·활용(연구자금 조성·계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고향세로 모집)

○ 겐카이(玄海)지구 수산업 진흥 지원하는 사업으로 낚시체험, 생선해체, 절임생선 만들기 교실 등을 개최하여 고향납세 기부자 등과의 교류도 추진

그림 4-36 사가현県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마라톤 대회로 교류인구 확대 프로젝트 (가고시마현 요론정, 鹿児島県 与論町)**

○ 요론町은 27회째 요론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여, 재참여자(리피터)도 많은 대회로 전국에서 1천여명이 참여, 현민은 자원봉사자로 참여 지역의 중요 행사로 발전

○ 마라톤 대회 운영 경비를 고향납세로 충당하고, 섬의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해안 청소용 쓰레기 봉투 등의 비용으로도 사용

○ 고향납세 기부자들에게는 요론정의 가이드맵과 홍보지 등을 동봉하여 발송

하는 등 보고

그림 4-37 요론町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문화예술을 활용한 매력있는 지역만들기** (오사카부 히라카타시, 大阪府 枚方市)

○ 인구 40만명의 시로 시민이 뛰어난 문화예술 접할 기회를 충족하기 위해 문화예술 활동 발신거점인 (가칭)종합문화예술센터 정비와 시장 에스코트 시내 문화재 견학투어를 실시

○ 종합문화예술센터(가칭)를 정비하는 재원으로 고향납세를 모집하여 문화예술을 살린 매력적인 지역만들기를 추진

○ '시내의 문화재 견학 투어'는 시장이 직접 안내한다는 상징성으로 사회적으로 주목을 끌었고, 문화재에 대한 애착과 관계인구의 증가로 연결될 기대

○ 고향납세 기부자들의 지역 문화재 견학투어에 참여하게 하여 지역 상황을 이해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높은 만족도 보임

그림 4-38 히라카타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기부자 참여 히로사키성城 수리 프로젝트**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 青森県 弘前市)

○ 고향납세를 활용하여 지역의 중요 문화재인 히로사키 성 수리비용과 석단 수리비용을 모집

○ 고향세 납부자에게만 제공하는 체험으로 히로사키성 석단 수리 체험 이벤

트 실시

○ 체험 이벤트를 통해 교류인구가 증가하고 경제적인 효과나 미래에 지역으로 이주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의 효과를 기대

○ 고향납세 기부자들에게는 석단수리 및 히로사키 2대 축제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알리고 연결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

그림 4-39 히로사키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국가문화재 지정 축하 배(船) 축제** (이바라키현 기타이바라키시, 茨城県 北茨城市)

○ '히타치오쓰 배船 축제'는 5년에 1번 기타이바라키시에서 열리는 봄 축제

○ '17년은 통상적인 규모의 축제가 아니나 국가 중요무형민속문재로 지정을 기념하여 임시 개최

○ 매회 축제 시마다 도로에 목재를 깔고 배를 끌기 때문에 배가 상처를 입어 수선 비용이 많이 들어 고향세를 모집

○ 고향납세 기부자에게 적극 축제 참가 권하고, 축제는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데 기여

그림 4-40 기타이바라키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전통과 자부심 잇는 지역만들기** (도치기현 나스카라스야마시, 栃木県 那須烏山市)

○ 나스카라스야마시에는 매년 7월 일본 제1의 이동식 야외극인 4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야마아게 축제(山あげ祭)'를 개최

○ 그 축제의 핵심이 되는 '鳥山野山あげ행사'는 '16년에 전국 32개 행사와 함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되어 향후 활동이 기대

○ 고향납세를 재원으로 '야마아게 축제(山あげ祭)'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계획, 고향납세의 일부를 '鳥山野山あげ保存會'를 조성하여 전통예능과 지역문화의 전승을 담당할 담당자를 지원

○ 고향납세 기부자들에게는 답례장을 보낼 때 축제 팸플릿 등 동봉해서 보냄

그림 4-41 나스카라스야마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와지마 칠기 구마모토 도기 재생 프로젝트 (이시카와현 와지마시, 石川県 輪島市)**

○ 지진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물건만들기'를 통한 '사람'의 교류를 목적으로 추진

○ 구마모토 지진으로 깨진 도기 파편과 와지마누리 칠기를 같이 섞어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는 '피해 도기 재생 프로젝트'를 실시

○ 과거 지진 피해를 입은 와지마市와 구마모토현의 도예가와 예술인을 연결하는 성격을 가짐

○ 제작비용, 전시회, 차담회 등 비용을 고향납세로 모집, 기부자에게 도기 수복작업 체험 등을 제공

그림 4-42 와지마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마쓰시로성城 복원·도가쿠시 거리·전통 지키기 (나가노현 나가노시, 長野県 長野市)**

○ 마쓰시로성城은 국가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선정, 도가쿠시 신사 몬젠마치의 경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

○ 고향납세를 이용해 마쓰시로성城을 복원하고 몬젠마치의 전통 거리를 지키는 프로젝트를 추진

○ 주택 등의 수리와 전통적 공예품 '도가쿠시 죽공예' 기술을 이어갈 인재육성 등에 활용

○ 기부자에게 마쓰시로성 비공개 부분을 특별 안내하고, 도가쿠시 죽공예 숲 보전 활동 체험회 등에 초대

그림 4-43 나가노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백조 춤 합동공연 이벤트 실현 프로젝트 (기후현 구조시, 岐阜県 郡上市)**

○ 400년 이상이 된 국가 중요 무형 민속문화재인 '郡上おどり, 白鳥の拝殿 通り, 白鳥おどり(백조춤)' 등 3대 행사를 유지해온 일본의 중요한 지역

○ 2017년 일본의 3대 盆通り를 초대하여 공연 이벤트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고향세로 모집

○ 이벤트의 참여, 지역의 전통문화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 후계자 사람

그림 4-44 구조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의 증가 등을 목적

○ 고향납세 기부자에게는 활용실적 보고서와 지역의 관광 팜플렛 등을 송부

□ **가리야성城 복원 역사·낭만 지역만들기** (아이치현 가리야시, 愛知県 刈谷市)

○ 가리야성은 가리야 시민의 상징으로 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가리야성의 복원과 역사 박물관의 정비를 위해 고향세 모집

○ 고향납세를 활용하여 지역 내외의 사업을 알리고 전국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를 전해 들음, 역사박물관 등의 정비는 순조롭게 진행

○ 고향납세 기부자등에게 가리야성 복원과 역사박물관 정비를 완료한 이후 기념 이벤트 개최 등 안내

그림 4-45 가리야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奈良県 王寺町(聖徳太子ゆかりの文化財「達磨寺方丈」修理プロジェクト) 島根県 江津市(地域における伝統芸能、文化の伝承)

□ **평화의 생각을 공유하는 지역실현 활동**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広島県 広島市)

○ 평화의 추진 등을 목적으로 고향세를 활용하여 '히로시마시 원폭돔 보존사업 등 기금'에 적립하여 원폭돔 보존 사업과 피폭 나무 등의 보전에 사용

○ 원폭 등의 피해 자료 보존을 계승하여 피폭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내외 청소년 초대 등에 사용

그림 4-46 히로시마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평화기념자료관 도록, 평화기념 공원 헌정 종이학 재생 명함, 메모장, 엽서 등을 고향납세 기부자에게 송부

□ 나무의 온기로 연결하는 지역만들기 (기후현 다카야마시, 岐阜県 高山市)

○ 에도시대부터 성의 모습을 유지한 관광 도시이면서 90% 이상을 산림으로 목재를 비롯한 가구나 전통 공예품 등 '히다의 장인' 기술이 전승되고 있음

○ 지역 특징인 전통·자연 활용 지역만들기를 위해 전통 공예품 산업의 후계자를 육성·지원, 숲(乗鞍山麓五色ヶ原 の森) 정비를 위해 고향납세를 활용

○ 고향납세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사용용도를 알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

그림 4-47 다카야마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타이거 마스크 운동 지원 (군마현 마에바시시, 群馬県 前橋市)

○ 아동 보육시설(만18세 미만)을 퇴소한 이후 사회과제가 되는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타이거마스크 운동)에 고향납세를 활용

○ 새로운 생활 준비금(15만엔) 지급,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득 본인 부담액 지원(지역교습소 관민 연계)

○ 고향납세 기부자에게 팸플릿을 보내 사업의 의의와 지원을 받은 아이들의

그림 4-48 마에바시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메시지를 소개

□ **생명을 잇는 어린이 먹거리 배달 지원 (도쿄도 분쿄구, 東京都 文京区)**

○ 도쿄 분쿄구는 대학이 가장 많고 할력수준이 높은 지역이지만, 학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보이지 않는 곳에 다수 나타남에 주목

○ 지역 내 어린이가 있는 생활 곤란 세대에 대해 크라우드 펀딩형 고향납세를 모집

○ NPO단체와 공동의 사업 추진체계를 갖추고, 생활이 어려운 집 어린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식품을 배달하여 어린이 빈곤 퇴치에 노력

○ 사업의 진척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과 동시에 공표에 동의한 기부자의 성명을 공개

그림 4-49 분쿄区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타고가자' 과소지역 교통 수단 확보 지원 (미에현 구마노시, 三重県 熊野市)**

○ 과소화·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고령자의 통원이나 장보기 등 교통수단 확보가 중요한 과제이자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 고령자의 교통수단 확보 어려움에 NPO '타고가자(のってこらい)'를 결성하여 자가용 운송사업을 통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 교통 약자들에게 더 넓은 범위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높아져(지역적 서비스 공급 확대 등) 고향납세를 통해 새로운 차량을 구입

○ 기부자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운행 상황을 공개, 전국의 지원이 구마노시에 도움이 됨을 어필

그림 4-50 구마노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소아 근전 의수(義手) 뱅크 설립 (효고현, 兵庫県)**

○ 고가인 근전 의수(1개 약150만엔), 소아는 성장으로 의수 교환이 필요

○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훈련용 의수를 대여하는 소아 근전의수 은행(뱅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한 고향납세 모집

○ 고향납세 기부자에게 훈련용 의수의 대여 실적과 대여 받은 가족의 메시지, 소아 의수착용 훈련 모습 등을 공개를 제공하고 공유

그림 4-51 효고県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지역홍보+방문 서비스로 건강한 지역 조성 (아오모리현 무쓰시, 青森県 むつ市)**

○ 교류인구 증가, 지역매력 홍보를 위해 '시모키타 지오파크(下北ジオパク)' 홍보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고향세로 모집

○ 계속 늘어나고 있는 독거 고령자에게 우체국과 연계하여 '미마모리 방문 서비스'를 기부자에게 제공

○ '미마모리 방문 서비스'는 우체국 직원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인척을 월 1회 정도 방문 고령자 건강·식사·생활 어려움(10항목)에 대해 기부자에게 정기적으로 알리는 시스템

그림 4-52 무쓰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동일본 대지진 극복을 위한 철도 활성화 (이와테현, 岩手県)**

○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를 극복을 위해 산리쿠철도와 럭비월드컵('19년) 계기로 관광객 수용에 필요한 기반정비 사업 등을 고향납세를 모집하여 사용

○ 노후화된 레일, 터널, 철교 등을 보수하고, 각종 기획열차 조성 등에 고향납세 재원을 활용

○ 고향납세 기부자들에게는 산리쿠철도 소식지 정기 발송, 산테츠 오너즈 클럽 회원증 발급, 희망자에게 역 안에 성명 게시 등 산리쿠 해안지역을 연결하여 교류 확대 등을 도모

그림 4-53 이와테県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전국식탁에 전복·소라 전달 프로젝트 (치바현 미나미보소시, 千葉県 南房総市)**

○ 어획고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지역에서는 '만들기 기르는 어업'을 추진하기 위해 어업협동조합을 조성하여 각종 방류사업 등을 추진해 왔음

○ 충실히 시행해온 전복·소라 방류사업을 내실화해 전국 식탁(소비자)에 지역 바다에서 잡힌 전복·소라를 제공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형 고향세 모집

○ 고향납세 기부자들에게는 치패(稚貝,어린전복)를 육성하는 시설 견학 등에 초대

그림 4-54 미나미보소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기업판 고향납세 제휴 젊은이 유턴 지원 (도야마현 다테야마정, 富山県 立山町)

○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 이후 젊은이들의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장학금상환기금보조금(奨學金返済應援補助金)' 제도를 설립하여 졸업 이후 지역에 사는 경우 교육대출이나 장학금의 상환액 일부를 최장 10년 보조하고 있음

○ 이 보조금의 재원을 고향납세로 모집하여 지역에 사는 경우 교육대출, 장학금 반환 일부를 보조하는 보조금 재원으로 활용

○ 고향납세 기부자에게 이용 상황 제공, '다테야마 서포터 클럽'을 창설, 가입 기부자에게 메일 매거진 전송 등 시행

그림 4-55 다테야마町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소멸직전 지역' 水源の里 건강하게 프로젝트 (교토부 아야베시, 京都府 綾部市)

○ 아야베시는 과소화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수이겐노사토水源の里'(과소·고령화로 소멸위기 직면 시정촌)로 분류된 지역으로 지역활력이 중요과제

○ 지역과 마을 활성화를 위해 고향납세를 모집하여 고향에서 개발한 특산품 홍보, 생산확대, 신상품 개발 등에 필요한 비품구입, 판매거점 정비 등 비용에 충당

○ 고향납세의 기부자에게 활동보고를 보내 계속적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노력

그림 4-56 아야베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IT를 활용한 창업(스타트업) 지원 프로젝트 (효고현 고베시, 兵庫県 神戸市)**

○ 고베시는 기업하기 쉬운·좋은 지역을 실현하기 위해 IT활용 국내외 기업가의 지원 대책을 추진해왔음

○ 스타트업 오피스 사업은 선발된 창업가에게 자금조달 목적으로 투자자 대상 성과 발표회 개최와 발표를 위한 비즈니스 플랜 책정지도를 실시하고 창업가에게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형으로 고향납세를 모집하여 창업비용 일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고향납세 모집은 기부자가 공감 기업가 사업에 특정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를 사업보고 이벤트에 초대

그림 4-57 고베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만화 주인공 노노짱 매력 전개 프로젝트 (오카야마현 다마노시, 岡山県 玉野市)**

○ 다마노市 출신의 만화가 이시이히사이치 씨의 만화 주인공 '노노짱'을 다마노시를 대표하는 이미지 캐릭터로 삼고자 함

○ '노노짱'의 전국적 홍보와 알림 활동을 위해 고향납세를 모집하여 재원으로

활용

○ 고향납세 기부자등에게는 재원의 사용내역 등 활동을 보고하고, 노노짱 인형 완성 발표회 등에 초대

그림 4-58 다마노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테크놀로지×아트로 젊은이 현지 정착 지원** (야마구치현 우베시, 山口県 宇部市)

○ 젊은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유출을 막기 위해 고향의 매력을 테크놀로지&아트 등을 통해 알리는 노력을 함

○ 야마구치대학 공학부와 우베고등전문학교를 연계하여 세계적 전문가 등을 강사로 초청, '테크놀로지&아트' 챌린지 강좌를 진행하고 그 비용으로 고향납세를 활용

○ 고향납세 기부자들에게는 보고서를 보내고, 도키와 공원에서 개최되는 디지털 아트 작품 발표 이벤트 초대권 등을 제공

그림 4-59 우베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古民家 활용 카페 사람+사람 연결 프로젝트** (에히메현 세이요시, 愛媛県 西予市)

○ 사내 중심부의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의 고민가를 Cafe&Bar로 오픈하여 운영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장으로 활용하여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간으로 활용

○ 지역부흥협력대 대원의 창업 지원을 통해 창업과 관련된 경비를 크라우드 펀딩형 고향세로 모집

○ 모집에 있어 지역 활성화와 창업 등에 대한 이미지 등을 제작하여 다양한 보고기관에 홍보하고 많은 공감대를 얻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그림 4-60 세이요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폐교, 사람이 모이는 거점 만들기 프로젝트** (후쿠시마현 쇼와촌, 福島県 昭和村)

○ 1937년 건축된 목조 건물인 초등학교는 1980년 폐교 후 몇 번의 해체 위기에 처했음

○ 새롭게 옛 정신을 이어받는 '배움의 장'으로 재탄생 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주민과 사람들이 만나고 교류하는 장으로 보수

○ 지역의 새로운 '관광 스폿'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 비용은 크라우드펀딩형 고향세로 모집, 기부자들에게는 추진 상황 등을 보고

그림 4-61 쇼와村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전통 물고기 잡는 법 미래 연결 프로젝트** (아이치현 이누야마시, 愛知県 犬山市)

○ 아이치현과 기후현의 경계가 되는 강은 1300년 이전부터 행해져 왔던 전통적인 고대의 물고기 잡법 방법(어법, 漁法)인 '우카이' 방법이 전해지고 있음

○ 전통 물고기 잡는 방법인 '우카이(사다새를 사용하여 은어 등을 잡는 전통

적 어법)' 어법을 보존하기 위하여 고향세를 활용

○ 역사적으로 오래된 우카이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공감하는 사람들로부터 기부를 모음

그림 4-62 이누야마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역사가 있는 기차역사 재생 활기 창출 프로젝트 (시가현 히노정, 滋賀県 日野町)**

○ 大正5年 건축되어 현존하는 몇 안되는 목조 기차역인 '히노역'을 재생하는 프로젝트를 '16년 시작

○ '히노역'의 재생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원을 크라우드 펀딩형 고향세로 조달하여 공사하여 '17년 준공

○ 고향납세 기부자에게 '재생'이하는 프로젝트의 주인으로 초대하고, 기부자 포함 2천여명 이상이 이벤트에 참가

그림 4-63 히노町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성지순례 유구한 자연 지키기 프로젝트 (와카야마현 다나베시, 和歌山県 田辺市)**

○ 다나베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오래된 길을 가진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

○ 성지순례를 위한 공중 화장실 정비,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다국어 안내 간판 설치 등 사업에 고향세를 활용

○ 성지순례 등의 길과 관련하여 산림이나 옛길 환경을 정비하고, 기부자에게 관광 팜플렛 등 정보 제공

그림 4-64 다나베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고향 애착 사람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돗토리현 히노정, 鳥取県 日野町)**

○ 히노정은 재정여건이 열악해도 지역을 활기차게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과 관련된 테마로 '주민 뮤지컬'을 개최하고 개최 비용과 어린이 도서 구입 비용으로 고향세를 활용

○ 고향납세 기부자에게 지역 행사 홍보 안내지와 고향 주민표(퍼블릭코멘트 참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 190명이 등록) 신청서 제공

그림 4-65 히노町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인터내셔널 쉐어하우스 개업 프로젝트 (오카야마현 마니와시, 岡山県 真庭市)**

○ 지역부흥협력대가 중심이 되는 빈집을 활용하고,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세계로 정보를 발신하는 장으로서 인터내셔널 쉐어하우스를 개설

○ 개설비용, 시골 생활체험을 원하는 외국인의 거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자금으로 크라우드 펀딩형 고향세를 모집

○ 주민과 시외 자원봉사자가 잔디깎이, 청소, 도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도우면서, 고향납세 기부자는 오프닝 행사에 초대

그림 4-66 마니와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학교존속 위한 지역일체 이주촉진 프로젝트 (고치현 무로토시, 高知県 室戸市)**

○ 무로토시의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中川内 초등학교 학교 구역에는 인구감소로 폐교위기 처함

○ 초등학교를 존속시키기 위해 육아 세대의 이주촉진 홍보를 실시하고, 교직원 주택을 개조하여 이주체험 주택으로 제공하며, 그 비용으로 고향세 모집

○ 사업내용에 대하여 SNS를 통해 내용과 의미를 홍보하고 기부자에게 아이들이 제작한 죽공예와 편지를 보내어 관계를 유지

그림 4-67 무로토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일본 시골을 느낄 게스트하우스 프로젝트 (고치현 오치정, 高知県 越知町)**

○ 오치정은 관광자원 등이 풍부하지만 숙박시설 등이 부족하여 교류자들이 당일치기로 다녀가는 상황

○ 지역부흥협력대 대원이 중심이 되어 오래된 일본 시골을 컨셉으로 하는 게스트하우스를 개설

○ 시골 컨셉의 게스트하우스 조성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형 고향세를 모집

○ 고향납세 기부자들에게 게스트하우스의 이미지와 시설 등의 사진 등 제시

그림 4-68 오치町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세계문화유산 탄광 세계 홍보 프로젝트 (후쿠오카현 오무타시, 福岡県 大牟田市)**

○ '15년 미이케 탄광이 세계문화유산 등록 계기로 탄광 전차의 이동전시를 결정하고 그 비용을 크라우드펀딩형 고향세로 모집

○ 고향납세 기부자에게 미케이 탄광을 실제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는 티켓을 전송(탄광전차 운전석 견학이 가능한 티켓)하고, 기부자 이름이 들어 있는 기념판을 침목으로 설치

그림 4-69 오무타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습지+생태계 보전 대응 프로젝트 (아이치현 오와리아사히시, 愛知県 尾張旭市)**

○ 오와리아사히시 북부에는 다양한 식생이 살아 있는 습지가 있고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

○ 습지 산책로로 정비된 목재로 된 길이 설치한지 20년 이상이 경과되어 훼손이 심해 재정비가 필요한데, 고향세를 활용하여 보수

○ 대피소에 고향납세에 의해 재정비되었음을 표시하여 알리고 홈페이지에도 상황을 보고

○ 고향납세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14개 사용용도, 구체적 사업내용 필요금액)

그림 4-70 오와리아사히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이코마산 삼림과 주민생업 지키기 프로젝트 (나라현 이코마시, 奈良県 生駒市)**

○ 이코마시의 산림에는 벌채를 통해 나라가레(ナラ枯れ,시들음병)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 산림피해 방지, 산림유지 보호,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멧돼지 등)을 포획하는데 데 고향세를 활용하는 프로젝트

○ 고향납세 기부자에게는 기부실적과 사용내용등 을 보고하고 지역의 관광가이드북을 송부

그림 4-71 이코마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아름다운 산호초 바다 지키는 프로젝트 (오키나와현 요미탄촌, 沖縄県 読谷村)**

○ 총 연장 길이 14km에 달하는 자연해변이 있는 요미탄촌의 해변을 보호하는 프로젝트

○ 생태계를 배려하는 산호를 이식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고향세로 활용

○ 지역의 다이버가 산호를 이식하고 기부자 이름을 플레이트와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바다로부터 감사장'을 기부자에게 보냄

그림 4-72 요미탄村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생명을 지키는 재해구조견 테라피견 키움 프로젝트 (도쿠시마현, 德島県)**

○ 도쿠시마현에는 동물애호관리센터가 있고 재해로부터 인명을 구조하는 재해구조견, 테라피견, 상호교감 활동견' 등 육성을 현내의 훈련소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음

○ 사회적으로 필요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여러 형태의 개를 훈련시키는 비용을 고향세로 활용

○ '재해에 대비한 준비, 동물애호 추진'이라는 좋은 의도로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을 받았으며, 개들의 활동을 홈페이지 등으로 적극적으로 제공

그림 4-73 도쿠시마県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안전·안심 지역만들기 프로젝트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福岡県 福岡市)**

○ '후쿠오카시 소방구급기금'을 설치, 소방 구급차 등 정비나 구급차에서 사용하는 수액, 기도를 확보하는 장비 등의 구입 비용으로 고향세를 모집

○ '16년 구마모토 지진, '17년 규슈북부 호우 시에 고향세를 활용하여 피해지역의 소방지원 활동에 기여

○ 고향납세의 기부자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후쿠오카시의 관광 팜플렛 송부

그림 4-74 후쿠오카市 고향납세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에서 작성

□ 일본 고향납세 프로젝트, 요약과 시사점

○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체적 입장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대응방향을 설정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핵심 문제를 지역(광역+기초+소지역) 입장에서 정의하고,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주요내용을 구상

○ 지원대상에 맞게 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컨텐츠를 개발

- 지역사회 문제에 기반 대응활동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프로그램 마련, 단일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는 복합적 프로그램 결합
- (지원대상) 폐교 위기 고교, 이주자 유치, 청소년 지원, 고령자 돌봄, 출산자 지원, 고등학생·어린이 응원, 초등생 지원, 유치원과 보육원 어린이, 낙도 어린이, 지역 청소년, 스포츠, 문활활동, 양육·복지, 핸드볼 대회, 포괄적 시진, 마을만들기, 벚나무, 고령자, 수산업, 마라톤 대회, 문화예술 활동, 성곽 복원, 어선제, 지역축제 유지, 도기·칠기, 죽공예, 백조 춤, 평화, 숲, 보육시설 퇴소자, 어린이 식사, 이동수단, 어린이 의수, 지오파크, 고령자 생활돌봄, 철도 활성화, 전복·소라, 청년 장학금, 특산품 개발, 판매거점 정비, 기업 오피스 제공, 만화 주인공 응원, 기술 아트, 대학+고교 연결, 고민가 활용, 폐교 활용, 전통 어법 보존, 기차역사 보존, 성지순례길, 주민 뮤지컬, 쉐어하우스, 폐교위기 학교, 이주자 거주시설, 농촌 게스트 하우스, 탄광 홍보, 습지 보전, 삼림 유지, 위해짐승 피해 방지, 산호초 바다 지키기, 테라피견 키움, 소방구급 등

○ 고향납세 실행 프로젝트의 운영주체를 고려하여 추진체계를 검토하고 마련

- 고향납세 재원을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실행해 나갈 주체를 정하고, 실행 주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류와 관계가 이뤄지는 구조

○ 지역사회·지역주민과 고향납세 기부자를 상시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전제

- 프로젝트 외부 기부 유치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재원 모금,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 참여하거나 운영결과를 공유·전달체계 마련

□ (참고) 일본 고향납세 모집 시 용도 선택 현황

○ 고향납세 모집 할 때 용도(고향납세를 재원으로 하여 실시하는 사업 등)의 선택 여부

○ 선택할 수 있다 1,746개 지자체(97.7%), 선택할 수 없다 42개 지자체(2.3%)

○ '선택할 수 있다'고 응답한 지자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 1,698개 지자체(95.0%)
- 구체적인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 460개 지자체(25.7%)
- 그 중 크라우드 펀딩형[31] : 318개 지자체(17.8%)

표 4-4 일본 고향납세 용도 분야의 구체적 내용

분야	지자체 수	비율	분야	지자체 수	비율
건강·의료·복지	1,443	80.7%	체육·문화 진흥	1,169	65.4%
교육·인재 양성	1,419	79.4%	지역활성화·시민 활동	1,144	64.0%
어린이·육아	1,383	77.3%	관광·교류·정주 촉진	1,088	60.9%
지역·산업진흥	1,314	73.5%	안심·안전·방재	859	48.0%
환경·위생	1,233	68.9%	재해 지원·부흥	300	16.8%

日本 總務省(2023), '過疎對策について', 현지조사 자료.

31 '크라우드 펀딩형' 고향납세 : 목표금액, 모집기간 등을 정하는 특정 사업에 고향납세를 모집하는 방식

9. 지방소멸 대응재원, 기획사례(완주군)

□ 고향사랑기부금 대응방향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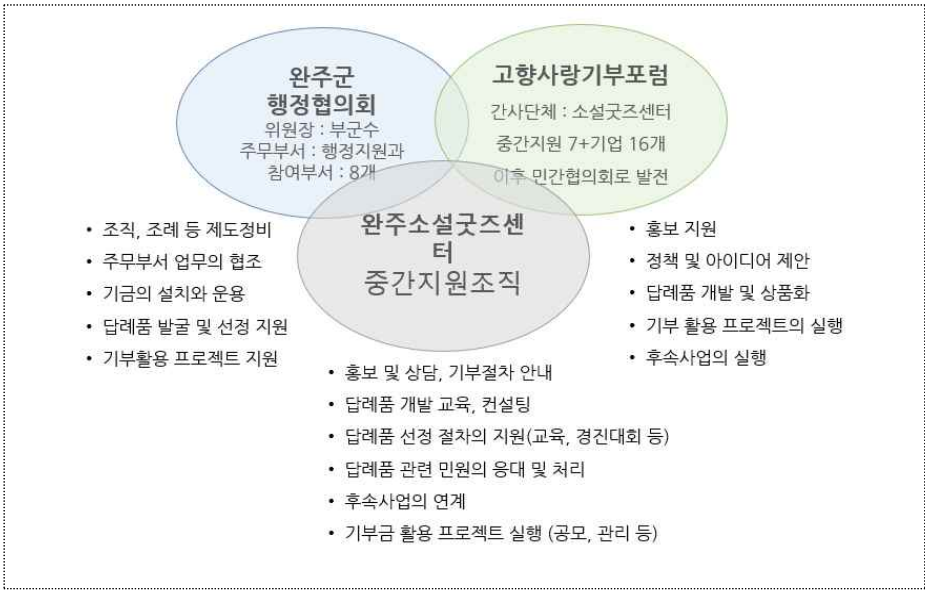
○ ‘22년 4월 전문가의 제안을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앞두고 지역 차원의 준비를 시작, 사회적경제 중심 민관협력방식의 추진체계를 구축함

○ 행정에는 ‘행정협의회’를 갖추고, 민간에는 ‘고향사랑기부포럼’을 조직함

○ 민관협력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은 완주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소셜굿즈센터’가 맡는 민관협치구조로 만들어 운영함

- 완주군 행정협의회 : 조직/조례 등 제도정비, 기금의 설치와 운영, 답례품 발굴 및 선정지원, 기부활용 프로젝트 지원 등
- 중간지원조직 : 홍보/상담/기부절차 안내, 답례품 개발/교육/컨설팅, 후속사업 연계, 기부금 활용 프로젝트 실행(공모/관리 등)
- 고향사랑기부포럼 : 홍보공간, 정책/아이디어 정리, 답례품 개발/상품화, 기

그림 4-75 완주군 고향사랑기부금 대응 주체별 주요역할



자료 : 임경수(2023), ‘고향사랑기부금제의 활용방안‘, 농촌유토피아연구소.

부활용 프로젝트 의견 수렴 등

□ 고향사랑기부금 대상주체 구분 검토

○ 다양한 도시민과 수도권 출신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완주군 관계 정도에 따라 필요한 활동을 정리하여 제시함

○ 젊은 층에 효과가 큰 소설 네트워크시스템을 활용하는 바이럴 마케팅 등을 추진

표 4-5 완주군 고향사랑기부금 대상의 구분

관계정도	관련 필요 활동
관계창출형	· 지역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부제에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 대상 : 완주에 관심있는 청년, 귀농귀촌희망자, 지역에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 · 전략 : 기부제SNS가입, 홍보이벤트개최, 관련사업과연계, 방문유도
주변확대형	· 도시 기업/단체와 연계 지역에 대한 관심 조성하여 기부제참여 독려 · 대상 : 자매결연 지자체, 축제/행사/여행 방문자, 관내 기업 임직원 등 · 전략 : 대상 기업과 단체를 방문해 홍보, 기부제SNS 가입 연계
관계심화형	· 이미 지역과 교류 있는 사람 대상으로 기부제에참여,주변지인홍보 · 대상 : 향우회, 로컬푸드소비자, 기 기부제에참여한 사람 · 전략 : 유형별로 대상을 조직화하고 맞춤형으로 홍보

자료 : 임경수(2023), '고향사랑기부금제의 활용방안', 농촌유토피아연구소.

□ 고향사랑기부금 실행 프로젝트 구상 검토

○ 고향사항기부금의 기부를 통해 조성한 기금을 첫해 어떠한 방향에서 사용할 것인가를 행정+중간지원조직 등 추진체계 내에서 검토하고 준비를 논의

○ 고향사랑기부금 조성의 목적에 충실하게 지역사회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주체를 검토하고 실행방안을 논의

○ 지역사회에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지원의 필요성과 가치가 높은 영역을 고려 검토

- 먹거리 돌봄 : 로컬푸드 1번지 지역 이미지 부합의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 에너지 복지 :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 돌봄 필요한 에너지 지원 사업

○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 방식의 다양한 액션그룹의 실행역량을 고려할 때, 실행주체를 전제로 한 기금의 집행 프로젝트 구상이 적절하다는 판단

○ ‘23년 기부금 목표액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하반기에 1억원을 활용하여 실행하기고 검토

- 민간자본보조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에 지원하여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추진

표 4-6 고향사랑기부금 실행 프로젝트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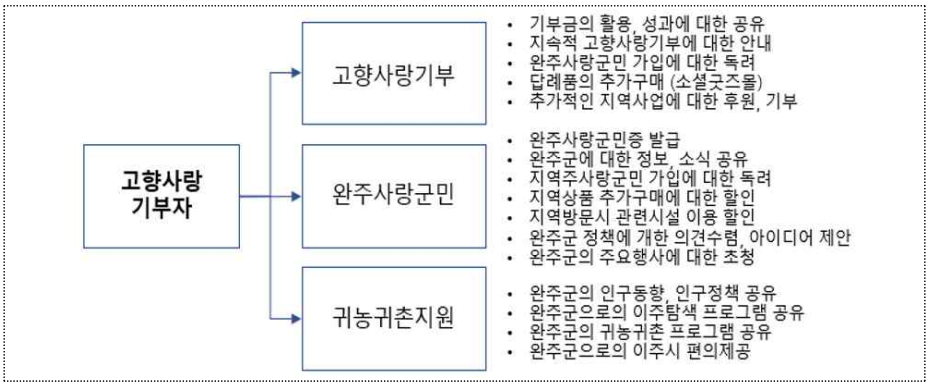
구분	주요내용
먹거리 돌봄	· 내용 : 로컬푸드기반으로 취약계층,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의 먹거리 복지 실현 · 사업예시: 취약계층 아동가정꾸러미 지원, 취약계층 아동의 아침식사 지원 등 · 참여단체 : 공공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협동조합 등 로컬푸드와관련 사회적경제조직
에너지 복지	· 내용 : 취약계층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단열시공, 에너지 전환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 사업예시: 노후한 마을회관, 취약계층 주택의 단열시공, 친환경보일러 교체 등 · 참여단체 : 로컬빌더협의회(건축,목공,집수리 관련 5개 사회조직 연합회), 자활 등

자료 : 임경수(2023), ‘고향사랑기부금제의 활용방안‘, 농촌유토피아연구소.

□ 고향사랑기부금 후속사업 검토

○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자가 완주군과의 다양한 관계망을 통해 정주 인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사업을 단계별 연계 구상

그림 4-76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 지원방안 구상



자료 : 임경수(2023), ‘고향사랑기부금제의 활용방안‘, 농촌유토피아연구소.

제5장

지방소멸 대응재원 농업·농촌 활용방향

1. 관련 사례분석 종합 시사점
2. 농업·농촌에 주목하는 이유
3. 농업·농촌 대응의 기본전제
4. 농업·농촌 세부 전략의 제안

제5장

지방소멸 대응재원, 농업·농촌 활용방향

○ 농업·농촌이 가진 본연의 사회적 역할·기능 고려하여, '지역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균형발전 촉진'을 도모할 마중물로 '지방소멸 대응재원(지방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 추진 관점이 필요함

○ 두 정책 모두 행정안전부에서 관장·시행하고 있고, 지역(농촌)을 대상으로 실행하고 있는데, 추진목적 유사성은 있으나 정책의 성격 차이로 실제 정책이 시행되는 지역사회에서 통합적 실행과 시너지 제고에 대한 고려가 부족

○ 전략적 대응방향을 세우고 그 방향에 근거한 목표에 따라 두 정책의 층위를 설정하여 정책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대응전략이 요구됨

○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어려운 현실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의 '단순한 보조금 받기'와 '재원 모금'이 되어서는 추진목적의 달성은 물론 지역사회 문제의 악순환을 구조적으로 강화시킬 우려가 큼

○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현실적으로 정의하고, 문제의 원인·배경이 되는 농업·농촌 분야에 비중을 높이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 결국 지역사회 정책의 추진체계 기반역량(실행력)과 연결되므로 주민참여로 지역(농촌)이 직면한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목표, 대응방향, 추진전략, 세부계획, 추진체계, 실행주체 등을 마련해 나가야 함

○ 이 장에서는 '지방소멸 대응재원'인 정책을 왜 농업·농촌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대응해야 하는지의 근거를 검토하고, 지역사회 투자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단계별 방안과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제안하고자 함

1. 관련 사례분석 종합과 시사점

□ **첫째, '지역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산업,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의 분야별 영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과제를 찾아내고 있음에 주목**

○ '지역'이라는 공간은 오랜 기간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이뤄져온 역사적 성격을 가지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결합된 현실적 실체임

○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어 문제를 포착하고 대응과제를 찾느냐에 따라 현실의 대응 양태가 달라지는데, 세부 분야를 전체 구조로 보는 관점이 필요함

○ 직면한 현실적 문제는 특정 영역과 분야에 특화된 과제이지만, 문제의 원인과 해결과제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구조에서 비롯되어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지역 전체의 종합적 조망과 지역발전 전략으로의 적용이 필요함

- 사례지역 내용 검토 : (오부세마치)밤/농업→지역경제/브랜드 매니지먼트, (가미야마쵸)오지/사람→생활방식/노동방식 전환, (포틀랜드시)농업/예술→식생활/예술 스타일, (사카다시)과소/공동체→전담자/지역활동, (허즈웰)교류공간/폐쇄→주민주도/회생, (마나츠루마치)과소/사람→사람흐름/기업이전, (분쿄구)결식/폐쇄→먹거리/돌봄, (완주군)주민/돌봄→먹거리/에너지

□ **둘째, 지방소멸의 배경이 되는 '농업·농촌'의 문제에 주목하여 대응전략과 활성화의 매개를 '농업적 이용'과 '농촌적 활용'에서 찾고 있음**

○ 과소화/고령화 이유/배경은 전통적 산업인 '농업'을 통해 경제활동이 여의치 못하다는 현실인 것으로 '농업'의 혁신 아이디어로 이용방안을 구상함

○ 전업적 '농업' 생산양식이 아니라 '농업-농산물 자원'을 활용한 가공×직거래×판매×체험을 결합한 부가가치 확대한 융복합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도시민과 교류활동의 매개공간/매력요인 등으로 활용하는 상호 교류 컨텐츠로 활용하고 있음

- 사례지역 내용 검토 : (오부세마치)밤/가공/직매장, (가미야마쵸)빈집/농촌

재생, (포틀랜드시)먹거리/지산지소, (사카다시)빈집/축제, (허즈웰)맥주/교류, (마나츠루마치)농촌경관/농산물 아침시장, (분쿄구)먹거리/식품, (완주군)먹거리/에너지

□ **셋째, 지역사회의 빛바랜 '영광'을 상징하는 미이용·미활용 유휴건물를 매개로 혁신 아이디어와 활동·사업이 일어나는 거점화를 하고 있음**

○ 과소화로 이용되지 않거나 이용·활용이 저조한 지역사회의 '유휴건물-하드웨어'를 혁신활동의 거점/매개로 삼으면서 사업과 활동을 기획/준비했음

○ 역사적인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위안의 중심'으로 자리한 공간(하드웨어)의 특성을 살려 침체/쇠퇴를 극복하는 실천동력의 상징물로 재구조화/재탄생 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함

○ 사람이 적고 활력을 잃은 지역사회의 풍경과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부합하고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디자인 기준을 정립해 나감

- 사례지역 내용 검토 : (오부세마치)미술관/직매장, (가미야마쵸)레지던스/위성오피스/학원, (포틀랜드시)음식점/농부시장, (사카다시)빈집은행, (허즈웰)펍/교류공간, (마나츠루마치)살아보기/위성오피스

□ **넷째, 문제에 대응한 변화와 혁신을 아이디어로 구체화하고 사업/활동으로 전환하는 창조계층을 유치하여 지역주민과 상승작용을 도모함**

○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방향을 찾으며, 지역적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주체는 지역 내부와 외부에서 여러 형태/방식의 사람이 담당하고 있음

○ 지역에 기반을 둔 개인이 시작하여 대응조직/실행단체를 결성하고 직접 사업과 활동을 맡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 사례의 공통된 특징임

○ 외부 유입된 개인이 개인적 필요를 시작으로 지역사회를 탐색하며 지역주민과 교류/교감을 통해 대응과제 이행의 실천주체로 역할하는 경우도 다수

○ 해결할 문제인식과 대응과제의 실천주체(개인+조직+단체)를 통해 지역사회 내외부의 다양한 청년층이 유입/참여하여 지역활력을 도모하는 혁신적

활동을 수행하는 '창조계층'이 된다는 점이 중요함

- 사례지역 내용 검토 : (오부세마치)지역기업인/청년, (가미야마쵸)지역주민/외부청년, (포틀랜드시)예술인/지역주민, (사카다시)외부활동가/지역주민, (허즈웰)지역리더/지역주민, (마나츠루마치)지역리더/외부청년

□ **다섯째, 행정의 주도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민간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결합해 추진체계 갖추고 민간의 다양한 실행주체 지원하는 체계를 갖춤**

○ 해결해야 할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기초 자치단체 차원의 행정은 국가/광역 계통정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할 계획수립 등 형식적 접근이 불가피함

○ 정부의 상위계획은 영역과 범위를 정해주지만, 지역계획이 실행계획 수준이 되려면 지역사회 주민과 민간의 단계별/역역별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부사업의 실행주체로 기능을 해야 함

○ 사례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문제해결의 주체적 의지를 갖고, 형식적 대응계획이 아니라 해결할 문제에 초점을 둔 실행과제 방식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적용했다는 점이 의미가 큼

○ 특히 ①지역주민의 필요가 사업화되고, ②사업에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

표 5-1 국외 주요사례 분석의 종합과 시사점

① '지역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산업,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영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과제를 찾아내고 있음 → 특정 영역에 특화하더라도 전체화하는 종합적인 시각의 입장 견지가 중요

② 지방소멸 배경인 '농업·농촌' 문제에 주목하여 대응전략과 활성화 매개를 '농업적 이용'과 '농촌적 활용'에서 찾음 → 문제의 원인이 농업의 쇠퇴와 농촌의 침체라는 점을 전제로 대응전략 구상

③ 빛바랜 '영광'인 미이용·미활용 유휴건물을 매개로 혁신 아이디어와 활동과 사업이 일어나는 거점화를 하고 있음 → 방치된 기존 시설을 살펴 혁신활동이 일어나는 거점화 전략은 매우 유효

④ 문제 대응 변화·혁신을 아이디어로 구체화하고 사업·활동으로 전환하는 창조계층을 유치하여 주민과 상승작용 → 사람 유치에 직접 매달리지 않고, 사람이 들어와 살고 활동할 여건을 마련

⑤ 행정 주도성·책임성 바탕으로 민간의 혁신성·창의성을 결합한 추진체계 갖춰, 다양한 실행주체 지원체계를 갖춤 → 행정은 기준을 잡고 정책을 지원하면서 민간주체의 창의적 활동 적극 지원

웨어를 정책사업을 매개로 조성하며, ③이의 운영주체가 주민조직이 되는 구조를 사례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사례지역 내용 검토 : (오부세마치)진흥공사/매니지먼트, (가미야마쵸)NPO 법인/지역기업, (포틀랜드시)지역정부/민간조직, (사카다시)주민조직/활동가, (허즈웰)협동조합/지방의회, (마나츠루마치)지방정부/민간주체

2. 농업·농촌에 주목하는 이유[32]

(1) 위기 사회에서 회복력이 필요한 이유

○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기후위기는 식량위기, 사회위기, 지역위기로 연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서 위기와 불확실을 극복하는 대처와 역량인 '회복력'을 갖추지 못한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못함

○ '대 전환과 실효적 혁신'없이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절망적 전망이 있는 가운데, 전환과 혁신의 실체로 '회복력'에 주목해야 함

○ '회복력(resilience)'은 사회경제 시스템이 외부의 교란과 충격으로부터 잘 견디는 쇼크 내성을 통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역량임(World Economic Forum)[33]

○ 국제 사회가 회복력에 주목하는 배경은 재난과 위기에 대해 지금까지는 정부를 중심으로 한 '사후 대응'이었다는 반성에 기초함

○ 사전적·예방적 차원에서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32 이 내용은 황영모(2022), '지역농정의 발전방향과 과제', 한국농어민신문 심포지엄 발표자료와 황영모(2021.4.6.) '우리 사회의 회복력의 바탕, 농업·농촌에 있다', 한국농어민신문 칼럼을 수정한 것임

33 2013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과거 지향점으로 성격을 갖는 '지속가능 발전'의 추상적 한계를 넘어 '경제적 회복력'을 새로운 정책적 개념으로 다루었음

직시한 것인데, 위기상황(쇠퇴기)에서 이를 극복하고 재구조화하거나 재창조할 역량을 상시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음

○ 그 힘이 바로 '회복력'인 것인데, 회복력은 불확실하고 복잡계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생명력 있게 대처와 적응할 수 있는 힘임

○ 위기로부터 학습하고 성장하며,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갈 사회경제적 역량으로 구체적으로 '기술적, 조직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서 충격과 위기에 대한 대응력으로서 회복력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음

○ 코로나19 등과 같은 사회적 재난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회복력의 수준은 미래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회복력의 실체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함

(2) 회복력의 원천으로 농업·농촌의 의미 검토

○ 위기의 시대, 국가와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회복력의 근간은 바로 농업·농촌에 있음에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짐

○ '농업·농촌'은 '사회적, 생태적, 경제적 회복력'을 갖춰가는 기반이자 핵심 영역인지 살펴보면서, 이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할 이유를 마련하고자 함

□ 첫째,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농업·농촌은 환경과 생태를 지키는 '생태적 회복력의 원천'임

○ 지구의 생태적 용량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기상이변과 기후위기는 인류에게 대재앙의 전조로 화석연료 채굴을 통한 에너지 이용을 당장 전환해야 함

○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당장 실행해야 하는 이유인데, 농업·농촌은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이면서, 생태계 유지의 기초가 되고 있음

□ 둘째, 식량위기 상황에서 농업·농촌은 먹거리의 안보·안전을 지키는 '경제적 회복력의 기반'임

○ 기상이변과 코로나19 등으로 국제교역이 멈추자 식량위기 불안이 높아지졌

음을 경험하였고, 가뭄과 홍수로 흉작이 빈번하여 식량조달의 어려움이 큼

○ 식량생산 기반과 자급역량을 비상히 높여가야 하는데, 농업·농촌은 먹거리를 해결하는 주체이자 경제의 기본이 되고 있음

□ **셋째, 사회위기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농업·농촌은 '사회적 회복력의 토대'임**

○ 양적 성장의 그늘에 놓인 빈부차이가 구조화되고 있고, 위기 상황에서 차이는 커졌으며, 먹거리와 생활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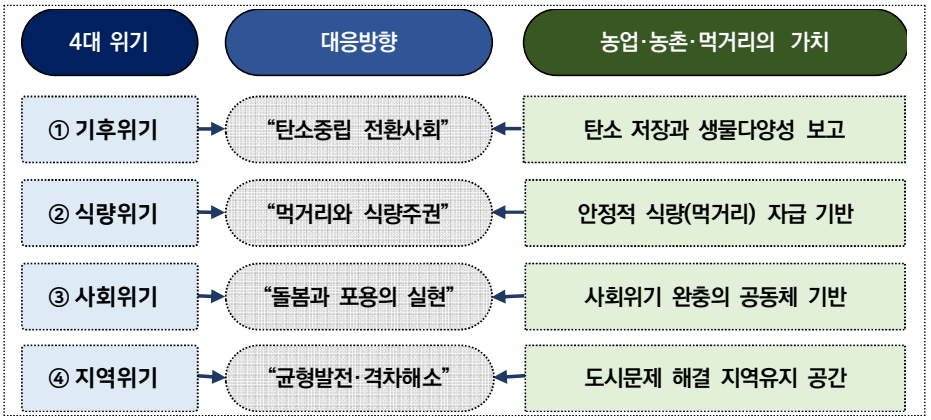
○ 기본권으로서 먹거리와 생활돌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농업·농촌은 국민의 기본권인 먹거리와 생활돌봄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임

□ **넷째, 소멸위험 등 지역위기 상황에서 농업·농촌은 '조직적 회복력'의 근간임**

○ 고령화되고 과소화된 지역의 내일은 전망이 없거나 개선의 여지가 적지만, 농촌문제는 도시문제와 서로 연결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함

○ 농촌의 필요와 도시의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지역위기를 극복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농융합이 관건임

그림 5-1 4대 위기와 농업·농촌의 관계, 회복력의 의미



자료 : 황영모(2022), '지역농정의 발전방향과 과제', 한국농어민신문 심포지엄.

(3) 농업·농촌 기능·역할에 대한 이해

□ **농업·농촌은 크게 3가지 기능을 통해 사회의 경제적·문화적·생태적 회복 탄력성에 기여하고 있음**(Heijman·Hagelaar & Heide, 2019)

○ 먹거리와 원자재 등 농업생산물의 공급 역할을 담당하는 농업생산의 기능

○ 농촌관광, 경관관리, 수자원의 저장, 문화적 전통의 계승 등 농촌 지역의 비농업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 농업을 포함한 다른 경제적 활동 자체를 최소화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자연 자체를 보전하는 기능

□ **농림업 생산액**('21년 기준)**은 총 61.3조원으로 총부가가치 비중**(2020년 GDP잠정치)**은 1.8%에 불과하지만, 지역(농촌)의 경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

○ 농촌지역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농업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음

○ 무엇보다 지역경제의 산업구조를 고려하면 농업은 지역 내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와 고용을 유지하고 있음

□ **UN 세계식량기구(FAO)와 OECD 등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다음과 같이 범주화시키고 유지와 보전을 정책적으로 강조**

○ 사회적 기능 : 도시화 완화, 농촌 공동체의 활력 피난소 기능(위기, 혼란, 감염병) 등

○ 문화적 기능 : 문화적 유산 정체성 가치 및 전통의 전달, 미적인 측면의 농촌 경관 제공 등

○ 경제적 기능 :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성장, 경제위기 완충기능 등

○ 환경보전 기능 : 홍수방지기능, 수자원 함양, 토양보전, 생물다양성 등

○ 식량안보 기능 : 먹거리와 식재료의 공급 등

□ **이러한 농업·농촌 기능·역할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지역적 합의를 통해 '지방소멸 대응재원'의 농업·농촌 활용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함**

(4) 농업·농촌의 '대응방향' 검토

□ **감염병 위험과 기후위기라는 재난적 상황에서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중요해짐**

○ 과밀화된 도시의 위기를 흡수할 수 있는 농촌의 공간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중요함

- 농촌으로의 이주, 농업의 다기능성을 활용하는 치유·돌봄 프로그램 등 확대

○ 기후위기 대응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며 흡수할 수 있는 농업·농촌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음

- 산업적 영농과 먹거리 체계 탄소배출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체계 전환을 위한 계획이 발표(European Commission, 2020; Schebesta & Candel, 2020)

○ 지구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태중심 사회로 전환에 있어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야 함

- 도농융합상생 거점으로서 생태문명 혁신도시의 구상, 지역 공동자원 활용 생태적 공공성 구축, 농생태 등

□ **기후변화 대응, 농업·농촌 일자리, 농촌생활 서비스 혁신, 바이오 소재 농업, 온·오프라인 기반 농산물 유통 등 농정현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방소멸 대응재원을 합당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대응방향을 검토**

○ 주민주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 탄소중립 마을(신재생에너지 생산, 전기차 사용, 경축순환, 친환경농업 등 추진) 육성 등에 투자가 필요[34]

○ 신규 인력의 유입을 위해 지역의 상황에 맞게 농업·농촌 일자리 플랫폼 활성화, 일자리 정보 제공 및 교육, 취·창업 지원 및 접근성 강화에 투자 필요

○ 귀농자, 귀촌자, 농촌주민들이 농촌생활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투자할 필요가 큼(생활서비스 거점 조성, 전달체계 혁신, 서비스 사업 기능 강화, 서비스 혁신 등)

○ 농업·농촌 자원과 바이오 소재 산업 연계를 돕는 창업 및 농업-기업 협력체계 구축(연구 플랫폼, 생산체계, 거버넌스 구축 등)

○ 귀농자, 귀촌자, 청년 등 온·오프라인 기반 농산물 유통, 먹거리 돌봄 등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추구할 모델 개발 지원이 필요

3. 농업·농촌 대응의 기본전제

(1) 대응방향 구상, 기본전제

□ 추진단계, 참여형·단계별 과정이 중요

○ '공유-의견-발굴-정리-시범-실행-평가-개선-확대' 등의 현실적 실행역량 축적의 과정으로 추진

□ 매개대상, 농업·농촌자원의 적극 활용

○ 농촌지역이 보유한 자원 또는 대응이 필요한 매개물을 중심으로 기획(먹거리, 농산물, 구조물, 에너지)

□ 활동주체, 지역사회 주체 육성을 전제

---

34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농정으로 '환경생태농업 장려, 재해보험, 탄소중립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음

○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실행하는 수 있는 구조로 추진(개인, 조직, 단체, 기업, 행정 등)

□ **작동방식, 사회혁신 체계 현실적 적용**

○ 농촌지역의 사회적 자원이 스스로의 필요를 사업과 활동으로 조직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의 포괄적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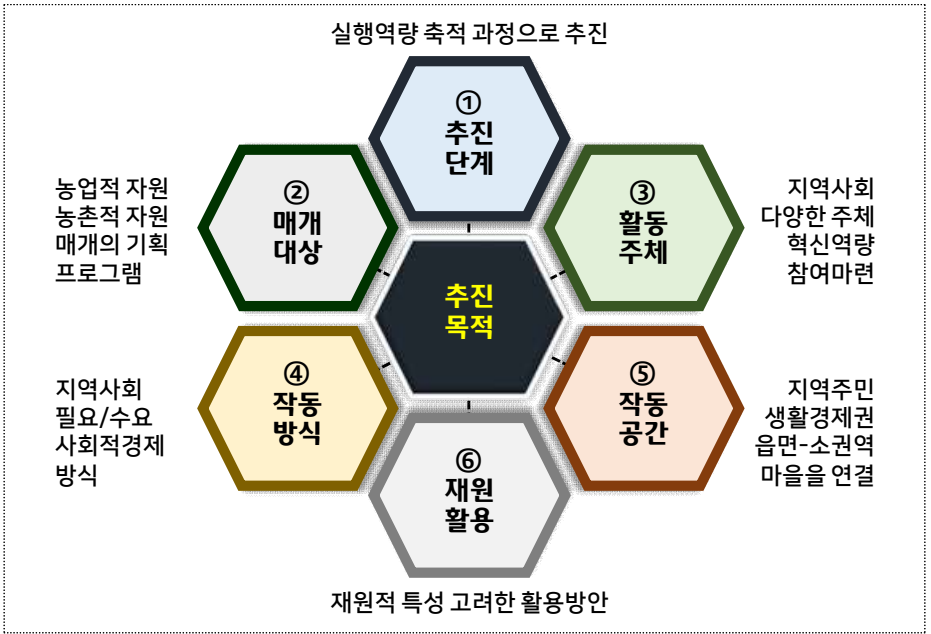
□ **작동공간, 생활권 중심의 적정한 범위**

○ 추진단계와 활동주체 등 고려할 때 중층적인 공간적 범위로 추진(자연마을, 행정리, 소권역, 생활권, 지역사회)

□ **재원활용, 정책자원의 실효적인 활용**

○ 정책지원(소멸기금)과 모금추진(기부금)의 재원적 특성을 고려하여 활용(프로그램 중심, 활동주체 육성, 작동체계 마련에 중점, HW는 연계사업 활용)

그림 5-2 농업·농촌 대응방향 구상의 기본전제



□ **추진목적,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농촌지역이 사회적으로 직면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명확히 정립 제시(생활인구 확대, 지역활력 증진, 사회혁신 촉진, 지역주민 자긍 등)

(2) 대응재원별, 농업·농촌 '활용전략' 검토

□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방향**

○ (활용방향) 지역사회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농촌재생, 농촌혁신, 농촌개발'의 영역에서 재원을 활용·투자하는 계획의 준비 기획과 실행이 필요

- '인구유입과 증가'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의 개발은 지방소멸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전략이 될 수 없음에 주목해야 함
-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은 '농업·농촌' 영역을 기반으로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방향을 잡고 실행계획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함을 강조해야 함
- '사람'이 오고 가고 늘어나는 현상은 일정한 사회적·지역적 흐름이 만들어져야 가능한 것으로 이를 위한 전환점·매개물의 유효한 결합이 관건임
- 지역사회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관행적 정책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매몰비용[35]화될 우려가 높으므로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기획이 중요함

○ (발굴분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농촌'이라는 지역사회가 대상이므로 농촌을 '장(공간)'으로 하는 실행방안을 '재생, 혁신, 개발'로 구체화 검토 마련

- '농촌재생'은 농촌지역이 안고 있는 '경제, 사회, 공간' 모두를 포괄하므로 '경제적 재생, 사회적 재생, 물리적 재생' 등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개발
- '농촌혁신'은 미래사회로 나아가는 원천기술을 지역사회가 역량화하는 것으로 '기술혁신, 사회혁신, 가치혁신' 등을 결합한 세부사업을 개발

35 이미 지출되었으나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아 '회수'는 물론 앞으로의 의사결정에서 '0'으로 판단해야 하는 투자

- ‘농촌개발’은 성장을 방향으로 ‘지역산업, 지역경제, 지역사회, 공간’의 구조재편을 위한 것으로 지역정책·산업정책과 중복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

○ (추진목표) 도시-농촌 간의 격차를 줄여 과소화·고령화된 지역사회에 지역주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준의 생활기반·삶의 질 여건을 만드는데 있음

- ‘사람을 늘려 소멸위험을 극복한다’는 전략은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정책추진 경로(간접효과)를 고려한 목표 설정이 중요
- 원주민(지역주민)이 만족할 수준에서의 삶의 질+사회서비스 여건을 갖추고, 이주민(귀농·귀촌)이 살아보면서 매력과 선호를 갖는데 필요한 기반을 정책적으로 지원
- 지역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 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필요와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사회서비스·돌봄 기반 구축이 중요
- 경제적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갖추어 가계경제를 유지해 나갈 수준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소득원의 마련이 필요

○ (실행주체) 하향식(top-down) 방식의 정책개발과 계획수립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답습할 우려가 크므로, 상향식(bottom-up) 방식의 계획마련이 관건

- 계획 마련을 상향식으로 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개인+조직) 의견을 수렴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방향을 합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 상향식 계획 수립의 과정은 마련된 계획을 어느 공간에서 누가 어떠한 방식과 수준에서 실행할 것인가에 관한 ‘실행주체’를 고려한 것을 의미함
- 행정역량(시·군-읍·면), 지원역량(중간지원조직), 실행역량(공동체· 사회적 경제 조직), 혁신역량(전문가·크리에이터)을 실행주체로 세워야 함

□ ‘고향사랑기부금’ 활용방향

○ (활용방향) 농촌마을이나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곳에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지원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적 한계를 보충하는 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발전’을 꾀할 현실적 컨텐츠를 고려하여 마련

- 재원주체(외부기부자), 실행주체(지역사회), 지원대상(지역주민)이 있는 재원구조를 고려하여 체감형이면서 사회적 효과가 큰 내용 중심으로 기획

○ (활용방식) 행정의 직접 수행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농촌 활성화 사업·활동을 담당하는 지원조직·실행주체를 통한 실행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

- 지역사회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포착하면서 실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주체를 기획의 단계에서부터 검토하고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
- 지역사회 문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행수준·여건을 파악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 역량이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실행 전제임을 강조

○ (모금방식) 기존의 포괄적 모금방식에 덧붙여 지역사회(지자체+지역주민)가 특정의 사회적 문제를 특정하여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개선 필요

- 포괄적 모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조성은 효과와 과제가 진단될 것이지만, 재원의 투자계획을 지역사회가 효과적으로 마련해야 모금이 지속될 것임
- 지역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면서, 외부와의 교류·교감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하여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적용해 나가야 함

○ (답례방식) 지역 특산물 위주·일색의 답례품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의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관계를 갖출 수 있는 기부방식 마련이 매우 중요

- 경험형 답례품으로 관계인구를 형성하고 기부자를 확대해 나가며, 기부자가 지역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촉진을 유도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이 농촌과 교류하는 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답례품의 개발이 필요, 지역순환구조 구축으로 관계인구 확대에 기여

○ (실행체계) 지역사회 주민조직이 고향사랑기부금의 재원을 활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행체계의 구축이 필요

- 읍면 주민자치회가 사업추진 관련 주체가 되어 계획권+집행 의결권+집행권 등을 부여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민간단체가 지자체와 협력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침 변경 필요

4. 농업·농촌 주요 프로그램 제안

(1) 농촌사회+지역만들기, 실행기반[36]

□ 농촌사회 기능이 악화되는 과정

○ 지방소멸의 배경인 '인구감소'는 사회적으로 주류적 흐름을 형성하여 우리 사회는 절대적인 인구감소 사회로 진입하였음(합계출산율 0.78명, '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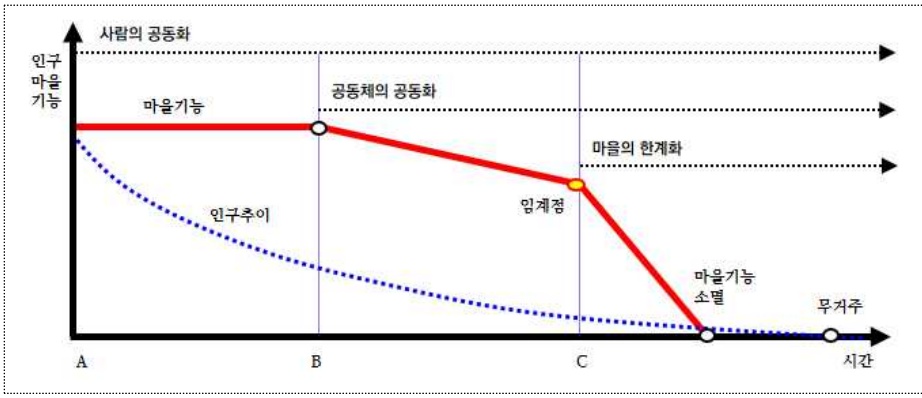
○ 사회 전체로 인구가 감소하지만, 지역 특히 농촌은 오래전부터 인구유출의 과정을 거쳤으고, 그 결과 사람이 살지 않는 무거주 마을까지 나타나고 있음

○ '사람'이 줄어든 농촌은 '사회적'으로 지역의 유지를 담당해온 여러 기능이 쇠퇴하거나 사라져 더 이상의 희망을 찾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 농촌사회의 기능이 악화되는 과정은 '사람의 공동화(空洞化) → 공동체의 공동화(空洞化) → 마을의 한계화(限界化)'를 거치게 됨

○ 주민이 떠난 마을에서는 일정하게 수준까지 마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림 5-3 농촌사회 기능의 악화 과정



자료 : 小田徳美(2014), '農山村は消滅しない', 筑波書房; 황영모(2023)에서 재인용

36 이 내용은 小田徳美(2014), '農山村は消滅しない'를 토대로 황영모(2021.9.7.), '농산촌 소멸이라는 발칙한 의도(?)를 의심하자', 한국농어민신문 칼럼에서 수정·작성하였음

수준이 되지만 공동체의 기능까지 사라지고 임계점을 지나면 무거주로 마을로 이어지는 경로를 거지게 됨

□ '농촌소멸' 우려에 대한 적극 대응

○ 지금과 같은 절대적 인구감소 사회가 지속된다면 지방의 소멸은 필연으로 보고 농촌지역부터 포기하거나 철수할 수 우려로 이어질 수 있음

- 한쪽에서는 지방소멸 위험을 말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정책을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 그것임
- 투자를 집중해야 할 지방거점도시 이외의 농산촌 지역에게는 '철퇴의 권고'로 이어져 국토의 가장자리부터 접자는 정책이 제기되어서는 안될 것임

○ 농촌지역의 사람이 적은 것은 개성을 살린 자립 가능한 지방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그동안 유지해온 정치적·제도적 개편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인

- 도시권 및 지방권의 행정체계, 의회제도,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형태 등을 바꾸자는 논의가 이어질 것인
- 지금껏 유지해온 참여 민주주의 과정과 단절되거나 무관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 통폐합과 제도의 급진적 리셋이 우려됨

○ 지방소멸 위기로 지목된 지역은 어떻게 해도 없어진다면 포기하자는 포기론과 패배감이 자리해 변화와 혁신을 위한 실행동력 마련도 어려워짐

- 많은 지역에서 지역 만들기나 귀농·귀촌 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부침을 반복하고 있음
- 기성세대는 물론 미래세대가 지역사회에서 가능성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지역의 유지가 쉽지 않음을 각인해야 함

○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목으로 거점도시를 '인구 댐'으로 만들고, '압축도시(콤팩트시티)[37]'로 축소·정리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인구댐과 압축도시 구상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생활권으로 묶어 내는

37 유럽의 콤팩트시티는 도시 내부의 재생전략임

도시-농산촌 연계는 주요 고려사항이 아님

- 압축도시는 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주변부'를 잘라 버리려는 의도가 크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파악해야 함

□ 지역만들기를 위한 기본틀

○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이 견지해야 할 3가지 중심축을 지역만들기 전략으로 제안함

○ '생활의 잣대' 만들기

- 농촌에 사람이 줄면 지역사회의 기반과 토대가 약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주민은 심리적 공동화로 이어져 의지와 의도를 갖기 어려운 구조에 처할 것임
- 주체로서 주민과 리더들이 갖는 긍지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으로 발현되는데, 긍지의 공동화에 대응하여 지역사회에 대해 학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도시-농촌의 일상적 교류를 통해 긍지를 재건해야 함

○ '생활의 구조' 만들기

- 농촌사회에서는 농업과 노동의 시장실패가 일상화되어 사람이 줄어들자 삶의 질 시장마저 실패하거나 후퇴하여 생활의 필수요건 충족도 어렵게 됨
- 주민 모두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의 기반과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삶의 질 기반의 사회서비스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지역을 연결하는 커뮤니티와 물적 조건을 만들어야 함

○ '경제적 순환' 만들기

- 농업의 쇠퇴로 지역농업 관련 산업의 경제활동이 여의치 않은 농촌지역에서는 다른 형태의 기업마저 없어 경제활동 기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음
- 지역이 가진 농업·농촌의 자원을 상품화하고 이를 매개로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농촌 융복합 산업화 전략은 농촌지역이 견지할 중요한 경제활동 전략이자 소득을 형성하는 작은 경제를 만드는 지역순환경제 전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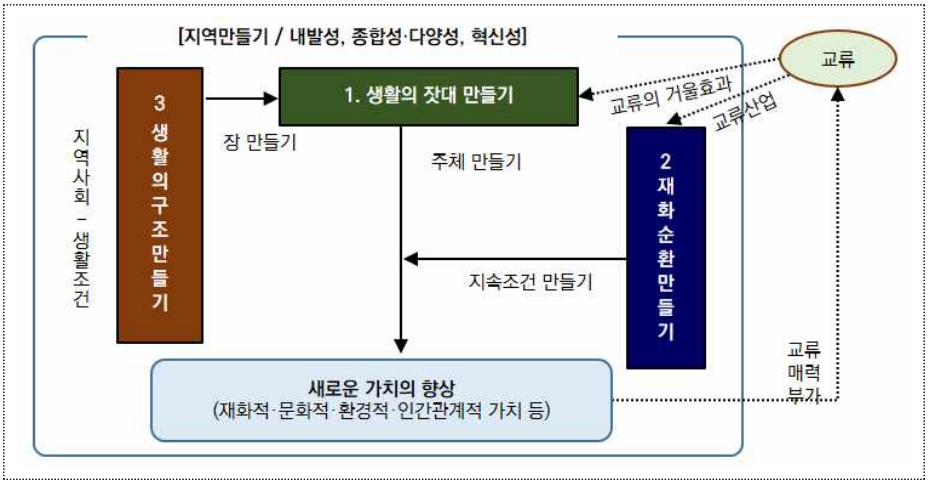
○ 이러한 농촌지역 만들기 위한 정책의 지원은 지원의 '내용, 대상, 주체'를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임

- (지원내용) 지원내역을 명시하는 보조금(補助金)에서 지역의 포괄적 대응을 허용하는 교부금(交付金)으로의 지원을 늘리고 방식을 바꿔야 함

○ (지원대상) 특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재원을 지원하는 보조금(補助金)에서 사람과 인력 등 주체를 지원하는 보조인(補助人)으로 전환해야 함

○ (정책주체) 재정 지원과 정책 시행 주체를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이양을 하고, 행정의 직접 수행보다 지역사회(공동체+사회적경제 조직 등)를 실행 주체화는 새로운 공공(公共) 전략이 필요함

그림 5-4 지역만들기를 위한 기본틀



자료 : 小田德美(2014), '農山村は消滅しない', 筑波書房; 황영모(2023)에서 재인용

(2) 농촌사회 생활돌봄의 체계 마련[38]

□ 주요배경

○ 고령화·과소화가 진행된 농촌사회는 생활에서 필요하지만 충족되지 못하는 돌봄 등의 사회적 수요가 많은데, 생활돌봄 프로젝트를 통해 담당 주체를

38 이 내용은 황영모 외(2021), '도농융합상생의 기본구상과 대응전략', 전북연구원에서 수정·작성하였음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

○ 생활SOC 기반이 취약하고 대다수 주민이 고령화된 농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생생활에서의 다양한 필요와 수요에 대응한 이른바 '생활돌봄'[39]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 구축이 요청되고 있음

○ 과소화되어 고령화된 농촌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생활돌봄 서비스는 공동체 조직이 담당하면서 귀농·귀촌자 등과 같은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임

□ 추진방안

① 농촌 생활돌봄 프로그램 기본구상

○ 생활돌봄이 필요한 주민 대상으로 미충족 생활돌봄 서비스를 '사회적경제과 공동체 조직'이 프로그램을 맡도록 담당인력 고용을 지원하여 생활돌봄 수요 대응인력을 운용하는 프로그램임

○ 지원내용은 '미충족 생활돌봄'으로 사업메뉴 방식의 (공적부조)수급자 돌봄 서비스를 넘어서 경제적·사회적·신체적 한계로 충족되지 못하는 해결 가능한 크고 작은 생활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임

○ 활동주체는 '공동체 활동조직'으로 지역의 사회적 문제해결 관점에서 공동체 조직(사회적경제+주민공동체)을 활동주체로 하고 행정은 생활돌봄의 수요에 대응하는 태세(전담인력)을 갖춤

○ 지원방식은 '활동인력의 고용'으로 미충족 생활돌봄을 담당할 활동주체(조직)가 실효인 활동을 담당할 수 있도록 활동인력을 (귀농·귀촌)청년의 사회적 활동과 연계하여 직접 고용을 지원함

② '사회적경제 조직' 방식의 생활돌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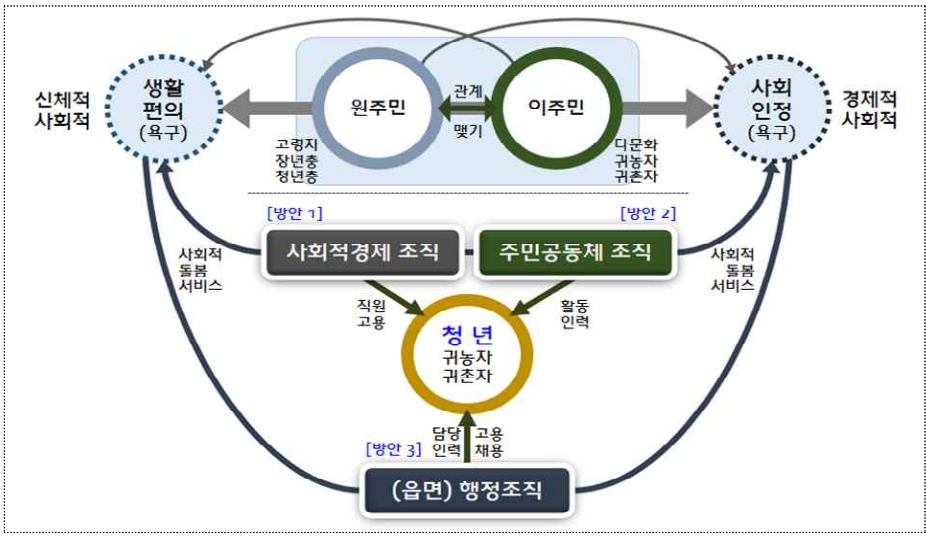
○ 생활상 필요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40]이 다양한 생활돌봄

---

39 '생활돌봄'이란 농촌주민이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하는 생활서비스로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회서비스를 의미.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달리 지역사회(community)의 관계망을 재구축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역량을 나타내는 대표적 사회자본의 형태로 파악할 수 있음

40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직접 만든 이해당사자 경제(stakeholder economy)로

그림 5-5 농촌 생활돌봄 청년 일자리 정책 구조



자료 : 황영모(2019), '농촌지역 생활돌봄과 청년일자리 정책방안', 전북연구원.

수요에 대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청년의 직원 고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생활돌봄 관련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활동을 담당할 청년(전담직원)의 고용을 직접 지원하여 생활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 조직이 기존에 수행하던 비즈니스 또는 새로운 사업과 활동으로 생활돌봄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직원고용을 지원하는 방식임[41]

- 생활돌봄 서비스로는 '장보기 대행, 말벗, 이동세탁, 농번기 공동급식, 물품지원, 도시락 배달, 교통픽업, 병원동행, 가전제품 이용, 이불빨래, 기차표 예매, 휴대전화 이용, 우편·택배대행' 등이 있음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사람-노동을 중시하는 경제활동 조직, 대표 사례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농업법인 등

41 유사사례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음

③ ‘주민 공동체 조직’ 방식

○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 공동체 조직[42]이 다양한 생활돌봄 수요에 대응한 활동을 담당할 (귀농·귀촌)청년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 공동체 조직이 사업과 활동을 담당할 청년(전담)의 활동비를 지원하여 생활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귀농·귀촌)청년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함

○ 공동체 조직이 생활돌봄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는 사업·활동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활동인력 인건비와 직접 사업비를 지원함[43]

○ 생활돌봄 직접 프로그램으로는 ‘공동체활성화(주민자치회 등 주민조직), 순환경제(전통장터·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역문화(지역 문화·전통행사, 주민참여 프로그램), 생활서비스(이동점포, 읍면복지 서비스전달), 도농교류(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함

(3)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지역적 실행[44]

□ 추진배경

○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통합적 지원’을 위한 정책임

○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본인집·그룹홈 등)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임

---

42 ‘주민 공동체 조직’은 주민자치회, 마을회(영농회), 농업인단체, 농업인학습조직, 시민사회단체 등이 있음

43 유사사례로는 전라북도의 ‘과소화 대응인력 육성사업’이 있음

44 이 내용은 황영모(2023), ‘지역서비스 공동체, 의미와 방향’, 한국사회적농업협회 교육자료에서 수정·작성하였음

○ 정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18.11)하고, 2019년 선도사업(보건복지부-16개 지자체), 시범사업(행정안전부-2개 지자체)을 추진하고 있어 대상 지자체의 확대가 요구됨

○ 시설·병원 중심 돌봄에서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 돌봄으로 변화하여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살던 정든 고향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의 실행 확대가 요구

○ 특히 고령화 과소화가 심한 농촌지역 사회에 맞춰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실행을 확대하고 농촌사회에 맞는 추진전략을 특화한 대응방안이 필요함

□ **추진방안**

○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자원 중심 서비스’ 계획을 ‘욕구 중심 서비스 지원’으로 전환한 것으로 실제 효과가 확인되고 있음[45]

- (기존) 지역사회 돌봄 자원 부족으로 보유한 자원 중심의 서비스를 논의, 가족 돌봄 기능 없을 시 시설 입소 중심 논의, 보건과 복지 서비스의 분절
- (개선) 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사업으로 필요 인프라 구축, 대상자의 욕구 중심 서비스 계획 수립 가능, 거점돌봄센터 중심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농촌지역 노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방문형 보건의료·건강·방문요양, 생활지원서비스 확충, 재가 자립생활 기반 등 지원

○ (주요내용)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병원 퇴원 연계, 거점돌봄센터 운영, 사각지대 없는 재가복지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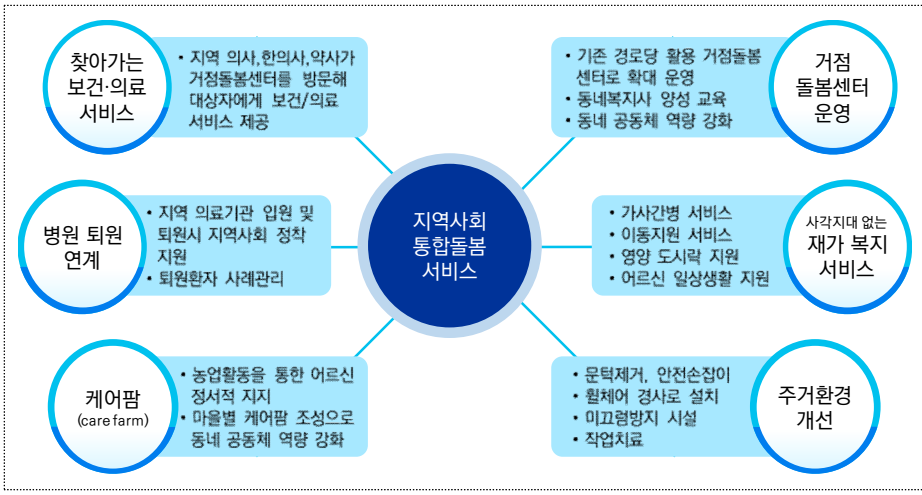
-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지역 의사, 한의사, 약사가 거점돌봄센터를 방문해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병원 퇴원 연계 : 지역 의료기관 입원/퇴원 시 지역사회 정착 지원, 퇴원 환자

45 지역사회통합돌봄 전후 기대효과 변화 : 걱정·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전 57.8%→이후 87.5%), 기운을 북돋워주는 사람(이전 65.6%→이후 85.9%), 일상생활이 곤란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전 45.3%→이후 62.5%),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이전 70.3%→이후 89.1%),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지원해주는 사람(이전 40.6%→이후 57.8%),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전 43.8%→이후 65.6%)

사례관리

- 거점돌봄센터 운영 : 기존 경로당 활용 거점돌봄센터로 확대 운영, 동네복지사 양성 교육, 동네 공동체 역량 강화
- 사각지대 없는 재가 복지 서비스 : 가사간병 서비스, 이동지원 서비스, 영양도시락 지원, 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 주거환경 개선 : 문턱제거, 안전손잡이, 휠체어 경사로 설치, 미끄럼방지 시설, 작업치료
- 케어팜(care farm) : 농업활동을 통한 어르신 정서적 지지 , 마을별 케어팜 조성으로 동네 공동체 역량 강화

그림 5-6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주요내용과 제공 서비스



자료 : 진천군(2020), '생거진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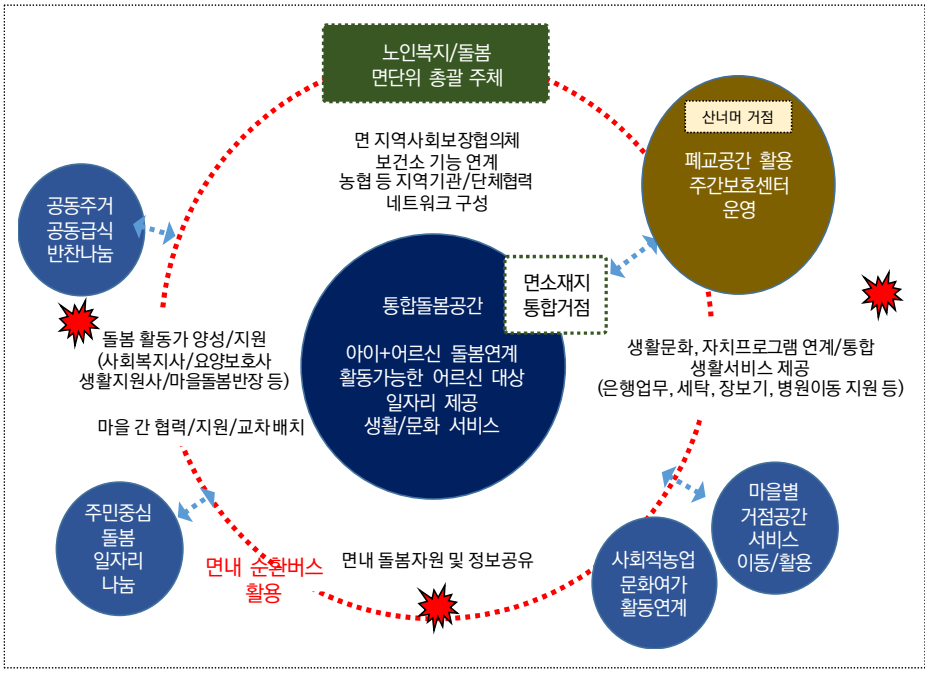
○ 농촌지역 소지역 생활권(읍·면)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구축 준비 및 실행

- (1단계) 돌봄조직 육성 : 주체형성(주민자치조직,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공동체 학습(돌봄조직의 역량 및 주민자치력 향상), 계획수립(주민 수요조사, 간담회, 토론회 등으로 돌봄계획 수립)
- (2단계) 법인 설립 : 농촌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성에 바탕을 둔 돌봄

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 준비

- (3단계) 돌봄 제공 : 보조금 사업 이용 중심지 간호보호시설, 배후마을 거점 돌봄센터, 면-마을 교통수단 설치 등, (면 중심지)중증 노인 대상 주간보호서비스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배후마을)경증노인 대상 생활돌봄 제공
- 지역사회 생활돌봄 수요조사 방안 : (1차)마을돌봄 수요조사 → (2차)돌봄주체 전수조사 → (3차)돌봄조직 활동조사 등

그림 5-7 지역단위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작동체계(예시)



자료 : 신소희(2021), '장곡면 돌봄망 구축을 위한 준비과정', 마을연구소; 황영모(2023)에서 재인용

(4) 농촌생활기술 활동역량, 향상 지원[46]

□ 추진배경

○ 귀농·귀촌인 등 외부인이 농촌사회에서 활동역량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농촌지역 생활기술학교'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귀농·귀촌인 등 농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역량이 필요하지만, 일률적인 농업 중심 교육의 틀에 갇혀 정착·생활 역량을 증진할 기회가 적음

○ 귀농·귀촌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어 도시민이 농촌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제2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생활기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의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것은 농촌사회의 일상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과 도전에 필요한 기술인 '생활기술'을 습득하는 것임

□ 추진방안

① 농촌 생활기술학교, 기본구상

○ 농촌은 농산물 생산만 하는 곳이 아니라 개인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른 개인들 간 상호 작용하며 일상생활을 만들어 가는 곳임

○ 농촌사회 구성원으로서 농촌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공동체 구성원의 역량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음

○ 생활기술(life skills)은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의 태도·능력으로 다양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 향상 가능한 삶의 기술임 (WHO, 1996; 정용철·류민정, 2019에서 재인용)

○ 농촌사회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등에게 농업활동, 농외 경제활동, 가정관

46 이 내용은 황영모 외(2021), '도농융합상생의 기본구상과 대응전략', 전북연구원에서 수정·작성하였음

리, 교류·참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발생하는 농촌사회의 적응과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함

② 농촌지역 생활기술학교, 운영방안

○ 농업에 기반이 없는 도시 청년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농업·문화·복지 등 다양한 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프로그램)을 지역사회 공동체 사업조직이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함

○ '생활기술학교'는 공유 농지를 활용해 농사를 지으며, 도시청년이 희망하는 것을 실행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기능도 담당하는데, 3년간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살아보기 프로그램으로 운영함[47]

○ 청년 귀촌 희망자 특성을 고려해 '힐링'을 테마로 공동체 활동, 요리, 요가 등과 연계해 한 달 살기 프로그램 등을 병행하여 운영함

○ 농촌지역 초등학교 등의 돌봄강사, 혁신학교 방과 후 학교와 연계하여 제빵, 목공기술, 음악 등 강사로 활동하도록 유도·지원함

○ 교육생 맞춤형 청년 작업장을 마련하여 개개인의 장점을 살려 전문가를 만나 학습하고 역량을 발휘하여 창직(創職)을 통해 독립할 수 있도록 운영함

○ 교육 프로그램은 1년에 4학기 24강좌로 개설하여, 수강 희망생이 2명 이상이면 수업을 진행하고, 교육생 청년의 숙소를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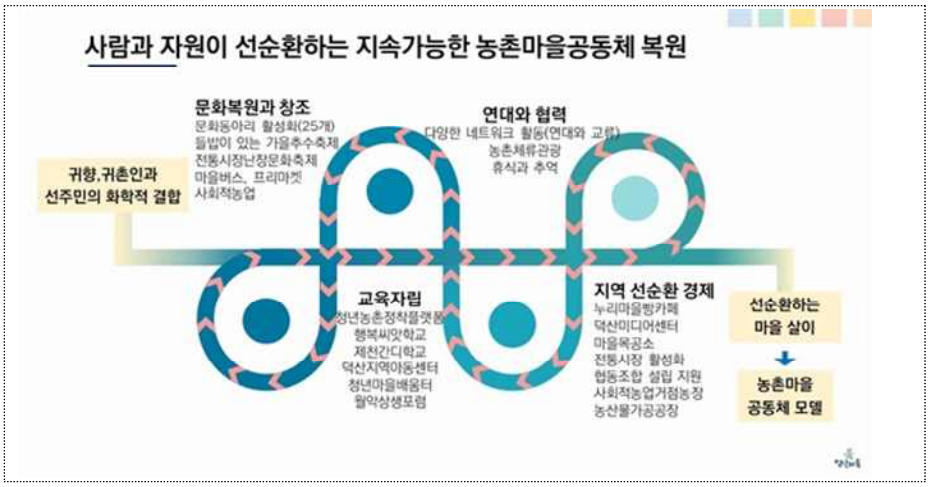
○ 주요한 교육분야는 '생활기술'(친환경농부, 생태건축목수, 봉제사, 로컬푸드 요리사 등)과 '사업기술'(마을계획가, 마을관리자, 공정여행가, 사회적기업가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이렇게 육성된 생활기술학교 수료자는 '농촌마을 기술사업단'을 후속 프로그램으로 지원하여 다양한 기술·재능·경험 등을 활용한 농촌마을 생활돌봄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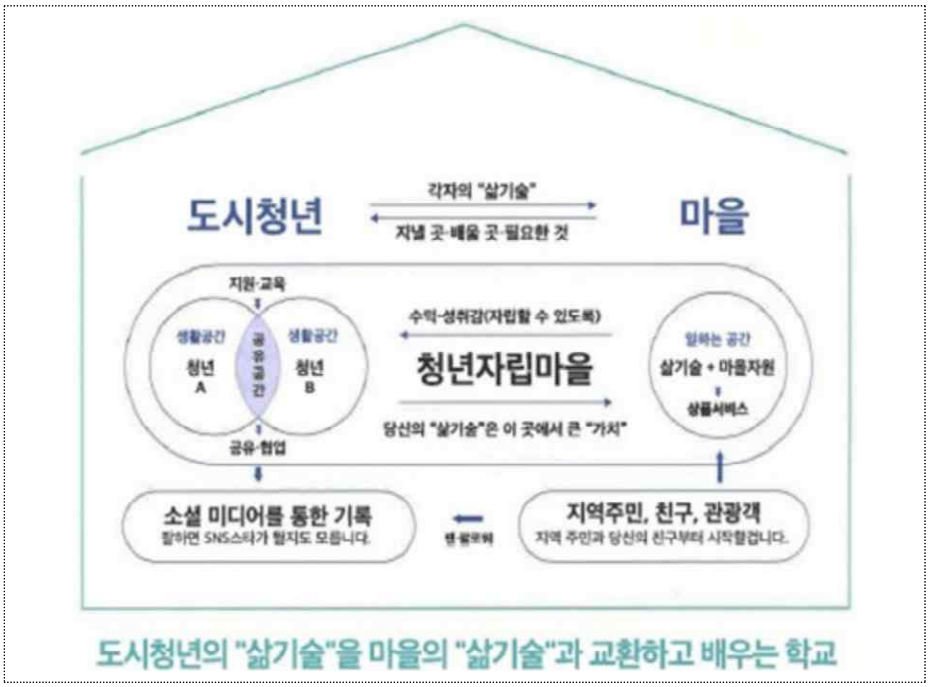
47 충북 제천시의 '청년농촌정착 플랫폼'과 충남 서천군의 '삶 기술 학교' 등이 있음

그림 5-8 청년의 농촌정착 플랫폼 기본구조



자료 : 박진도(2021), '자립하려는 도시 청년들, 이 마을로 오세요', 오마이뉴스.

그림 5-9 도시청년의 농촌사회 정착의 과제와 구조



자료 : 조원지(2021),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 플랫폼 운영방안', 전북연구원.

(5) 농촌학교와 농촌재생의 유지·연결[48]

□ 추진배경

○ 농촌학교가 사라지는 이른바 '폐교'는 자연스럽거나 기계적인 과정의 산물이 아니라, 지역사회·지역주민들의 정치적인 선택의 결과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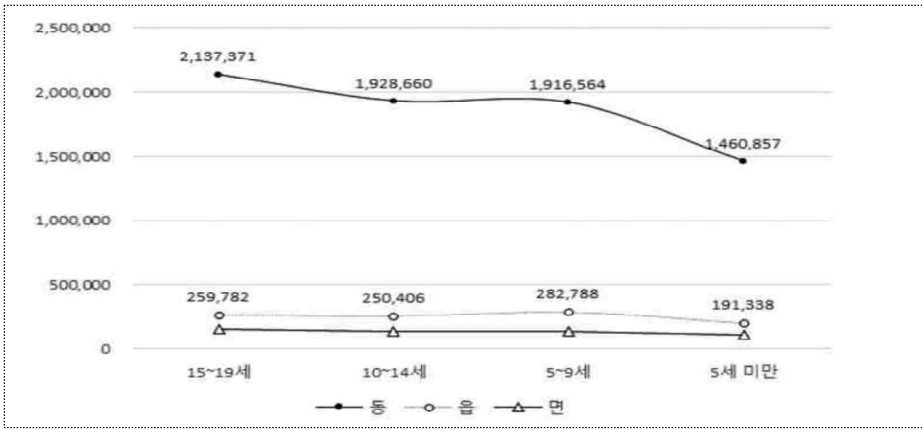
○ 농촌학교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논거를 '농촌재생' 관점에서 마련하여, 다각도의 정책 수단을 확보하고 입체적으로 투입해야 함

○ 농촌 지역사회에서 '섬'처럼 고립된 학교는 오래 갈 수 없고, 학교가 없는 지역사회도 지속하기 어려움

○ 농촌학교는 지역사회관계망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는데, 관계망 안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고 가르쳐야 함

○ 농촌사회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두어야 하는 계층은 학령기와 학령기 미만의 자녀를 둔 젊은 계층인데, 초등학교가 없는 지역으로 귀농·귀촌자가 이주할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임

그림 5-10 동·읍·면 지역의 학령인구 분포 (5세구간별)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2020년 기준); 김정섭(2021)에서 재인용

48 이 내용은 황영모(2023), '지역위기, 농촌학교살리기 대응전략', 전북지역교육연구소 세미나 발표자료에서 수정·작성하였음

○ 농촌지역에서 학령 인구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지는 않고 일정하게 현재의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지역사회에서는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는 '농촌학교 유지' 전략이 중요함

□ **추진방안**

○ (방향설정) 인구감소 고령화의 상황을 타개하는 '농촌재생'의 전략에서 중요한 과제가 바로 '농촌학교'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함

- 고령화가 심한 지역이라도 삶의 질 여건 상 젊은이가 '자녀를 양육하며 계속 살아가도 괜찮아'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농촌학교'라는 점을 포착해야 함
- 농촌사회를 유지하는 '긍정요인'이 작동하는 '결정적'인 정책적 내용과 수단이 바로 '농촌학교'임

○ (추진방향) 농촌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이주민의 지원과 일정 수준의 교육의 질을 만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결합시켜 나감

- 농촌학교는 정주(定住)의 필요조건이지만, 학교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으므로 교육적 활동 수준 향상도 중요함
- 농촌학교를 유지하고 이주민에게 거주할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농촌재생에서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음
-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질'은 학교가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며 지역사회로부터 교육자원을 얻는 것을 의미하므로 마을교육공동체가 필요

○ (마을교육 공동체)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학교, 시민단체, 주민 등이 협력·지원·연대하는 공동체임

- 마을교육공동체 전략은 중심이 되는 '학교'를 보완하는 주변이 되는 '마을'의 자원을 결합시키는 교육 활성화이자 농촌재생 전략임
- 교육에서 학교의 고유한 역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특권적 지위는 아니며, 마을과 학교의 대립 또는 경쟁구도도 아님
- 학교와 함께 마을 안에서 활동하는 여러 기관·단체·조직·개인도 교육의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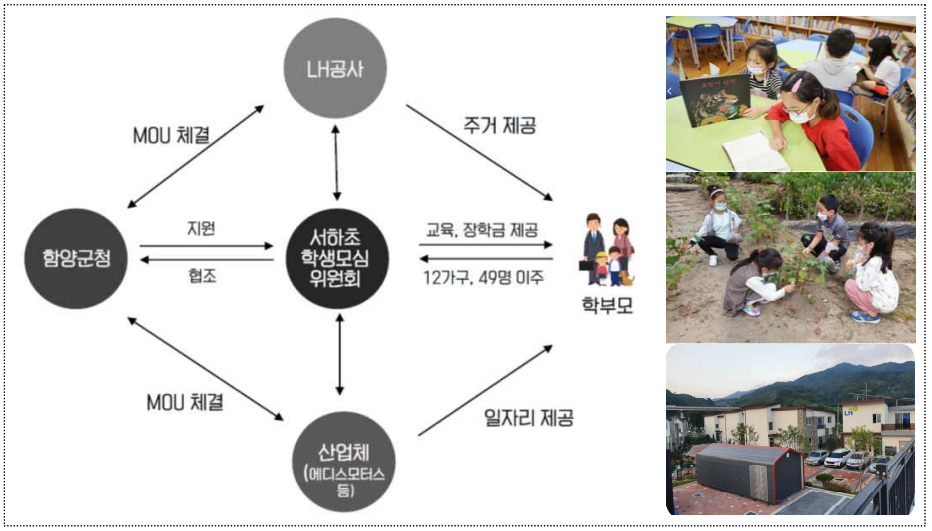
체이며, 서로 협력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하나의 연결망을 형성하는 구조

- 교육의 문제에 관해 '마을이 학교에 의존'하는게 일반적 모습이지만, '학교도 마을에 의존'하게 만드는 지역사회의 구조가 중요함

○ (마을교육 실행방향)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이라는 틀을 뛰어 넘어 '교육활동'을 매개로 지역사회 조직이 연결망을 형성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실천의 단계 만듦이 중요

- 마을교육공동체의 실천 전망 : 항상 다른 계기로 인해 흐려지거나 흔들릴 수 있음(원심운동 vs 구심운동)
- 마을교육공동체 실천은 학교·마을의 교육력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까지 전망하며 나가야 함
- 마을 사람이 하는 교육, 마을의 컨텐츠를 가지고 진행하는 교육, 학생이 마을로 나와 참여하는 교육으로 마을의 교육기능과 마을 안의 사회적 관계를 두텁게 하는 것이 중요함
- 마을교육공동체 실천은 학교와 마을이 교육활동을 매개로 상생 발전하자는

그림 5-11 농촌학교 유지와 살리기 전략의 사례



자료 : 장원(2022), '당신께서 오시니 유토피아입니다', 전북연구원 세미나.

취지를 지민 마을만들기(농촌사회 재생) 실천의 한 갈래임

○ 농촌학교 살리기 대표사례

- 서하초등학교 : 경남 함양군 서하면, 농촌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 유학 학생 유치와 지역사회 인구 증가 효과를 실증
- 지역사회 주체(지역활성화 및 작은학교살리기 협의회)가 모임을 통해 학생 모심 전략을 세우고 학교 교육과 연계한 농촌학교 살리리 프로젝트를 실행
- 학생의 유치를 위해 학부모 주택제공, 특화교 교육 확대, 지역사회 일자리 연계 등 가족 단위 농촌유학과 귀촌의 지원을 종합적으로 전개
- 그 결과 폐교 위기의 서하초등학교를 회생(13명→43명)시켰고, 인근 중학교도 늘었으며(3학급→5학급), 젊은 인구의 유입 등 서하면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6) 농업의 6차산업화 다각화 역량의 혁신[49]

□ 추진배경

○ 농업의 6차산업화는 다른 부문으로 유출되는 부가가치를 농업부문으로 되돌리는 '가치 되찾기'와 '지역 내 수요창출'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50]

○ 혁신에 의한 새로운 시장과 수요 창출이 필요하며, 가공품 제조·판매에 그치지 않고 관광·정보·레스토랑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종합대책(小田切德美 , 2010)

○ 농업의 6차산업화는 생산자가 공급사슬에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되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소득의 향상을 달성하는 생산자發 가치사슬 모델을 상정

○ 생산계획(상품전략, MD)의 혁신, 생산과정의 혁신, 판매전략의 혁신 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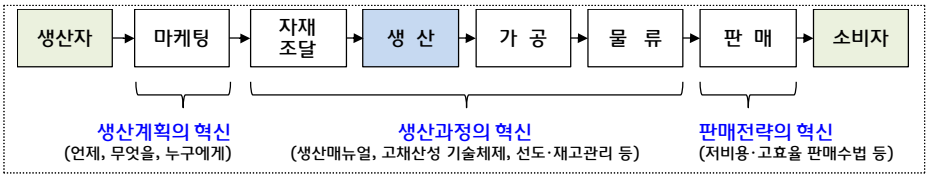
---

49 이 내용은 황영모(2016), '6차산업화 조직현황과 지역단위 대응방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차산업포럼 발표자료에서 수정·작성하였음

50 농업이 생산만 담당하지 말고 가공(식품기업), 유통(도소매업), 관광(정보서비스업)이 점유하고 있는 부가가치를 농업분야로 되찾아 오자는 제안임. 자세한 내용은 今村奈良臣(1994)를 참조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적 대응이 중요한 과제가 됨

그림 5-12 생산자발 가치사슬의 혁신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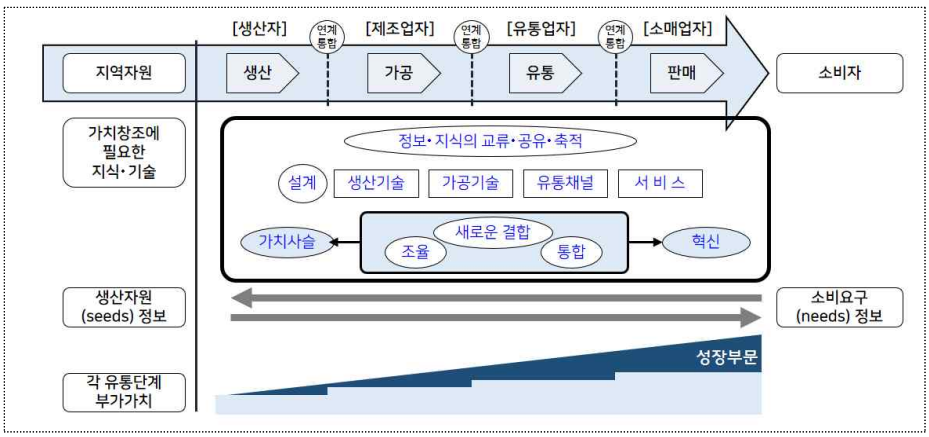
자료 : 日本 農林水産省(2011); 황영모(2016)에서 재인용

□ 추진방안

○ 산업적 분업화의 과정에서 강제된 단절을 가치사슬로 연계하는 농업분야 생산자의 주도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기본향임

- 농업의 6차산업화 혁신전략은 ①가치창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혁신, ② 소비자 요구에 대응한 지역 내 수요창출 등이 구체적인 실행전략

그림 5-13 농업의 6차산업화 다각화 전략의 방향



자료 : 日本 農林水産政策研究所(2015), '6次産業化の 論理と展開方向'; 황영모(2016)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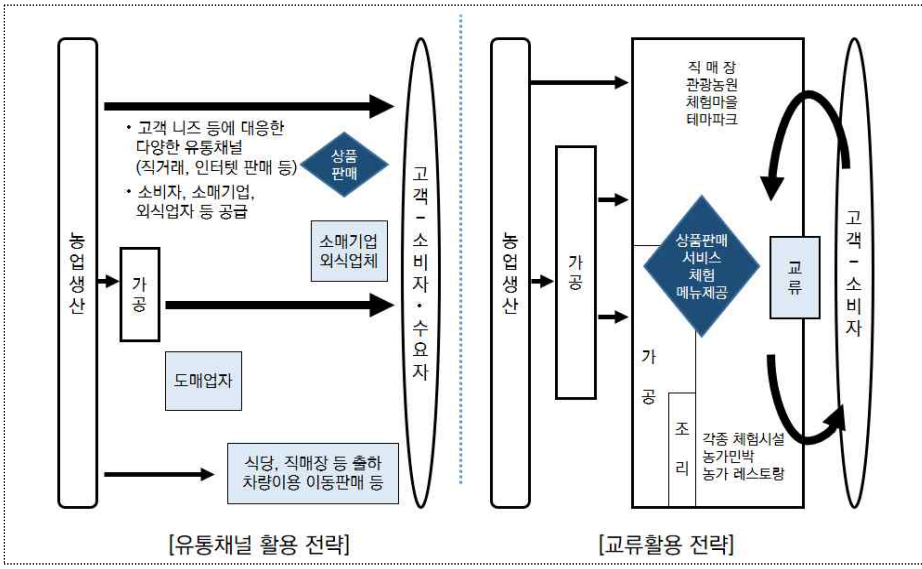
○ 농업의 6차산업화 다각화의 실행역량은 사업주체에 따라 대응하는 전략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개별 사업조직 통합형'과 '사업조직 간 연계형'으로 구분하여 대응이 필요

○ 개별 사업조직 통합형 : 범위의 경제에 의한 비용 저감(고정자원의 분산)과

자원의 결합, 내부거래, 관리비용 등을 원리로 함[51]

- 고객과 접점을 가지며 스스로 파악한 고객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 조직 내의 정보 지식 등의 공유 교류 등에 기초하여 각 단계의 조율에 의한 '전체 최적화'를 확인하는 대응이 가능함
- 부가가치 부분의 수취, 지식 기술 등의 내부축적과 내부자원의 활용, 기술연계(상호의존성)에 기초한 다품목 소량생산에도 대응이 가능함

그림 5-14 유통과 교류전략의 구분과 대응(개별조직)



자료 : 日本 農林水産政策研究所(2015), '6次産業化の 論理と展開方向'; 황영모(2016)에서 재인용

○ 사업조직 간 연계형 : '연결의 경제'에 의한 정보·지식의 발생·이용에 의한 상호작용(상호보완적 경영자원), '범위의 경제'[52]에 의한 비용절감(고정비 분산), 자원결합, 계약거래 등을 원리로 함[5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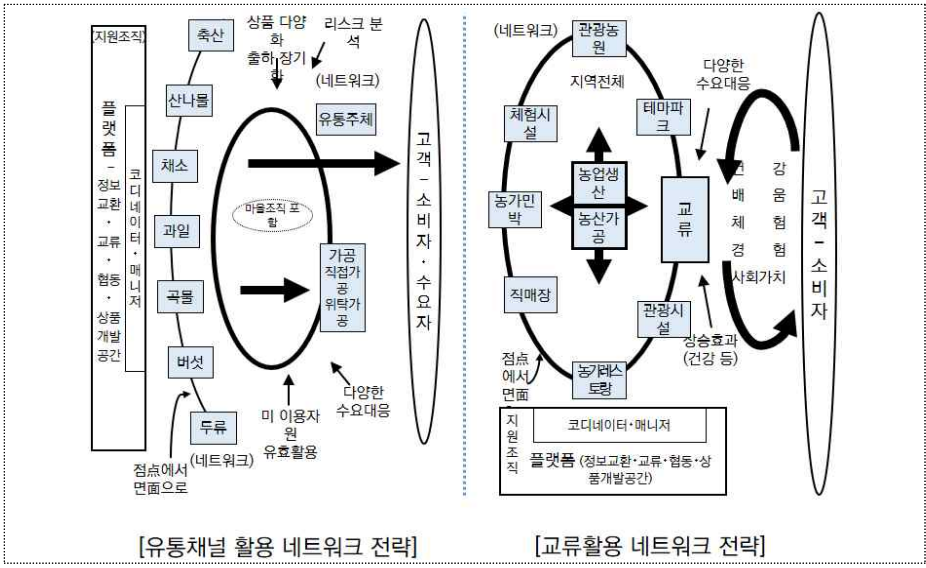
51 투자비용의 높이에 수반한 위험의 증가(매몰비용 증가 리스크 포함), 고정비용의 증가, 정보 지식 기술 노우하우 등의 적절한 습득, 정보 지식 등의 경직성의 가능성, 각 단계 최적규모 등 차이로 '규모의 경제'를 수용하기 어려운 가능성 등은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農林水産政策研究所(2015)을 참조.

52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때 각각 따로 생산하는 기업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현상. 공정상 필요 투입요소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얻는 경제효과, 조합의 경제성(economy of combination)

53 탈퇴 등이 자유롭고, 조직·통합 불안정성과 정보누설 등의 리스크, 연계·조정 미스매치 가능성, 연계 주체 간 부가가치 분배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있음. 자세한 내용은 農林水産政策研究所(2015)을 참조.

- 연계 주체 간 정보·지식 등으로 다양한 고객수요 대응한 공급, 경영자원의 다양한 결합에 의해 다품목 소량생산의 유연한 대응, 내부자원과 외부자원의 유연한 결합에 의한 활용이 가능
- 연계 주체 간 정보·지식 등 공유·교류 등에 기초한 각 단계의 조합에 의한 '전체 최적화'를 확인하는 대응이 가능

그림 5-15 지역 내 네트워크 전략으로 확대(조직연계)



자료 : 日本 農林水産政策研究所(2015), '6次産業化の 論理と展開方向'; 황영모(2016)에서 재인용

(7) 농촌마을만들기의 혁신과 플러스 추진[54]

□ 추진배경

○ '마을만들기 플러스 프로젝트'는 마을만들기에 도농융합상생 관점의 도시민-농촌주민의 사회적 수요와 필요를 결합한 '두 번째 삶터로서 색깔 입히

54 이 내용은 황영모 외(2021), '도농융합상생의 기본구상과 대응전략', 전북연구원에서 수정·작성하였음

기’로 요약됨

○ 지역사회가 추진해온 마을만들기 정책은 행복 삶터 농촌만들기를 선도해 왔지만,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여 농촌 신활력을 가져오는 혁신 프로젝트의 추진이 요구됨

○ 지역사회의 주요 자원인 ‘농촌마을’을 강화하여 도시민이 농촌지역에서 실현하고 싶은 사회적 수요(버킷리스트)에 대응하는 ‘플러스(plus, +) 프로젝트’ 추진이 실효적일 것임

○ ‘농촌마을 플러스 프로젝트’는 농촌주민 관점에서 도시민 수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를 강화하는 것으로 건축물 등의 하드웨어를 조성하는 방식은 지양

□ 추진방안

① 농촌마을 ‘농촌여행 플러스’ 프로그램

○ (기존사업) ‘도농교류 산촌 마당캠프,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등과 연계를 하여 사업을 추가·확장해 나감

○ (추가 프로그램) ‘농촌 소셜다이닝(팜파티)’ 등이며, 여기에 농촌여행을 결합하여 확산함

- ‘농촌 소셜다이닝’은 도시민이 일상에서 벗어나 농촌에서 자연경관과 정취를 즐기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식사 등을 통해 도농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임

② 농촌마을 ‘건강·치유 플러스’ 프로그램

○ (기존 사업) ‘사회적 농업·치유농장, 농촌마을 경관조성, 체험휴양마을 사업’ 등과 연계를 하여 사업을 확장함

○ (추가 프로그램) ‘치유·힐링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사업’ 등으로 신규 사업을 개발하여 도시민의 건강·치유 수요에 적극 부응해 나감

- ‘치유·힐링 프로그램’은 농촌공간에서 치유·힐링을 원하는 개인·단체·동호회 등에게 1박2일 치유·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임[55]

③ 농촌마을 '문화·예술 플러스' 프로그램

○ (기존사업) '농촌축제 지원사업, 농촌 재능나눔 지원사업'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농촌마을의 문화·예술 색깔을 한층 강화해 나감

○ (추가 프로그램) '농촌거점마을 등 농촌관광마을' 지원사업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문화·예술인이 농촌마을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간에는 마을에서 활동하며 마을을 문화·예술적 감각으로 가꾸어가는 공간으로 유도하는 장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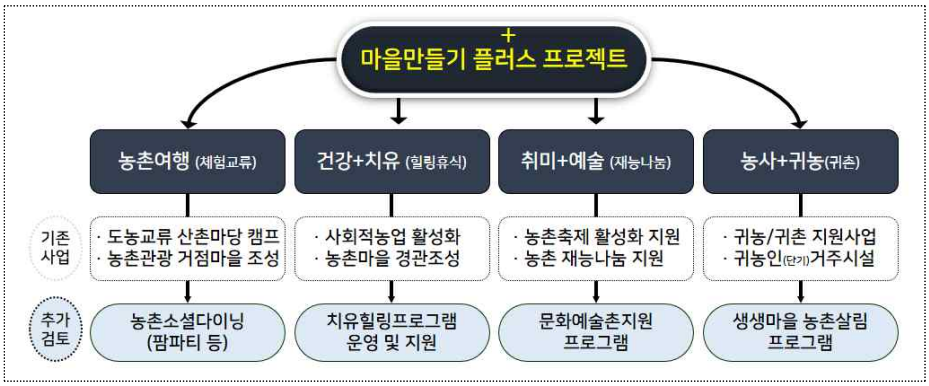
④ 농촌마을 '귀농·농사 플러스' 프로그램

○ (기존사업) '귀농·귀촌 지원, 귀농인 거주시설지원 사업' 등이 있는데 이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프로그램을 추가해 나감

○ (추가 프로그램) '귀농·귀촌인 농촌살림 지원 상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할 수 있는데, 농촌사회 정착 지원의 성격을 가짐

- '농촌살림 프로그램'은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융화하는 프로그램으로 농촌살림에서의 상생과 지혜를 찾아가는 주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임

그림 5-16 농촌마을만들기의 혁신 구조와 컨텐츠(예시)



자료 : 황영모 외(2021), 도농융합상생의 기본구상과 대응전략', 전북연구원에서 수정

55 농촌진흥청이 시행하고 있는 '치유형 농촌관광 체험 프로그램'이 대표 사례임

(8) 먹거리 매개 공유부엌과 돌봄농장 운영[56]

□ 추진배경 : 먹거리+농업활동 매개의 사회적 돌봄 확대

○ 농촌은 농업생산 활동으로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이며, 도시는 먹거리를 소비하는 소비지로 양분되어져 왔지만, 식(食)과 농(農)의 물리적·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먹거리를 매개로 '도농상생 먹거리 연대'가 강조되고 있음[57]

○ 농업적인 생산 기반이 없는 도시지역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일정한 방식으로 보장하기 위해 농촌지역과의 전략적인 제휴가 필요함을 강조하여 농촌재생을 도모해 나가야 함

○ 사회적으로 개인화, 감염병 등이 일상화되면서 신체적·심리적 피로가 누적되면서 이를 해결할 물리적·사회적 공간으로 농업을 매개로 한 치유활동에 주목하고 있음

○ 농업은 먹거리 생산 이외의 환경·자원·문화·경관·건강·복지 등 다기능성을 가지므로,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하는 활동이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음(이명헌, 2021)

○ 농촌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원인 농업생산과 먹거리를 매개로 도시의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수요와 결합하는 활동방식이야 말로 농업·농촌 쇠퇴에 대응하는 유효 전략임

□ 추진방안

① 지역 먹거리 체계[58] 관점에서 도시지역에서 먹거리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공유부엌(커뮤니티키친)'을 통해 먹거리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이뤄지는 실천공간을 구축·운영함

---

56 이 내용은 황영모 외(2021), '도농융합상생의 기본구상과 대응전략', 전북연구원에서 수정·작성하였음

57 먹거리 매개 도시와 농촌 상생방안은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있음. 서울시 강동구+완주군, 서대문구+전주시는 도농상생협약을 맺고 관내 공공급식소에 로컬푸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음

58 '지역 먹거리 체계'는 특정한 지역에서 먹거리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순환'되는 커뮤니티 푸드시스템임. 자세한 내용은 황영모 외(2020)을 참조

○ 공유부엌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먹거리 지원 프로그램의 한계[59]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지역거점 공동조리장에서 도시락이나 반찬 등 식품을 조리해 식생활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방식임

○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장애인보호시설 등에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 식재료 또는 식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먹거리 돌봄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음

○ 도시지역에 공유부엌(거점공동조리장)을 설치하거나 로컬푸드 매장의 기능을 다양화하여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공간을 조성함

○ 시민사회단체·사회적경제 조직이 공유부엌의 운영주체가 되거나 식사배달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업·활동 모델의 연계가 가능함

○ 도시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농촌지역에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먹거리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거나, 농번기 공동급식 등의 기능도 수행해 나갈 수 있음

그림 5-17 마을부엌 먹거리 돌봄의 영역과 과제



자료 : 서울시 마을부엌 홈페이지; ; 황영모 외(2021b)에서 재인용

59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은 급식카드(바우처)를 통한 편의점 즉석식품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고, 노인계층 급식지원 역시 통조림이나 즉석식품으로 제공하는 형태가 많아 균형 잡힌 식사가 못 된다는 지적이 많음

② 농업·농촌의 다기능성을 중심으로 농업과 관련한 활동을 통해 현대인이 안고 있는 의학적·사회적 치료를 담당할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치유·돌봄농장'을 운영함

○ 치유농업은 스트레스·우울 등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은 이들뿐만 아니라 의학적·사회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농업활동을 이름(김경미 외, 2013)[60]

○ 도시 근교를 중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농촌에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교육·재활·고용이 가능한 다기능 농업에 중점을 둔 치유·돌봄농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농업의 다기능성은 농업활동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즐길거리·볼거리·먹거리 등을 통해 다양한 특성을 가는 이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 재충전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농촌을 혁신해 나갈 수 있음

○ 마을형 치유·돌봄농장은 마을의 기존 자원과 '치유농업'을 결합하는 것으로 체험농장·관광자원·편의시설(숙소·레스토랑·휴게시설), 인적 자원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함

○ 치유·돌봄농장과 농촌관광의 핵심자원(요소)들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기

그림 5-18 치유농업의 개념과 작동체계



자료 : 농사로 농사백과; 황영모 외(2021b)에서 재인용

60 치유농업(care farming)은 사회적농업(social farming)과 혼용해 사용되고 있으나, 지향점은 상이함. 치유농업의 대상은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치유가 필요한 이들인 반면, 사회적농업은 '돌봄, 교육, 일자리'가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임. 자세한 내용은 조원지 외(2021)을 참조.

존 농촌 마을만들기 시스템과의 결합을 통해 도농융합의 새로운 확장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음

⑼ 농촌사회 청년활동 혁신거점의 조성[61]

□ 추진배경

○ 지방소멸 지역사회 대책은 평면적인 인구 유입의 촉진에 초점을 두어 실제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의 역할과 그들의 지역사회 정착방안 등은 주요하게 다뤄오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단순한 인구유입을 넘어 혁신활동을 담당할 주체의 관계망을 농촌에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주목하여 지식·기술·전문역량을 가진 '청년활동' 거점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함

○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은 다양한 사회활동을 추구하는 비경제적 요인이 늘고 있는데, 귀농·귀촌인의 농촌사회 정착경로를 고려하면 일정 활동공간을 거쳐 활동 인력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귀농·귀촌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지역의 사회자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이들이 기댈 수 있는 이른바 '비빌 언덕'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하고 운영해 나갈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 추진방안

① 청년 활동인력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고, 다양한 혁신활동이 이뤄지는 '농촌형 사회혁신허브'를 조성함

○ 귀농·귀촌자가 겪는 큰 어려움은 '일자리, 주택, 커뮤니티'로,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완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이 갈수록 중요해짐

○ 귀농·귀촌인의 '비빌 언덕'으로 농촌형 공동체 주택 사업을 추진, 거주를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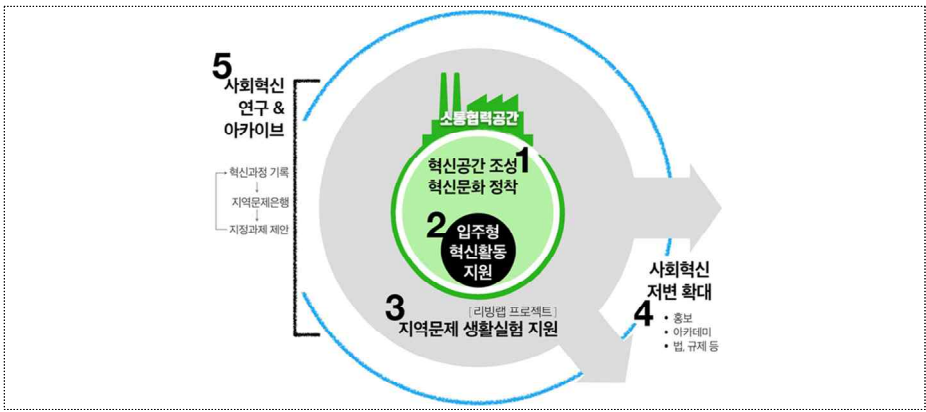
61 이 내용은 황영모 외(2021), '도농융합상생의 기본구상과 대응전략', 전북연구원에서 수정·작성하였음

한 저렴한 집이면서, 다양한 창업을 하는 일자리를 위한 농촌형 직주(職住) 공간으로 문화 인프라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음

○ ‘농촌형 사회혁신허브’는 컨텐츠와 작동방식이 ‘주거, 체험, 실험, 소셜벤처, 교류공간’ 등 복합된 공간임

- (주거공간) 청년사회주택, 레지던스, 게스트하우스 등 지역주민, 귀농·귀촌인, 체험·교류 중·단기 주거공간
- (체험공간) 비전화공방, 전환마을 등의 체험공간
- (실험공간) 다양한 의제·주체 참여하는 ‘리빙랩, 사회혁신랩’ 등 공동작업 및 실험공간
- (소셜벤처공간) 사회적경제, 지역공동체, NPO, 중간지원조직, 연구소 등 오피스 공간
- (교류공간) 도서관 등 사회혁신 아카데미·컨퍼런스, 성과공유 및 혁신네트워크 공간

그림 5-19 농촌형 사회혁신허브 개념도



자료 : 행정안전부(2018); 황영모 외(2021)에서 재인용

② 도시 청년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이주·정착경로를 고려한 ‘청년협업농장’을 다수 운영함

○ 도시청년은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거쳐 농촌사회에 진입하지만, 영농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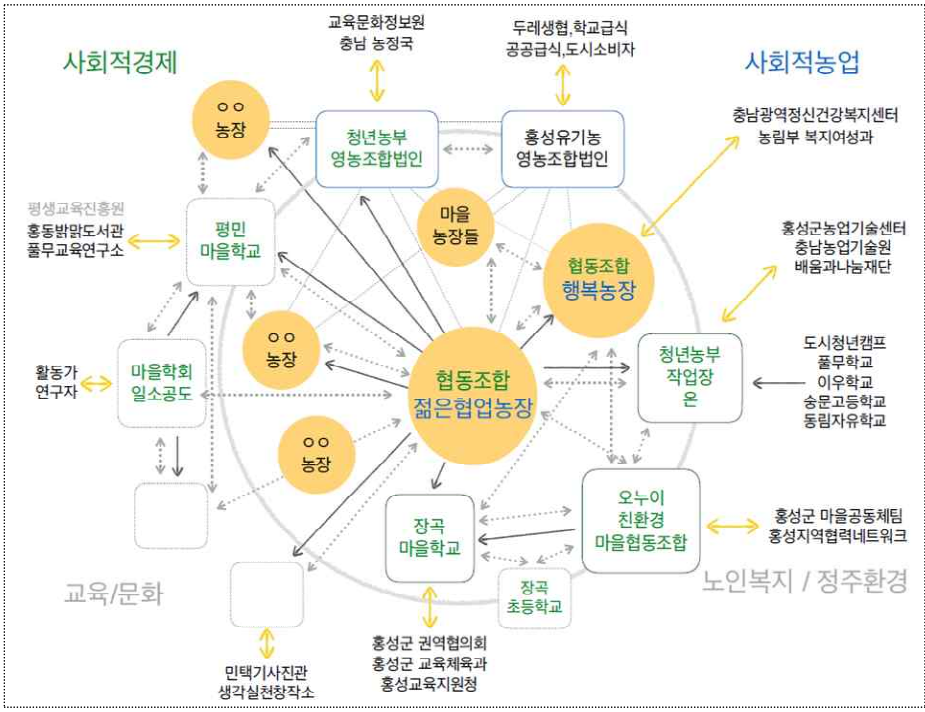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어 농촌사회 농촌 후계자가 될 수 있는 '비빌 언덕'을 협업농장 방식으로 운영함

○ 기존 귀농자를 인큐베이팅하는 '교육·육성농장'은 영농창업에 집중하여 농촌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활동 등은 다루지 않아 '청년협업농장'을 통해 농촌사회 정착의 마중물 붓기 역할을 부여함

○ '청년협업농장'에서 영농활동을 매개로 하되, 농촌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혁신 활동의 수요를 파악하고, 귀촌 청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거점으로 기능함

○ 청년협업농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주체가 되어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도시청년이 농촌사회에 정착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

그림 5-20 청년협업농장을 통한 지역사회 혁신활동 연계망(예시)



자료 : 정민철(2019), '농업과 농촌, 홍동과 장곡 지역의 경험을 중심으로',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세미나.

(10) 농촌 일자리·일거리 지원조직의 운영[62]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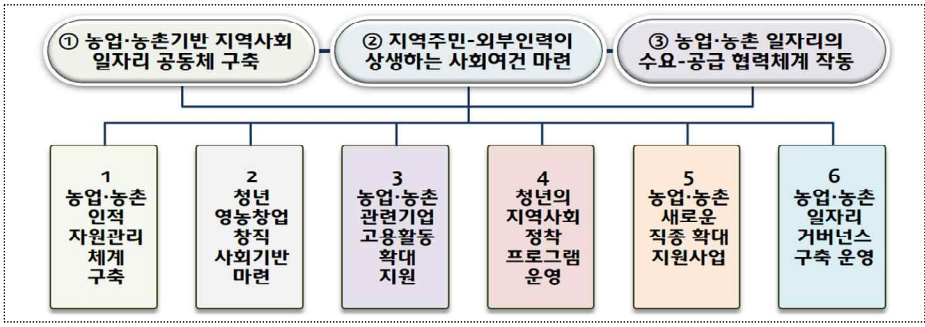
○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주민(사회)의 수요와 필요를 위해 농업·농촌의 여러 자원을 매개로 사업과 활동이 전개되면서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왔음

○ 과소화·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 유지는 전통적 방식의 농업 일자리를 벗어나 농업과 관련된 농촌사회 일자리의 창출이 요구되고 있음

○ 농촌지역에서 농업과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농업·농촌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대응이 강조됨

○ 농촌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와 일거리를 매개로 도시지역의 인력이 상시적으로 농촌사회와 결합하는 '농촌사회 일자리·일거리 지원체계'를 갖추고 운영하면서 강화해 나가는 전략이 중요함

그림 5-21 농촌사회 일자리·일거리 지원 핵심전략



자료 : 황영모 외(2019), '임실군 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

□ 추진방안

○ 농촌이 가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발굴과 정책대응을 위해 '시·군 농업·농

62 이 내용은 황영모 외(2021), '도농융합상생의 기본구상과 대응전략', 전북연구원에서 수정·작성하였음

촌일자리플러스센터'가 관련 주체들의 구심점이 되어 농촌 일자리를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 기존의 지역 일자리 정책은 행정 부서 내 정책 칸막이로 일자리 업무의 조정·통합이 어렵고, 현장 일자리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일자리의 시너지 창출에 많은 한계가 있었음
- 농업·농촌 일자리와 관련된 주체들(수요자-공급자) 간의 상시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기획·프로젝트로 정책사업 실행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중간지원조직 구축이 관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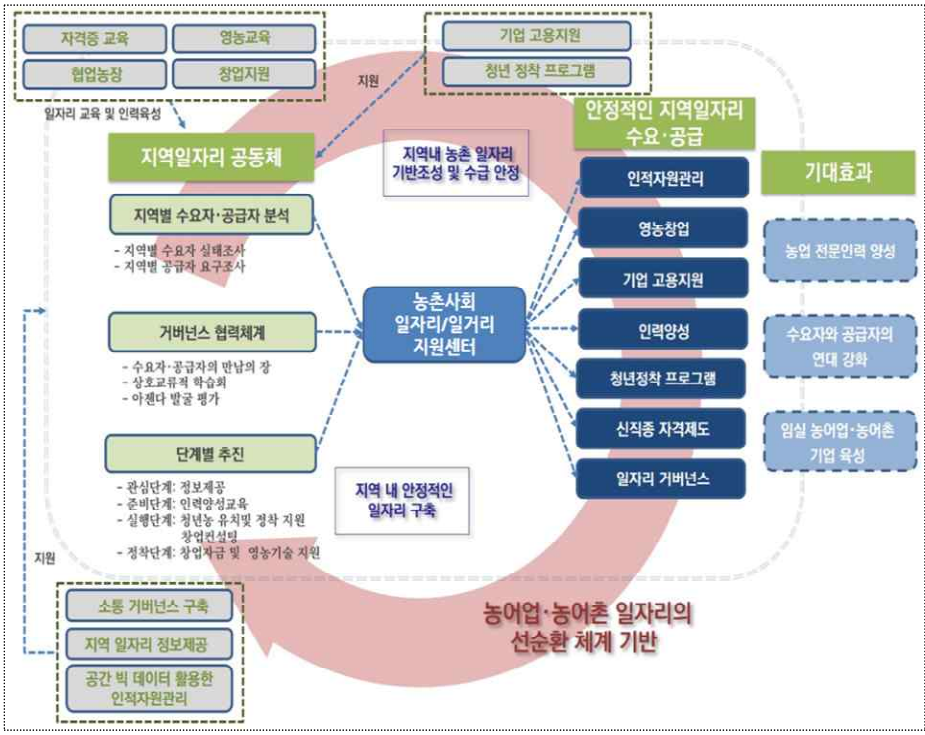
○ 농업·농촌 일자리·일거리 지원센터는 '청년의 창직과 정착기반' 조성, 농촌기업의 '지역사회 고용확대' 촉진, 지역사회 '농업·농촌 일자리 DB구축'을 통한 통합적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해 나감

- 전통적인 창농(創農)의 관점을 농업·농촌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직(創職)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정착기반을 사회적으로 지원해 나감
- '농자재-생산-가공-유통-판매-체험-관광-돌봄-복지-지역개발-연구개발-지원' 등 단계별 일자리·일거리와 기업·단체·조직의 필요 인력을 지원함
- 분산되어 있는 일자리·일거리 수요자의 필요와 요구를 지속적으로 담아낼 뱅크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단체·기관의 수요에 매칭시킬 수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함

○ 농업·농촌의 일자리·일거리는 농업·농촌을 매개로 하는 지역의 생산활동과 삶의 터전을 지켜내는 '지역사회 일자리'를 방향으로 전략을 실행해 나감

- 청년 영농창업과 새 직업을 만드는 창직(創職)의 사회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상의 필요와 수요에 대응하는 창직을 촉진하고 지원해 나감
- 농업·농촌 관련 기업 고용활동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업·단체·기관 등이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함
- 지역사회에서 농업·농촌에 관계하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일자리 거버넌스 체계로 상시적인 정보의 교류가 이뤄지도록 유도해 나감

그림 7-1 농촌지역 일자리·일거리 지원센터의 역할 구조



자료 : 황영모 외(2019), '임실군 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

부록

농촌사회 주요 이슈

농촌사회 주요 이슈[63]

□ [취약계층]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집중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권 지역을 제외하고 비교적 농업활동이 많은 경남(110,235가구), 경북(100,108가구), 전북(83,759가구), 전남(71,217가구) 등의 순(세대 유형:노인, 일반, 장애인 세대 순으로 비중이 큼)

부표 1-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실태-시도별·세대별 ('21년) (가구)

시도	총가구	합계	세대 구분						
			노인 세대	일반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	소년소녀 가장	미혼부모 세대	조손 및 기타 세대
합계	22,022,753	1,637,569(7.4)	518,799	442,202	236,581	225,143	1,892	3,491	209,461
서울	4,191,171	289,518(6.9)	92,926	84,131	35,987	35,514	219	493	40,248
부산	1,447,194	157,075(10.9)	52,343	45,897	20,080	19,184	151	251	19,169
대구	1,013,488	100,143(9.9)	30,149	32,327	13,395	14,152	97	182	9,841
인천	1,216,719	106,149(8.7)	30,807	26,491	12,693	17,204	148	301	18,505
광주	625,511	59,156(9.5)	15,404	18,324	9,106	11,079	99	195	4,949
대전	648,593	48,792(7.5)	13,936	15,609	7,964	7,784	37	103	3,359
울산	460,289	27,144(5.9)	8,175	6,899	3,517	3,638	32	60	4,823
세종	147,347	4,818(3.3)	1,323	1,130	589	848	5	13	910
경기	5,492,783	288,757(5.3)	92,191	67,750	37,958	43,156	375	783	46,544
강원	682,635	59,175(8.7)	20,533	15,035	9,882	7,432	74	82	6,137
충북	713,434	51,604(7.2)	17,482	12,484	9,081	6,850	86	101	5,520
충남	947,235	59,096(6.2)	19,610	13,746	10,689	7,501	80	121	7,349
전북	785,218	83,759(10.7)	24,616	22,264	14,395	11,633	118	175	10,558
전남	788,992	71,217(9.0)	25,962	16,646	14,528	7,863	109	90	6,019
경북	1,178,040	100,108(8.5)	32,318	27,332	16,225	12,027	110	199	11,897
경남	1,405,646	110,235(7.8)	35,125	29,993	17,393	15,433	131	286	11,874
제주	278,458	20,823(7.5)	5,899	6,144	3,099	3,845	21	56	1,759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21.

63 이 내용은 황영모 외(2022), '농촌형 사회문제 해결 R&D 도입전략 수립 연구', 농촌진흥청에서 수정함

○ 고령자 실태를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면 농촌은 60세 이상 고령자는 69.1%를 차지, 도시는 19.5% / 농촌지역의 고령인구 추이를 보면 65세 이상 비중이 2021년 기준 46.8%, 해마다 증가세를 보임

부표 1-2 고령자 실태-도농별·연령별 ('21년) (명)

구분	전국	도시(동부)	농촌(읍면부)	농촌 비율
총 인구	51,639	47,181(100.0)	4,458(100.0)	8.6%
합계	12,266	9,184(19.5)	3,081(69.1)	25.1%
60~64세	3,988	3,114	874	21.9%
65~69세	2,902	2,224	678	23.4%
70~74세	2,042	1,531	511	25.0%
75~79세	1,530	1,110	420	27.5%
80~84세	1,092	743	349	31.9%
85세 이상	711	249	462	35.0%

자료 : 국토교통부·LX, 「도시계획현황」; 통계청, 「인구총조사(전수부문)」, 2021.

부표 1-3 농촌지역 고령인구 추이-최근 7개년 ('15년~'21년) (천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농가인구 (총인구 중 비중)		2,569 (5.0)	2,496 (4.9)	2,422 (4.7)	2,315 (4.5)	2,245 (4.3)	2,314 (4.5)	2,215 (4.3)
(65세 이상 비중)		38.4	40.3	42.5	44.7	46.6	42.3	46.8
독거노인 (65세 이상)	전국	1,223	1,294	1,371	1,445	1,533	1,661	1,824
	도시(동)	795	850	911	971	1,047	1,150	1,273
	농촌(읍면)	428	444	460	474	486	511	551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농업총조사」, 「인구총조사」, 각 년도.

□ [취약계층] 낮은 소득수준, 보육아동

○ 저소득 및 한부모 가족 실태를 보면 대도시권을 제외하면 비교적 농업 생산 비중이 높은 경남, 경북, 전북, 전남 지역의 인구 분포가 높음

부표 1-4 차상위 및 한부모 가족 수급자 수 현황 ('21년)

시도	총인구(명)	합계(명)	성별	
			남성(명)	여성(명)
전국	51,738,071	1,016,340 (2.0%)	395,134	621,206
서울	9,472,127	152,234 (1.6%)	61,919	90,315
부산	3,324,335	77,661 (2.3%)	30,308	47,353
대구	2,387,911	56,878 (2.4%)	22,283	34,595
인천	2,957,044	63,842 (2.2%)	25,163	38,679
광주	1,475,262	38,278 (2.6%)	15,263	23,015
대전	1,479,740	32,456 (2.2%)	12,945	19,511
울산	1,120,753	17,845 (1.6%)	6,997	10,848
세종	366,227	3,593 (1.0%)	1,383	2,210

시도	총인구(명)	합계(명)	성별	
			남성(명)	여성(명)
경기	13,652,529	192,729 (1.4%)	77,325	115,404
강원	1,521,890	37,541 (2.5%)	14,003	23,538
충북	1,624,764	32,821 (2.0%)	12,389	20,432
충남	2,175,960	39,256 (1.8%)	14,654	24,602
전북	1,787,053	61,784 (3.5%)	23,163	38,621
전남	1,778,124	55,873 (3.1%)	19,679	36,194
경북	2,635,314	65,302 (2.5%)	23,729	41,573
경남	3,305,931	72,883 (2.2%)	27,707	45,176
제주	673,107	15,364 (2.3%)	6,224	9,140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및한부모가족수급자현황」, 2021.

○ 보육아동의 경우 농촌지역은 농촌지역 인구대비 약 19.3%의 비중을 차지하며, 단일보육의 형태로는 어린이집, 학원, 조부모, 유치원, 방과후 학교 및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부표 1-5 보육상태별 아동 수 현황-도시/농촌 ('20년)

시도	전국(천 명)	도농구분 (천명)	
		도시(동)	농촌(읍면)
총인구	51,829(100%)	47,279(100%)	4,550(100%)
총 12세 이하 아동	5,198(10.0%)	4,318(9.1%)	879(19.3%)
단일보육상태	3,704	3,081	623
부모	2,080	1,764	317
조부모(친가,외가)	305	264	41
기타 가족 및 친,인척	35	30	5
가사 도우미,베이비시터	25	23	2
혼자 또는 다른아동과 지냄	112	93	19
어린이집	498	401	97
유치원	220	182	38
지역아동센터	32	22	10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112	79	33
학원(예체능포함, 놀이학교, 영어유치원등)	282	221	61
기타	3	2	1
복합보육상태	1,494	1,237	257
아동의부모+어린이집	345	283	62
아동의부모+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64	45	19
아동의부모+유치원	186	157	29
아동의부모+아동의 조부모	111	96	15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지역아동센터	6	3	3
복합수단기타	782	653	130

자료 : 국토교통부·LX, 「도시계획현황」;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0

□ [생활·복지] 새로운 변화가 없는 일상생활 여건

○ 농촌의 전반적인 생활 여건을 살펴보면 도시에 비해 좋아졌다고 체감하는

비중이 33.4%, 도시는 31.1% / 사회보장제도의 경우도 도시 47.9%, 농촌 49.1%로 농촌지역의 여건이 좋아졌다는 의견이 많음

부표 1-6 전반적인 생활 여건 비교-도농별 ('21년)

도농별	전반적 생활 여건			사회보장제도		
	좋아짐	변화 없음	나빠짐	좋아짐	변화 없음	나빠짐
도시(동)	31.1%	42.9%	26.0%	47.9%	45.9%	6.1%
농촌(읍면)	33.4%	47.0%	19.6%	49.1%	46.2%	4.7%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21.

○ 농촌지역에서 최근 3년 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행복감과 살고 있는 곳의 만족감은 농촌이 높았으나, 발전 전망의 차원에서는 도시에 비해 만족감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

부표 1-7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농별 최근 3개년 추이('19~'21년) (11점 리커트)

도농별	현재 행복감			살고 있는 곳의 만족감			마을 발전 전망			시·군 발전 전망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도시	5.7	5.5	6.2	6.0	5.8	6.4	6.2	6.2	6.8	6.3	6.3	6.9
농촌	6.4	6.2	6.6	6.4	6.3	6.7	6.3	5.7	6.5	6.4	6.0	6.6
도농차이	0.7	0.7	0.4	0.4	0.5	0.3	0.1	-0.5	-0.3	0.1	-0.3	-0.3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2021.

○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의 생활(삶)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행복감이 57.5점으로 나타나 보통이상의 수준(상대적으로 면지역보다는 읍지역의 행복감이 높고, 비농어가에 비해 농어가의 행복감이 더 높음)

부표 1-8 농촌지역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21년)

구분		행복감 평균 점수	행복한 편	보통	행복하지 않은 편
농촌지역 전체		57.5점	43.0%	42.6%	14.4%
읍		59.2점	48.1%	39.0%	12.9%
면		55.8점	38.2%	46.0%	15.8%
영농여부	농어가	58.1점	43.7%	43.3%	13.0%
	비농어가	57.2점	42.7%	42.3%	14.9%

자료 : 농촌진흥청,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2021.

○ 노후를 위한 사회의 역할로서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으로 노후소득지원이 도시 38.7%, 농촌 39.4%로 제안되었으며, 다음으로 의료·요양서비스, 취업

부표 1-9 노후를 위한 사회의 역할 ('21년)

도농별	노후소득 지원	의료·요양 보호서비스	노후취업 지원	문화·여가 복지서비스	세대간 이해 증진 교육	교통,주거 환경 조성	기타
도시(동)	38.7%	25.4%	23.1%	7.3%	2.7%	2.6%	0.1%
농촌(읍면)	39.4%	26.8%	19.9%	8.8%	2.9%	2.1%	0.0%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21.

지원 등의 순(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면, 취업지원과 교통,주거 환경 조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모두 농촌지역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

□ [생활·복지] 부족한 복지서비스

○ 농촌의 노인돌봄시설의 경우 노인복지관은 도시에 평균 0.2개소, 농촌에는 평균 0.01개소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도시 1.7개소, 농촌 0.5개소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기요양기관도 도시 11.0개, 농촌은 평균 0.8개 기관으로 노인 돌봄의 여건이 비교적 낙후

부표 1-10 노인 돌봄 시설 수 현황-도농별 ('19년)

도농별		행정구역[1]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노인여가복지시설[2]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소수	(지역당)
			개소수	(지역당[3])	개소수	(지역당)	개소수	(지역당)		
전체		3,543	391	(0.11)	5,530	(1.56)	4,823	(1.36)	29,043	(4.94)
도시(동부)		2,080	305	(0.15)	3,403	(1.64)	3,476	(1.67)	22,942	(11.03)
농촌	합계	1,463	86	(0.06)	2,127	(1.45)	1,347	(0.92)	6,101	(1.61)
	읍부	251	69	(0.27)	758	(3.02)	710	(2.83)	3,409	(13.58)
	면부	1,212	17	(0.01)	1,369	(1.13)	637	(0.53)	2,692	(0.76)

주 1. 실제 읍·면·동 행정구역의 수가 아니라 통계 자료에 나타난 행정구역의 수
2.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
3. 읍면동 행정구역당 시설수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2021.

○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의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시설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준

부표 1-11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도농별 ('20년) (개소,%)

도농별		행정구역[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쟁이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근로 사업장	보호 작업장
전체		3,543	770	313	254	767	65	593
도시(동부)		2,080(58.7)	617(80.1)	141(45.0)	187(73.6)	649(84.6)	42(64.6)	402(67.8)
농촌	합계	1,463(41.3)	153(19.9)	172(55.0)	67(26.4)	118(15.4)	23(35.4)	191(32.2)
	읍부	251(7.1)	60(7.8)	51(16.3)	50(19.7)	73(9.5)	9(13.8)	70(11.8)
	면부	1,212(34.2)	93(12.1)	121(38.7)	17(6.7)	45(5.9)	14(21.5)	121(20.4)

주 : 실제 읍·면·동 행정구역의 수가 아니라 통계 자료에 나타난 행정구역의 수
자료 : 보건복지부(2020).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농업전망-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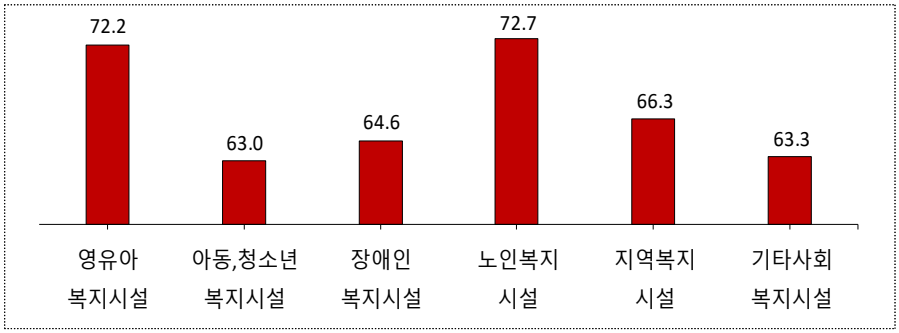
○ 농촌지역의 전반적인 복지여건에 대해서는 48점/100점으로 낮은 성적표를 보이고 있으며, 대체로 불만족

부표 1-12 농촌지역의 전반적 복지 여건 만족도 ('21년)

구분		만족도 평균 점수	만족함	보통	불만족함
농촌지역 전체		48.0점	20.4%	51.9%	27.7%
읍		47.9점	20.0%	52.4%	27.6%
면		48.0점	20.8%	51.5%	27.7%
영농여부	농어가	47.5점	18.7%	53.1%	28.2%
	비농어가	48.2점	21.1%	51.4%	27.5%
성별	남성	47.8점	18.0%	55.0%	27.0%
	여성	48.2점	22.2%	49.6%	28.2%

자료 : 농촌진흥청,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2021.

부도 1-1 농촌지역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100점 기준)



자료 : 농촌진흥청,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2021.

□ [경제·노동] 낮은 경제활동 여건

○ '농촌지역의 월평균 생활비는 약 182만 원으로 확인되며, 주 사용처는 식료품비(63.7%)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교통·통신비(33.2%), 교육비(18.6%), 광열수도비(14.3%) 등의 순(읍 지역>면 지역, 비농어가>농어가, 남성>여성)

부표 1-13 농촌지역의 월평균 생활비 ('21년)

구분		월평균생활비 (만 원)	식료품비	주거비	보건 의료비	광열 수도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기타
농촌지역 전체		182.1	63.7%	10.2%	13.9%	14.3%	18.6%	33.2%	28.3%
읍		215.5	76.9%	12.9%	13.5%	15.3%	27.1%	38.0%	31.8%
면		150.9	51.4%	7.7%	14.2%	13.3%	10.6%	28.7%	24.9%
영농여부	농어가	151.9	49.5%	5.9%	17.2%	15.8%	11.7%	29.4%	22.5%
	비농어가	194.6	69.6%	11.9%	12.5%	13.6%	21.4%	34.8%	30.6%
성별	남성	193.6	67.0%	9.5%	14.4%	15.1%	17.5%	37.6%	32.5%
	여성	173.4	61.3%	10.7%	13.5%	13.6%	19.4%	29.9%	25.1%

자료 : 농촌진흥청,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2021.

○ 농촌의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72.3%로 가장 높은 비중, 다음 순으로 정부·사회단체 지원(14.7%) -> 도시에 비해 근로 및 사업 소득의 비중이 높고, 재산, 예금 등의 비중은 낮음

부표 1-14 60세 이상 고령자 생활비 마련 방법 ('21년)

도농별	본인 배우자 부담	자녀 친척 지원	정부 사회단체 지원	소득					
				소계	근로 및 사업	연금 및 퇴직금	재산	예금	기타
도시(동)	72.6%	14.5%	12.9%	100.0%	53.6%	8.7%	32.0%	5.8%	0.0%
농촌(읍면)	72.3%	13.0%	14.7%	100.0%	68.2%	5.0%	23.0%	3.8%	0.0%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21.

○ 농어가의 소득구조를 보면 2021년 기준 전업이 67.5%, 겸업이 32.5%이며, 겸업 농어가의 경우 작년 대비 농외소득이 더 증가하였으며, 자영업 비중이 늘어난 특징(상용근로자가 줄고 임시 및 일용직 증가)

부표 1-15 농촌지역의 농어가 소득구조 ('20년~'21년)

구분	전업	겸업	겸업					겸업 농어가 대상		
			농어업 외 직종 형태		종사자 지위					
			자영업	임금근로	상용	임시	일용	농업소득	농외소득	기타소득
2021년	67.5%	32.5%	34.9%	65.1%	53.5%	23.5%	21.5%	28.9%	66.3%	4.8%
2020년	70.2%	29.8%	30.5%	69.5%	56.1%	16.5%	20.2%	31.3%	57.0%	11.7%
전년차이	-2.7%	2.7%	4.4%	-4.4%	-2.6%	7.0%	1.3%	-2.4%	9.3%	-6.9%

자료 : 농촌진흥청,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2021.

○ 농촌의 경제·일자리 부문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농촌이 모든 부문별로 도시보다 낮은 수준, 부문 중에서는 농외소득이 높음

부표 1-16 경제·일자리 부문 만족도 ('21년) (11점 리커트)

도농별	소득 기회	경제활동 여건 향상	일자리 지원	농외소득	여성 농업인·다문화 주민 일자리 지원
도시	5.7	5.6	5.6	-	-
농촌	5.2	5.3	5.3	5.6	5.4
도농차이	-0.5	-0.3	-0.2	-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2021.

□ [경제·노동] 노동의 성별격차 상존

○ 도농별 경제활동 인구의 특성으로 농촌의 경우 성별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많이 분포, 도시는 이와 반대

부표 1-17 도농별·성별 경제활동 인구 ('20년)

도농별		15세 이상 인구	일하였음	주로 일하였음	틈틈이 일하였음	일시 휴직	일하지 않았음
전국	합계(명)	43,971,375	25,839,568	23,380,924	1,715,858	742,786	18,131,807
	남성(명)	21,556,012	14,755,802	13,841,057	567,151	347,594	6,800,210
	여성(명)	22,415,363	11,083,766	9,539,867	1,148,707	395,192	11,331,597
도시(동)	합계(명)	35,649,991	20,954,311	18,875,916	1,441,369	637,026	14,695,680
	남성(명)	17,368,599	11,874,428	11,106,996	474,735	292,697	5,494,171
	여성(명)	18,281,392	9,079,883	7,768,920	966,634	344,329	9,201,509
농촌(읍면)	합계(명)	8,321,384	4,885,257	4,505,008	274,489	105,760	3,436,127
	남성(명)	4,187,413	2,881,374	2,734,061	92,416	54,897	1,306,039
	여성(명)	4,133,971	2,003,883	1,770,947	182,073	50,863	2,130,088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표본)」, 2020.

○ 여성 취업에 대해 농촌은 도시에 비해 가사전념이 중요하다는 비율이 높고, 구직시기를 도시와 반대로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가짐

부표 1-18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21년)

도농별	모르겠음	가사 전념이 중요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음	직업 가지는 시점 여부					
				소계	가사 관계 없이	결혼 전까지	첫 자녀 출산까지	자녀 성장 후	출산전과자녀 성장 후
도시(동)	9.1%	5.5%	85.5%	100.0%	64.8%	1.9%	3.7%	11.8%	17.7%
농촌(읍면)	9.9%	6.3%	83.7%	100.0%	58.7%	2.4%	2.9%	16.4%	19.7%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21.

○ 여성들의 취업 장애 요인으로는 1순위로 육아부담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편견, 불평등한 근로여건, 가사부담 등이 제기

- 특히 농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사회적 편견, 가사부담요인의 비중이 높으며, 대안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여성주민 뿐 아니라 여성농업인 등을 고려한 성인지적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더 필요

부표 1-19 여성취업 장애 요인 ('21년)

도농별	사회적 편견	불평등한 근로여건	구인정보 부족	육아부담	가족돌봄(육아제외)	가사부담	기타	모르겠음
도시(동)	16.1%	12.6%	2.6%	50.8%	2.9%	5.6%	0.5%	8.8%
농촌(읍면)	17.1%	10.5%	2.3%	48.7%	3.4%	7.2%	0.2%	10.6%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21.

□ [정주기반] 낮은 주거여건 및 공간계획의 체계화 필요

○ 도시와 농촌의 주거여건 만족도를 살펴보면 농촌이 도시에 비해 만족감이 낮은 것이 주거여건에 대한 다양한 부문에서 극명하게 나타남

부표 1-20 주거여건 만족도('21년) (11점 리커트)

도농별	통신시설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	주택상태	자연재해 안전	범죄안전	적은 환경 오염	정돈된 경관
도시	7.7	7.7	7.6	7.0	7.3	6.9	6.8	6.9
농촌	6.7	6.4	6.2	6.4	6.7	6.7	6.4	6.6
도농차이	-1.0	-1.3	-1.4	-0.6	-0.6	-0.2	-0.4	-0.3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2021.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추정치를 보면 농촌의 경우 면적 미당은 전체 가구의 1.2% 비중을 차지하며, 방 수 미달은 4.3%, 필수설비 미달은 3.3%

부표 1-21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추정('19년) (가구,%)

구분	농촌(읍·면부)	도시(동부)	전체
면적 미달	189(1.2)	1,596(3.5)	1,785(2.9)
방 수 미달	660(4.3)	2,611(5.7)	3,271(5.3)
필수설비 미달	515(3.3)	871(1.9)	1,386(2.3)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1,176(7.6)	4,182(9.1)	5,358(8.8)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2021.

○ 농촌의 정주여건 관점에서 농촌의 난개발 및 개발저하 문제가 만연한 상황, 지자체 차원의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는 상황



자료: MBC뉴스(2019.11.14.); YTN news(2015.3.12.); KBS대전뉴스(2021.10.21.) 캡쳐

부표 1-22 농촌공간계획의 의의

- 농촌공간계획제도는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조화로운 공간을 구축하고, 일자리·주거·산업·사회 서비스 등 계획적인 공급을 통해, 농촌의 경제·사회·환경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계획제도
- 장기적 공간 형성의 제도적 틀이 없이 단편적 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농촌공간을 만들어가는 데 의의
-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지역의 난개발을 억제· 정비하고, 훼손된 농촌다움을 복원시키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촌 공간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경제기반 구축, 사회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계획으로서 위상을 가짐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2022-농업·농촌, 새희망을 보다」, 2022, pp.79-80. 재인용

○ 난개발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주거환경만 저해하는 것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직결되는 문제로 농촌공간을 정비함에 있어 다양한 관점들이 합치되는 공

간계획을 수립

- 농촌지역이 삶터·일터·쉼터로서 포용적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자리, 주거, 산업, 사회서비스, 환경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 노동의 가치 등 정성적인 개념이 바탕이 된 공간계획의 제도화가 필요

□ [정주기반] 불리한 교통접근성 조건 완화 요구

○ 대중교통, 교통안전, 응급차량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농촌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대중교통의 만족감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부표 1-23 교통 만족도 ('21년) (11점 리커트)

도농별	대중교통	교통안전	응급차량 접근성
도시	7.3	6.8	7.1
농촌	5.7	6.4	6.6
도농차이	-1.6	-0.4	-0.5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2021.

○ 교육 및 학습시설에 대한 접근시간을 보면 농촌이 도시에 비해 평균 접근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부표 1-24 도농·교육시설별 접근시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20년) (분,%)

구분	도농별		시설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 보육·교육시설 평균 접근시간	도시(동부)		2.3	2.9	9.9
	농촌	읍부	4.7	7.8	23.1
		면부	6.5	14.2	30.2
구분	도농별		전체 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초·중등교육 시설 평균 접근시간	도시(동부)		3.9	3.2	4.6
	농촌	읍부	6.4	5.2	7.6
		면부	8.2	6.4	10.0
구분	도농별		평균 접근시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도서관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도시(동부)		3.8	93.0	
	농촌	읍부	6.9	78.6	
		면부	12.0	49.3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2020.

○ 교통 여건 취약지역 교통수단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필요, 농촌지역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통서비스의 확충이 요구

부도 1-2 농어촌 교통 취약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사업 인지도와 이용여부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2021.

□ [문화·여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문화·여가 여건

○ '도시와 농촌의 문화·여가 생활 여건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고 체감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도시의 경우 나빠졌다는 의견이 많았고, 농촌의 경우 좋아졌다는 의견이 많았음

- 그러나 보편적으로 문화생활 여건의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많은 점에 대해서 문화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 및 시설의 혁신이 필요

부표 1-25 문화 여가 생활여건 ('21년)

도농별	문화·여가 생활 여건		
	좋아짐	변화 없음	나빠짐
도시(동)	27.7%	41.0%	31.3%
농촌(읍면)	28.3%	45.8%	25.9%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21.

○ 도시와 농촌의 교육 및 문화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며, 농촌의 교육 및 문화서비스의 만족감이 낮은 수준

부표 1-26 교육 및 문화서비스 만족도 ('21년) (11점 리커트)

도농별	공교육 수준	방과 후 교육 기회	평생교육 기회	지역사회 연계 교육	문화·여가 시설	문화·여가 프로그램	문화 공동체 활동
도시	6.7	6.6	6.3	6.3	6.5	6.2	5.9
농촌	5.8	5.7	5.4	5.4	5.4	5.2	5.2
도농차이	-0.9	-0.9	-0.9	-0.9	-1.1	-1.0	-0.7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2021.

□ [문화·여가]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강화 필요

○ '노후에 원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취미활동과 여행·관광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으며, 농촌의 경우 취미활동, 소득창출, 종교활동에 대한 수요가 도시에 비해 더 높음

부표 1-27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 ('21년)

도농별	취미활동	여행·관광	소득 창출	학습·자기개발	자원봉사	종교활동	기타
도시(동)	39.5%	32.6%	11.5%	7.1%	4.8%	4.1%	0.4%
농촌(읍면)	39.5%	32.1%	13.6%	5.5%	3.9%	4.6%	0.9%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21.

○ 수요가 있어도 농촌의 경우 문화시설 및 체육활동시설의 접근성이 도시에 비해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서비스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

부표 1-28 도농·문화시설 평균 접근시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20년) (분,%)

구분	도농별		평균 접근시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문화시설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도시(동부)		9.1	99.8
	농촌	읍부	19.8	89.1
		면부	27.8	83.0
체육시설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도시(동부)		7.4	99.7
	농촌	읍부	13.7	91.1
		면부	21.6	77.5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2020.

□ [건강·보건] 내면적 힐링에 대한 수요의 증가

○ '농촌지역의 건강상태 만족도를 보면 2021년 기준 54점/100점으로 보통이상의 수준(2016년 대비 큰 변화는 없고, 오히려 만족도 비율이 상승한 특징을 보이고, 읍 지역, 비 농어가, 남성의 만족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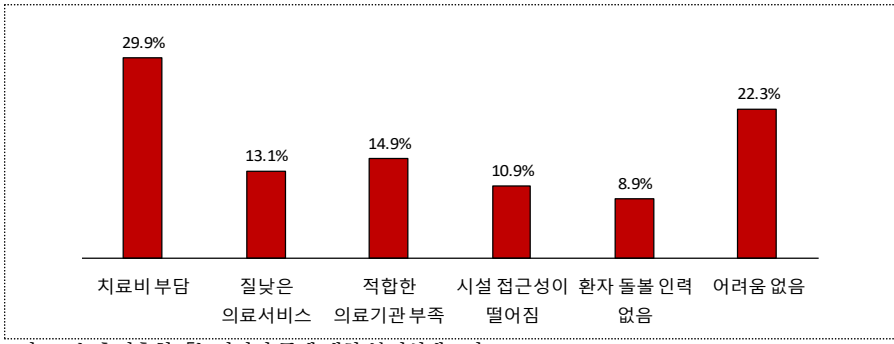
부표 1-29 농촌지역의 건강상태 만족도 ('21년)

구분		만족도 평균 점수	만족함	보통	불만족함
2016년 농촌지역 전체		54.1점	39.4%	36.6%	24.0%
2021년 농촌지역 전체		54.0점	41.8%	31.1%	27.1%
읍		56.8점	46.0%	32.0%	22.0%
면		51.4점	37.9%	30.3%	31.8%
영농여부	농어가	51.4점	36.3%	33.9%	29.8%
	비농어가	55.0점	44.0%	30.0%	26.0%
성별	남성	59.2점	48.1%	33.8%	18.1%
	여성	50.1점	37.0%	29.1%	33.9%

자료 : 농촌진흥청,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2021.

○ 농촌에서 질병치료 시 치료비 부담이 1순위, 다음으로 적합한 의료기관 부족, 의료서비스의 질, 접근성 등이 지적

부도 1-3 농촌지역의 질병치료 시 어려운 점



자료 : 농촌진흥청,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2021.

○ 농촌지역의 정신건강 상태를 보면 고립감(72.1%), 쓸쓸함(67.1%), 화(67.0%), 답답함(65.3%), 두려움(63.4%), 우울감(62.0%) 등의 부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확인

부표 1-30 농촌지역의 정신건강 인식정도 ('21년)

구분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	나는 아무이유 없이 두려울 때가있다	나는 별 이유 없이 화내는 일이 있다	나의 기억력은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뒤죽박죽일 때가 있다
2021년	56.4%	63.4%	67.0%	53.3%	61.0%
2016년	56.5%	67.6%	67.2%	53.1%	64.7%
구분	현재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고 있다	요즘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때다	외롭다는 느낌이 자주 든다	앞으로 내 주위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지금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2021년	41.2%	42.7%	57.3%	47.9%	72.1%
2016년	43.2%	43.8%	63.3%	51.0%	73.3%
구분	무슨 일이든	나는 현재의	나는 늘	나도 모르게	자주 우울해지고 기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생활에 만족한다	행복한 편이다	걱정할 때가 많다	분이 언짢다
2021년	46.6%	54.2%	51.4%	49.7%	62.0%
2016년	48.0%	54.6%	51.1%	54.0%	65.8%
구분	지금이 내인생에 가장 쓸쓸한 때다	나는 돈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다	내색하지 않지만 마음이 상할 때가 많다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목에 무언가 꽉 막힌 것 같은 때가 있다
2021년	67.1%	42.2%	50.3%	52.5%	65.3%
2016년	70.3%	42.0%	53.9%	53.7%	68.6%

자료 : 농촌진흥청,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2021.

□ [건강·보건]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필요

○ '농촌지역에서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이 90%이상의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다음으로 병(의)원, 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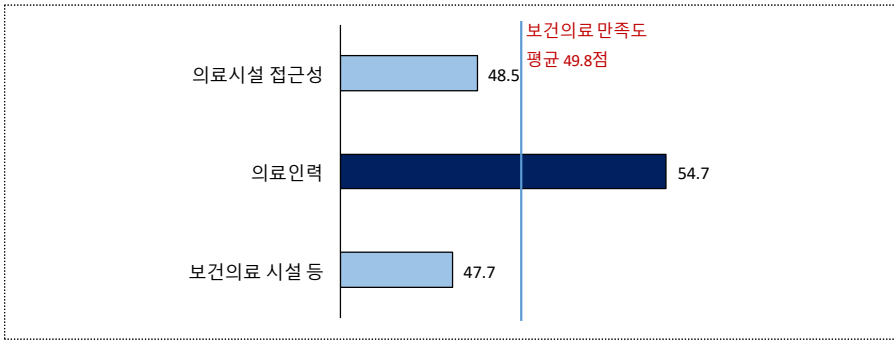
부표 1-31 농촌지역의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21년)

구분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보건진료소	공공의료기관	병(의)원	한방병(의)원	종합병원	민간의료기관
농촌지역 전체		0.5%	1.3%	1.4%	3.1%	83.6%	1.4%	11.8%	96.9%
읍		0.3%	0.4%	0.3%	1.0%	86.3%	1.6%	11.0%	99.0%
면		0.6%	2.1%	2.5%	5.1%	81.0%	1.3%	12.6%	94.9%
영농여부	농어가	0.7%	2.2%	3.1%	6.0%	78.4%	1.5%	14.1%	94.0%
	비농어가	0.4%	0.9%	0.7%	2.0%	85.7%	1.4%	10.9%	98.0%
성별	남성	0.5%	1.0%	1.6%	3.1%	82.8%	1.4%	12.7%	96.9%
	여성	0.5%	1.5%	1.2%	3.2%	84.2%	1.5%	11.2%	96.8%

자료 : 농촌진흥청,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2021.

○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49.8점/100점으로 보통 이하의 수준(부문별로 의료인력에 대한 만족감이 54.7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료시설 접근성(48.5점), 보건의료 시설 등(47.7점) 순)

부도 1-4 농촌지역 보건 및 의료서비스 여건 만족도 ('21년) (100점 기준)



자료 : 농촌진흥청,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2021.

○ 의료시설에 대한 평균 접근시간으로 보면 도시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며 더 많은 시간이 소요

부표 1-32 도농 의료기관 평균 접근시간/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20년) (분,%)

구분	도농별		전체 평균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의료기관 평균 접근시간	도시(동부)		5.6	4.7	6.1	5.3	6.4
	농촌	읍부	18.5	12.6	17.8	20.2	23.3
		면부	26.8	21.9	25.1	28.9	31.1
의료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도시(동부)		99.7	99.9	99.8	99.9	99.1
	농촌	읍부	79.7	89.9	81.5	76.2	71.2
		면부	67.2	77.3	71.3	62.5	57.7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2021.

□ [먹거리] 먹거리 문제와 대응

○ 식량위기와 더불어 사회 속 경제적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확대, 코로나 19이후 경제·사회적 불안정·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기본적인 먹거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취약계층이 더욱 증가

○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안정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저하와 영양·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국가 의료/질병 비용이 증대하고, 국가 재정부담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가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에 관심이 필요

- 대안으로 푸드플랜 수립을 통해 국가 및 지역단위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전략들이 만들어졌음에도 먹거리 손실, 폐기, 자원순환에 대한 접근이 미진함

부표 1-33 취약계층의 1인당 소득 및 소비지출 비교('20년) (원,%)

구분		전체	중위소득 30% 미만		중위소득 30~40%	중위소득 40~50%	중위소득 50% 이상
			사회수혜금 혜택	사회수혜금 비혜택			
소득(경상+비경상)		2,793,986 (100.0)	1,051,803 (37.6)	686,858 (24.6)	1,310,341 (46.9)	1,452,425 (52.0)	3,101,137 (111.0)
경상소득		2,736,760 (100.0)	1,018,294 (37.2)	651,353 (23.8)	1,245,185 (45.5)	1,401,722 (51.2)	3,338,077 (122.0)
소비지출		1,535,121 (100.0)	949,188 (61.8)	875,514 (57.0)	1,050,353 (68.4)	1,156,708 (75.3)	1,730,576 (112.7)
식품비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230,418 (100.0)	200,024 (86.8)	186,318 (80.9)	210,295 (91.3)	213,304 (92.6)	241,166 (104.7)
	식료품 및 비주류 +주류	240,375 (100.0)	207,772 (86.4)	192,537 (80.1)	217,396 (90.4)	220,384 (91.7)	252,092 (104.9)
	식료품 및 비주류 +주류+외식	443,128 (100.0)	285,539 (64.4)	268,040 (60.5)	325,600 (73.5)	333,623 (75.3)	495,288 (111.8)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김상효 외(20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p.228. 재인용

부표 1-34 취약계층의 식생활 관련 지표 및 질병 유병률 ('20년) (%)

구분	중위소득 30% 미만		중위소득 30~40%	중위소득 40~50%	중위소득 50% 이상
	수급가구	비수급 가구			
식생활 불안정 비중	20.7	6.9	10.3	7.3	1.2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	21.1	19.3	16.6	16.5	12.4
에너지 부족 비중	42.7	39.9	36.3	35.8	30.1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비율	39.3	26.9	26.8	17.3	11.6
고혈압 유병률	42.9	41.6	36.7	26.4	18.9
당뇨병 유병률	17.8	13.7	15.9	11.3	6.4
고지혈증 유병률	20.0	19.5	19.2	18.4	14.0
비만율	22.2	18.8	17.8	15.9	18.0
EQ-5D(삶의 질 지수)	0.83	0.88	0.90	0.92	0.97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16-2018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분석. 김상효 외(2021) 재인용

□ [먹거리] 먹거리를 활용한 자원순환 필요

○ '먹거리 손실 및 폐기의 저감과 자원순환을 위해 생산 및 수확 후 관리, 가공 및 유통, 소비, 폐기 등 단계별 모니터링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화(먹거리 싸이클 전반의 데이터) 작업이 필수

○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 처리 방식을 보면 재활용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량은 총 4,556,157톤/년으로 집계되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활용 방식으로 처리하는 비중이 높음 →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이에 대한 기반이 요구

부표 1-35 외국의 먹거리 손실·폐기 저감 대책과 활동

[프랑스]
- 법률을 제정하여 음식물류의 폐기 저감 노력과 전 국민적인 실천을 적극적으로 도모함
- 소비가 가능한 음식물 폐기를 금지(폐기물감축법 제정, '16.2.), 교육법과 식품법('19.10)에서도 음식물류 폐기의 감축 조항 등을 포함
- 먹거리 대형 유통회사는 남은 재고를 사회기부 위해 먹거리 자선단체와 제휴를 맺어야 함
- 식당에서 '잔반 포장 용기(gourmet bag)'을 일반화하기 위한 대책('19년~)과 중고등학교에서 '폐기물 제로(zero waste) 전국대회를 개최('20년~)

[일본]
- 3차 식육(食育)추진기본계획('16~'20)에서 자연과 사회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먹거리 생산~소비까지 먹거리(食) 순환 의식을 강조하며 먹거리 손실 저감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
- 식품로스저감 전국대회·세미나 등(범부처) 식품 재활용과 먹거리 손실저감 활동개발·보급
- (개인)식품로스 다이어리 보급, (가정)식품손실 계량화, (소매점)매장 내 진열 순서대로 구매촉구 캐릭터(すぐたべくん) 개발, (음식점)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참여 음식점 정보제공, (학교급식)낭비 없이 조리하고 남기지 않고 먹기 교육

자료 : 황영모 외(2020) 재인용

부표 1-36 음식물류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처리현황('20년) (톤/년)

시도	구분	재활용	소각	매립	기타
전국	종량제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34,663.9	342,600.9	100,359.1	4,215.2
	영농폐기물_농약용기류	3,070.9	0.0	0.0	0.0
	영농폐기물_폐비닐	166,927.2	0.0	0.0	0.0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4,556,157.2	64,071.0	48,385.7	1,765.1
특광역시	종량제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20,779.3	75,546.2	44,503.3	0.0
	영농폐기물_농약용기류	44.4	0.0	0.0	0.0
	영농폐기물_폐비닐	3,324.2	0.0	0.0	0.0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1,991,149.6	220.0	0.0	0.0
경기	종량제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5,392.1	121,557.6	14,961.7	616.0
	영농폐기물_농약용기류	100.5	0.0	0.0	0.0
	영농폐기물_폐비닐	19,381.3	0.0	0.0	0.0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1,146,607.0	3,585.3	628.0	872.8
강원	종량제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2,246.3	9,267.2	5,265.3	0.0
	영농폐기물_농약용기류	329.3	0.0	0.0	0.0
	영농폐기물_폐비닐	22,957.0	0.0	0.0	0.0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122,478.9	10,261.6	4,982.3	0.0
충북	종량제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0.0	24,818.2	5,248.5	0.0
	영농폐기물_농약용기류	275.0	0.0	0.0	0.0
	영농폐기물_폐비닐	15,501.3	0.0	0.0	0.0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139,278.7	9,326.2	12,568.5	0.0
충남	종량제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231.5	36,519.5	1,704.5	197.4
	영농폐기물_농약용기류	340.6	0.0	0.0	0.0
	영농폐기물_폐비닐	17,229.5	0.0	0.0	0.0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192,775.7	6,033.6	0.0	82.0
전북	종량제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82.4	8,913.2	6,237.9	0.0
	영농폐기물_농약용기류	690.0	0.0	0.0	0.0
	영농폐기물_폐비닐	13,447.6	0.0	0.0	0.0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221,039.2	0.0	666.7	0.0
전남	종량제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388.7	9,524.1	12,953.5	1,068.7
	영농폐기물_농약용기류	364.9	0.0	0.0	0.0
	영농폐기물_폐비닐	28,297.9	0.0	0.0	0.0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158,568.3	13,474.0	21,082.9	810.3
경북	종량제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3,839.6	27,601.7	3,379.6	0.0
	영농폐기물_농약용기류	456.1	0.0	0.0	0.0
	영농폐기물_폐비닐	22,943.3	0.0	0.0	0.0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209,133.8	10,889.9	4,033.3	0.0
경남	종량제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1,704.0	21,327.6	6,052.5	2,333.1
	영농폐기물_농약용기류	293.4	0.0	0.0	0.0
	영농폐기물_폐비닐	18,288.9	0.0	0.0	0.0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293,893.8	10,280.4	4,424.0	0.0
제주	종량제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0.0	7,525.6	52.3	0.0
	영농폐기물_농약용기류	176.7	0.0	0.0	0.0
	영농폐기물_폐비닐	5,556.2	0.0	0.0	0.0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81,232.2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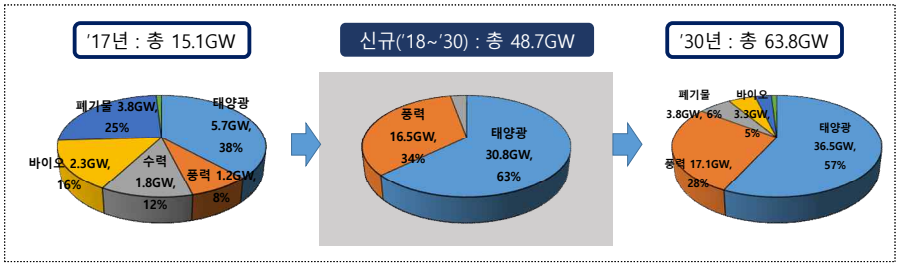
자료 :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20.

□ [에너지] 재생에너지 수요의 확대

○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

-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영향으로 에너지전환에 대한 관심 증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하고,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으로 목표

부도 1-5 재생에너지원별 발전설비 보급 목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2022」, 2022, p.174. 재인용

○ 도시와 농촌의 재생에너지 시장 잠재량의 경우 발전설비가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태양광과 육상풍력을 중심으로 추정한 시장 잠재량은 291GW 수준

부표 1-37 도농별 재생에너지 시장 잠재량 추정(GW)

시도	전체			태양광			육상풍력		
	도시	농촌	합계	도시	농촌	소계	도시	농촌	소계
서울	6.934	-	6.934	6.934	-	6.934	-	-	-
부산	4.672	-	4.672	4.654	-	4.654	0.018	-	0.018
대구	4.307	-	4.307	4.298	-	4.298	0.009	-	0.009
인천	5.291	-	5.291	5.133	-	5.133	0.158	-	0.158
광주	2.975	-	2.975	2.951	-	2.951	0.024	-	0.024
대전	2.221	-	2.221	2.218	-	2.218	0.003	-	0.003
울산	1.712	1.608	3.32	1.667	1.551	3.219	0.045	0.057	0.102
세종	0.171	1.303	1.474	0.168	1.269	1.437	0.003	0.034	0.038
경기	15.089	19.125	34.214	5.047	18.783	33.831	0.042	0.342	0.384
강원	2.478	18.764	21.242	2.364	7.504	19.867	0.114	1.26	1.373
충북	2.211	20.354	22.565	2.186	9.434	21.619	0.025	0.92	0.945
충남	4.902	30.132	35.034	4.768	7.689	32.457	0.134	2.443	2.577

부표 1-37 도농별 재생에너지 시장 잠재량 추정(GW)

시도	전체			태양광			육상풍력		
	도시	농촌	합계	도시	농촌	소계	도시	농촌	소계
전북	3.565	19.309	22.874	3.532	8.465	21.997	0.033	0.844	0.877
전남	1.975	24.166	26.141	1.929	1.394	23.324	0.046	2.772	2.818
경북	7.402	51.218	58.62	7.038	5.000	52.038	0.364	6.218	6.582
경남	3.673	24.75	28.423	3.609	3.306	26.916	0.064	1.444	1.508
제주	8.413	2.665	11.078	8.090	1.830	9.92	0.323	0.835	1.158
합계	77.991	213.394	291.385	76.586	96.225	272.811	1.405	17.169	18.573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2022」, 2022, p.184, 표 6-15. 재인용.

- 태양광 시장 잠재량은 273GW이며, 도시 77GW(28%), 농촌지역 196GW(72%) / 육상풍력 시장 잠재량은 19GW이며, 도시 1.4GW(8%), 농촌 17GW(92%) 로 농촌지역의 잠재량이 높은 수준

□ [에너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농촌여건 필요

○ 선진국은 다양한 기술을 통해 농촌마을의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였으며, 이로 인한 부가가치 발생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가 운영되고 있음

부표 1-38 농촌의 에너지전환 사례: 독일의 쇠나우, 징엔, 펠트하임 지역

· 각 사례들은 오일쇼크로부터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 기존 에너지원에 대한 회의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독점적인 공급구조에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에너지 협동조합, 씽크탱크 연구소, 기업 등의 조직형태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상황

· '쇠나우 시민발전소'로 알려진 쇠나우 전기회사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없는 미래를 위한 부모들 모임"이 발전하여 1991년 "에너지 협동조합"의 형태로 100% 무원전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20년 조합원 수 9,600명, 매출은 약 2억3천2백만 유로이며, 모든 조합원에게 3%의 이익금을 배당하고 있다. 핵심사업으로 태양광/태양열, 열병합, 소수력, 설계/건설/발전 등이 있음

· 징엔 솔라 콤플렉스는 2000년 9월 29일 유한책임회사 (GmbH)로 결성된 20명의 시민이 모체가 되었으며,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고민으로 시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운동가들과 학자, 철학자들이 모여 한 주간 심도 깊은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보덴호(Bodensee) 서부에서 2030년까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공급전환을 추진키로 결의하였으며, 회사명은 태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재생가능한 에너지(지열을 제외한)가 중심에 있음을 표방하였다. 2020년 주주 수 1,200명, 매출은 1,774만 유로이며, 이익배당금은 약 2% 수준이다. 핵심사업으로 바이오에너지 마을의 기획, 건설 및 운영, 태양광 발전소의 계획, 건설 및 운영, 재생에너지 난방 계획 & 관리서비스, 풍력 터빈 건설을 위한 바람 측정, 풍력 터빈의 계획, 건설 및 운영, 에너지 기획 서비스 등이 있음

부표 1-38 농촌의 에너지전환 사례: 독일의 쇠나우, 징엔, 펠트하임 지역

· 펠트하임은 이미 2009년 독일에서 유일한 에너지 자립마을로 기록되었는데, 에네르기 콸레(Energiequelle GmbH), 트로이엔브리쯘시 그리고 펠트하임 주민들이 합작한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2010년 결정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공인받은 계기는 에너지의 생산뿐 아니라, 송배전 및 난방 계통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독립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계산 상으로 가상의(virtual)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원의 전기와 열만 사용한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사례임



참고자료

김동영 외(2022),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정립 및 발전방안’, 전라북도.
김동영 외(2022),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정립 및 발전방안’, 전라북도.
김정섭(2021), ‘농촌 지역사회에서 학교란 무엇인가? 학교 살리기와 농촌재생’, 지역재단.
미야조에 켄시(2021), “지역을 디자인하다”, 학연문화사.
박진도(2021), ‘자립하려는 도시 청년들, 이 마을로 오세요’, 오마이뉴스.
송미령(2022), ‘도농상생을 위한 관계인구 현황과 확충방안’,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신동철(2022), ‘고향사랑 기부제 실시, 지자체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경남연구원 .
신두섭(2023),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책목표와 활용방안’, 익산문화도시 시민토론회.
신소희(2021), ‘장곡면 돌봄망 구축을 위한 준비과정’,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유학렬(2017), ‘일본의 한계마을 정책 사례 분석’, 충남연구원.
임경수(2023), ‘고향사랑기부금제의 활용방안‘, 농촌유토피아연구소.
임상연·변필성(2014), ‘일본의 과소지역 정책동향과 시사점’, 국토연구원.
장　원(2022), ‘당신께서 오시니 유토피아입니다’, 전북연구원 세미나.
정민철(2019), ‘농업과 농촌, 홍동과 장곡 지역의 경험을 중심으로’,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조원지(2021),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 플랫폼 운영방안’, 전북연구원.
진천군(2020), ‘생거진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론회.
한병도(2023), ‘고향사랑기부제도 추진경과와 향후 과제;, 익산문화도시 시민토론회.
황영모(2016), ‘6차산업화 조직현황과 지역단위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차산업포럼.
황영모(2019), ‘농촌지역 생활돌봄과 청년일자리 정책방안’, 전북연구원..
황영모(2022), ‘지역농정의 발전방향과 과제’, 한국농어민신문 심포지엄.
황영모(2023), ‘지역서비스 공동체, 의미와 방향-농촌생활돌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적농업협회.
황영모 외(2019), ‘임실군 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발전계획’, 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
황영모 외(2021), ‘도농융합상생의 기본구상과 대응전략’, 전북연구원.
황영모 외(2021b),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활성화 방안 연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황영모 외(2022), ‘농촌형 사회문제해결 R&D 도입전략 수립 연구’, 농촌진흥청.
황종규(2021), “균형발전-지역혁신 해외사례 II”,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라북도(2022.8.16.),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시군 평가 결과’.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2018),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계획’.
행정안전부(2022.2.8.) ‘연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한다’, 보도자료.
행정안전부(2022.7.7.),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 보도자료.
행정안전부(2022.8.16.), ‘인구감소 위기 극복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분배’ 보도자료.
황영모(2021.4.7.) ‘우리 사회의 회복력의 바탕, 농업·농촌에 있다’, 한국농어민신문 칼럼.
황영모(2021.9.7.), ‘농산촌 소멸이라는 발칙한 의도(?)를 의심하자’, 한국농어민신문 칼럼

李仁雨·黃永模 외(2015), ‘新自由主義經濟下の韓國農協’, 筑波書房.

東京都 文京区(2023), '子どもの貧困対策について', 현지조사 자료
小田徳美(2011), '農山村再生の実践', 農文協.
小田徳美(2014), '農山村は消滅しない', 筑波書房.
日本 總務省(2023), '過疎對策について', 현지조사 자료.
真鶴町(2017), '小さなの大きな挑戰-自治体先進施策紹介', 현지조사 자료
日本 農林水産政策研究所(2015), '6次産業化の 論理と展開方向'.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www.soumu.go.jp)

지방소멸 대응재원의 농업·농촌 활용방안 연구